

팀 스 터 디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2019년 전문자료집 - 팀스터디

☐ 목 차 ☐

1. 기획홍보팀	
◦ 19-01 아동학대 예방교육	5
2. 기능향상지원1팀	
◦ 19-02 작업치료의 접근과 이해	9
◦ 19-03 발달장애인의 성(性)	17
3. 기능향상지원2팀	
◦ 19-04 언어검사도구 종류와 이해	29
◦ 19-05 발달장애 청소년의 성(性)교육	39
4. 가족문화지원팀	
◦ 19-06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	47
◦ 19-07 팀워크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및 분석	53
5. 지역연계팀	
◦ 19-08 달라지는 사회보장급여	83
◦ 19-09 발달장애인성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97
◦ 19-10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생태도 작성법	105
6. 직업지원팀	
◦ 19-11 직업평가 실시, 채점 및 해석, 소견서,작성(MDS, 퍼듀팩보드)	109
◦ 19-12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구글스프레드시트의 이해	119
7. “늘푸른동산” 주간보호센터	
◦ 19-13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과 긍정적 행동지원의 이해	125
8. 보호작업장 “열린일터”	
◦ 19-14 다양성과 인권	141
◦ 19-15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서류정리의 기술	153
9.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 19-16 구글 스프레드시트 및 엑셀 함수의 이해	159
◦ 19-17 PACE, 회복을 지원하는 100가지 방법	169

팀스터디 19-01

아동학대 예방교육



팀 명	기획홍보팀
일 시	2019.10.29.(화)
발표자	김수현
장 소	1층 대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아동학대예방교육

1. 아동학대 정의

가. 「아동」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18세 미만인 사람

나.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다.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아동학대 특별법 제2조 제4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한정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2.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구타, 폭력 감금 등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데인 화상자국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정서 학대 :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과 고함 등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통제하려고 하는 등 아동의 정서를 해치는 행위

-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 언어장애, 비행, 기행(퇴행, 반사회적 행동등)
-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 특정물건을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인 행동 등)
-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성학대 : 아동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위축, 환상, 퇴행행동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성병 감염 및 임신

방임 : 아동의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방치 하는 행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 머릿니, 빈대, 회충 등이 있음
- 예방접종과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
- 도벽 등의 비행행동

유기 : 유기는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특히 생후 며칠 되지 않은 아동을 유기하는 것을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

아동학대 신고 시 유의사항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함.
-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함.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음.
- 진술의 오염이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음.

3.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개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시속한 처리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전문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관할구역	운영주체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434-1391	미추홀구 경원대로899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옹진군	세이브더 칠드런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515-1391	계양구 경명대로 1074 5층	계양구, 서구, 강화군	굿네이버스
인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424-1391	남동구 남동대로 904, 4층	연수구, 남동구	홀트아동복지회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처리절차

step1 : 신고접수 - 24시간 신고접수, 신고전화 112

step2 : 현장조사 - 상담 및 경찰 동행 출동 및 학대행위 의심자 조사 및 증거수집

step3 : 피해아동 보호조치 -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 인도, 치료위탁 가정위탁 등

step4 : 학대행위자 임시조치- 제지 및 격리, 접근금지, 친권 등 권한 행사 제한
상담 및 교육 위탁

step5 : 피해아동 사례관리 - 상담 및 의료지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step6 : 학대행위자 사례관리 - 보호처분, 심리치료, 의료지원, 가정지원

step7 : 피해아동가정 사례관리 - 상담 및 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step8 : 사후관리- 통합사례관리 회의, 재학대 방지 모니터링, 사후관리 기관연계

팀스터디 19-02

작업치료의 접근과 이해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19년 02월 28일(목)
발표자	작업치료사 임주성
장 소	본관 상담실2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작업치료의 접근과 이해

1. 작업치료의 정의

작업치료는 재활의학의 한 부류로서,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인 작업치료사 면허를 획득해야 그 직무의 수행이 가능하다. 국내 작업치료사의 협회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 따르면,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 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 분야이다. 이 중 작업이라 함은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한국직업사전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에게 일상생활 동작, 일, 여가 활동 등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할 수 있고, 기능 및 발달 수준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미 있고 목적 있는 활동을 통한 치료 프로그램을 말하고 있다.

즉, 작업이라는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을 통해,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프로그램이 작업치료라 할 수 있다.

2. 작업치료의 수행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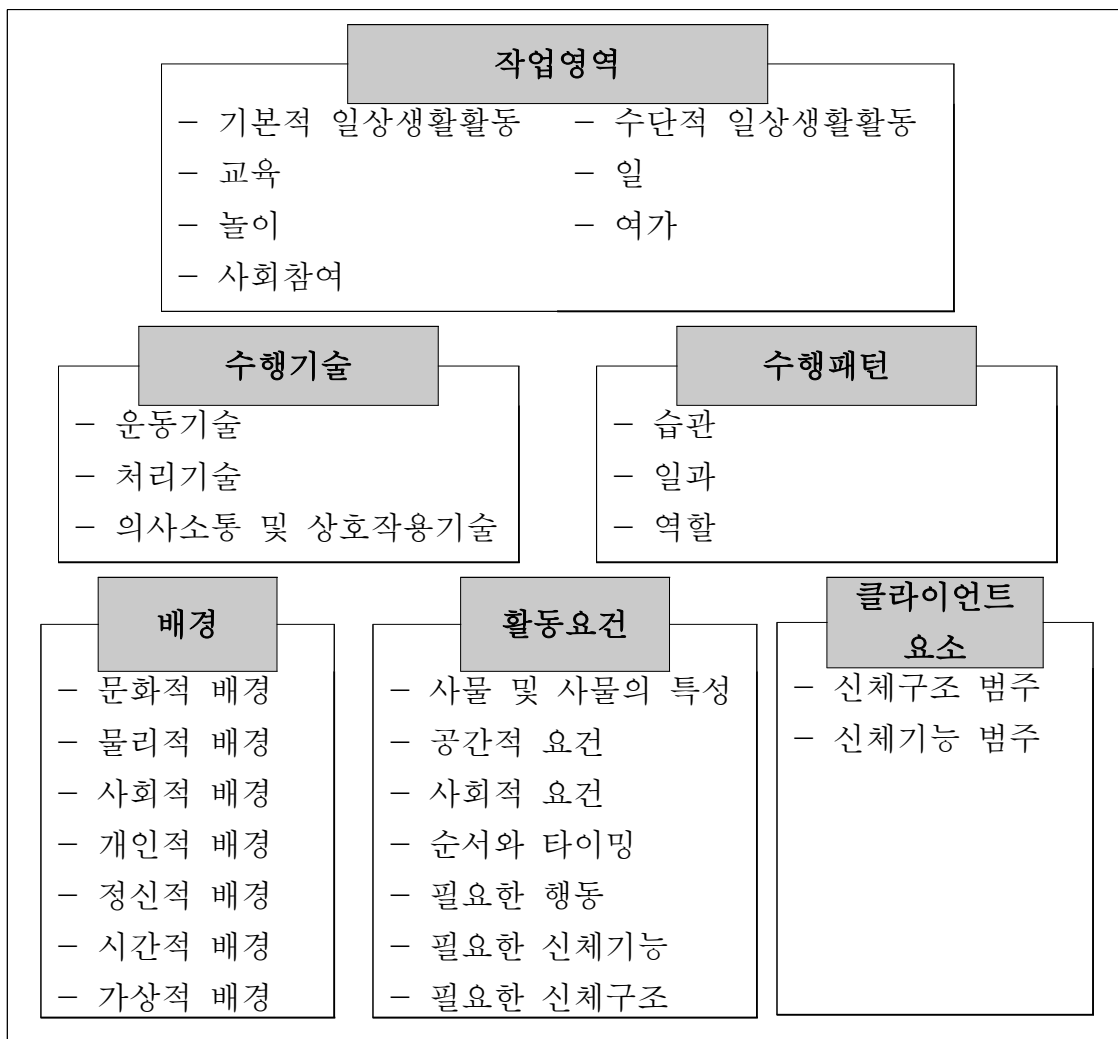
작업치료사는 병원, 복지관, 재활센터, 사설센터 등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 환자의 정보를 확인한다.
- 병력, 직업력 등 환자를 면담한다.
- 환자의 병력 등을 근거로 악력기, 인지·지각 프로그램, 도구 등을 사용하여 운동능력, 손기능 능력, 감각능력, 인지·지각능력, 구강운동기능능력, 정신·사회기술능력, 일상생활능력, 환경/직업/놀이/여가 등을 평가한다.
- 평가에 의거,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 치료계획에 따라 환자의 신체적 능력, 지적 능력, 흥미에 맞는 활동을 선정하며,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지각능력향상훈련, 감각기능훈련, 손기능훈련, 운동기능증진훈련, 구강운동기능촉진훈련, 정신사회기술능력향상훈련, 직업적응능력향상훈련, 사회적응능력 향상훈련 등을 실시한다.

- 치료과정, 경과 등을 관련 의료진과 함께 토의 평가한다.
- 계획, 훈련실시내용, 결과 등을 작성한다.
- 보호자와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전후 관리, 보조기, 의수족 관리방법 등을 교육한다.
- 환자에 필요한 보조기를 제작한다.
- 근로·주거환경을 평가하고 개조 수정한다. 관련문서와 치료기자재를 관리한다.
- 보험 청구를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다른 의료진들에게 작업치료 관련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한다.

3. 작업치료의 영역

작업치료 서비스는 2002년 발간된 Domain and Framework에서 아래와 같은 도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1) 작업영역

작업영역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활동 작업과 활동의 범위를 이야기하며, 다양한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① 기본적 일상생활

우리가 B-ADL 혹은 ADL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몸을 관리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상생활 요소를 말하고 있다. 그 구성으로는 먹기, 식사하기, 옷입기/벗기, 배뇨/배변 관리, 화장실 위생, 개인 위생, 몸단장하기, 목욕, 개인용품 관리, 기능적 이동, 수면/휴식, 성생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는 것과 수행 이후의 정리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② 수단적 일상생활

우리가 I-ADL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환경적인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활동으로, 스스로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다소 복잡하고 선택적인 경향이 있다. 식사준비/설거지, 건강 관리, 집안 관리, 재정 관리, 지역사회 이동, 의사소통 매체 사용, 안전조치/응급대처, 자녀 양육, 타인 돌보기, 반려동물 돌보기, 쇼핑 등이 이에 속한다.

③ 교육

학생으로써 요구되는 활동과 학습 환경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교육 참여, 사교육 참여, 사교육적 욕구·흥미에 대한 탐색 이 있다.

④ 일

보수가 있는 고용이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구직에 대한 관심과 추구, 직업탐색과 취업, 직무수행, 퇴직준비와 적응, 자원봉사활동 탐색, 자원봉사활동 참여 가 있다.

⑤ 놀이

즐거움, 여흥, 재미 및 기분 전환을 위한 자발적이거나 조직화된 활동을 의미하며, 놀이 탐색 및 참여 가 있다.

⑥ 여가

내적 동기에 의해 의무감이 없이 여유로운 시간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의무적인 작업 수행 외에 자유로이 시간을 이용하고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⑦ 사회참여

주어진 사회적 체계 속에서 자신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기대되어지는 조직화된 행동패턴을 의미한다. 가족, 동료/친구, 지역사회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2) 수행기술

기능적인 목적을 위해 구분된 관찰 가능한 행동 요소를 의미한다.

① 운동기술

주어진 과제나 물체,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움직이는 기술을 의미한다. 자세(안정성/정렬/위치), 이동성(걷기/뺨기), 구부리기, 협응력(양측이용 고정조작/조작/유연사용), 근력과 노력(운동/운반/들기/조정/잡기), 에너지(지속/속도 유지)가 있다.

② 처리기술

일상적인 과제 완수를 위해 방법적으로 행동을 조절하고 수정·보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며, 인지/운동/지각 등의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에너지(유지/집중), 지식(선택/사용/조작/유념/요구), 시간 조직화(시작/지속/순서/종료), 공간·사물 조직화(찾기/위치/모으기/조직화/정리/조종), 적응(알기/반응/공간내 조정/조절/문제방지) 등의 요소가 있다.

③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기술

자신의 의사나 욕구를 전달하고 타인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대화보다 확장적인 내용을 의미하며,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게 된다. 신체적 사용(접촉/응시/제스처/행동/정렬/자세), 정보교환(발음/주장/질문/참여/표현/조절/공유/말하기/유지), 관계(협력/순응/집중/형성/존중) 등이 있다.

3) 수행패턴

습관 등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과 관련된 행동패턴을 의미하며, 습관, 일과, 역할이 있다. 습관은 일상생활에서 통합적으로 패턴화된 자동적 행동을 의미하며, 유용한 습관, 불완전한 습관, 우세한 습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과는 순서가 확립된 작업을 의미하며, 역할은 규범이 존재하는 사회적 수용 가능한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4) 배경

배경은 당사자 개인의 내면과 외면을 둘러싸고 있으며, 상호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상의 환경까지 아우르고 있다.

5) 활동요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측면을 의미하며, 사물의 특성, 공간, 사회적 요건, 순서 및 타이밍, 행동, 신체기능 및 구조 등을 말한다.

6) 클라이언트 요소

당사자의 인체학적인 요소로 정신적, 신체적, 구조적 구성요소들로 말할 수 있다.

4. 작업치료의 중재

작업치료의 중재 방법에는 다양한 중재방법 들이 있다. 이론의 틀로 구성된 범주에 따라 다양한 중재방법을 맞추어 사용하게 된다. 신체적 적용방법으로 루드 접근법, 보바스 신경발달치료, 브론스트롬 접근법, 고유수용성신경촉진법, 감각통합 접근법 등의 비교적 구체화된 접근법을 물리치료와 같이 사용한다. 또한 이외에도 행동 분석, 교수 학습, 대처 모델, 시각정보분석, 인지-지각 모델 등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프로그램의 목적과 담당자의 선택,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결정하게 된다.

5. 작업치료 평가도구

작업치료는 작업이라는 행동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이고 다양한 방면에서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가 단순히 평가도구를 사용한 진행에 머물지 않고, 이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해석하는 과정까지 이루어져야 서비스 진행에 올바르게 기여할 수 있다.

개인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개인의 역할과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당사자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활동은 작업 수행의 목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에 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는 가장 대중적인 것이 COPM이 있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참여하기 위한 신체적 기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당사자 개인의 신체적 기능 수준과 제한점 등을 파악해야 하며, 가장 필수적인 평가로 볼 수 있다. 관절가동범위를 확인하는 ROM, 개별 근육의 근력을 측정하기 위한 MMT, 손의 기능을 위한 장악력을 측정하기 위한 장악력 및 핀치력 측정, 근긴장도를 측정하기 위한 MAS, 자세조절 능력을 위한 Berg Balance Test, Romberg Test, 자세반사

검사 등, 부종검사, 통증검사, 기본적인 신체조건에 대한 활력징후 검사, 뇌 신경 기능검사, 감각평가, 시각정보처리능력 검사,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지각평가, 지각된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인지평가, 직접적인 식사 과정을 파악하는 구강 능력 및 식이능력 평가, 신체의 부분적인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특수검사 등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수행의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로, 상지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Box & Block Test, Grooved pegboard, Jebsen & Taylor Hand Function Test, Manual Function Test, O'connor Finger Dexterity Test, Purdue Pegboard Test, Minnesota Manual Dexterity Test, Nine hole Pegboard, Fugl-Meyer Test 등이 있다. 일상생활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AMPS, COPM, MBI, FIM, SCIM-3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인지 및 지각 영역 측정을 위해서는 Allen Cognitive Level Test, LOTCA-2, MMSE-K, MVPT-3, BIT 등을 사용하고 있다. 아동발달영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DDST-2, BOTMP 등이 있다.

현재 본관에서는 발달영역 측정을 위한 DDST-2, 일상생활 측정을 위한 Wee-FIM, 감각능력 파악을 위한 SP, SSP, 손기능 검사를 위한 Jebsen & Hand Function Test, 시지각 능력 측정을 위한 MVPT-3, 인지능력 평가를 위한 LOTCA-3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6. 참고문헌

작업치료사를 위한 임상지침서(2009). 박수현. 군자출판사
시각, 지각, 인지(2010). Barbara 외. 영문출판사
재활의학(2008). 박창일 외. 한미의학

텀스터디 19-03

발달장애인의 성(性)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19년 06월 20일 12:20~13:20
발표자	특수교사 손윤지
장 소	본관 상담실2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의 성(性)

1.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

1) 발달장애인의 성이란?

① 성교육의 방향성

- 양육하는 부모태도와 자세는 아이의 안정적 발달과정에 영향이다.
- 부모의 성 태도와 자세에 따라 은밀한 성, 장난스러운 성, 부끄러운 성, 밝고 건강한 성 등의 성인식이 형성된다.
- 부모나 교사가 건강한 성 개념 정립과 진지하고 자연스런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한다.

② 성 가치관

- 성 : 인간관계를 원활히 맺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한 부분
- 자기표현능력 : 자신의 감정과 사고, 그리고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2) 상호작용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얼마나 가치있는 사람인지
	감정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자녀의 행동패턴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
	부모가 존중해줘야 스스로 자신을 존중할 수 있음

3) 발달장애인의 성을 바라보는 관점

- ① 지식의 전달은 누구나 다양한 매체가 있다.
- ② 그러나 관계 맺기는 아무나 할 수 없다.
- ③ 심리적 억압없이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
- ④ 사람 관점, 피플퍼스트 : 장애를 기본전제로 이야기한다.
- ⑤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 ⇒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공허, 허전해서 관심끌기를 한다.
- ⑥ 시간을 두고 관찰하기
 - ⇒ 그들의 입장이 보여야한다.
 - ⇒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한다.

- ⑦ 경계교육 : 물건, 내 몸, 타인의 몸 등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한다.
- ⑧ 관계교육 : 관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2.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

1)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자기선택’이란?

- ① 자기결정
 - 삶에서 자신이 자신의 삶의 길을 설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능력
 -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살 권리
 - 자신이 온전히 원하고 선택하고 지지하는 권리
 - 자신의 책임에 대한 선택을 하거나 선택권을 가지는 능력
- ② 발달장애인의 자기선택 : 자신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선택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로 발달장애인에게도 선택하기는 중요하다.
- ③ 자기선택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
 - 선택하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에게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혹은 자유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등과 같은 일상적인 선택들과 고용 등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목표들의 결정이 너무 자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선택에 대한 기회가 제한
 - ⇒ 발달장애인이 결정이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변 사람이나 사회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

2)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통념

- ① 지적장애인들은 영원한 어린이다?
- ② 성교육을 함으로써 오히려 성적 호기심만 더 커진다?
- ③ 지적장애인의 부적절한 행동은 무시해버리면 사라진다?
- ④ 지적장애인은 무성이거나 오히려 성에 지나친 관심을 가진다?
- ⑤ 성교육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 ⑥ 장애인성은 전문가만 교육할 수 있다?
 - ⇒ 모두 아니다.

3. 발달장애인의 성적 행동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

1) 지적장애인이 인지한 성행동 실태

① 지체정도별 부적절한 성행동

장애급수	종류
1급	자위행위, 생식기 노출, 옷벗기, 생리대 노출 순으로 나타남
2급	자위행위, 생식기 노출, 애무, 성관계, 동성애 순으로 나타남
3급	애무, 성관계 순으로 나타남

② 장애 성행동의 특성

- 친밀감(안아주기, 뽀뽀하기 등)의 직접적 표현
- 자기 몸, 다른 사람의 몸 만지기
- 노출행동
- 냄새 맡기(머리카락 등)
- 스타킹 만지기
- 쳐다보기

③ 발달장애인이 궁금한 성

- 아이의 생각, 느낌 먼저 묻기 ⇒ 생각 점검하기
- 사실 그대로 그림과 함께 설명하기 ⇒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 관점 잡아주기 ⇒ 건강한 관점 잡아주기

2) 성적행동의 대처 또는 지도 방안

① 자위행동

- 자신이 성적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동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 가장 먼저 손을 깨끗하게 한다.
-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나 혼자 만질 수 있다.
- 성기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3) 지도방법

- ①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를 구분시킨다.

구분		예시
공적 장소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	학교, 복지관, 지하철, 거리, 버스, 교 실, 영화관, 화장실, 공원, 거실, 부엌, 안방, 강당, 컴퓨터실, PC방 등
사적 장소	나 혼자만의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내 방, 문이 있는 화장실

- ② 생식기를 청결히 하는 생활습관을 몸에 익히게 한다.
- ③ 옷을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있다면, 치리닝보다는 지퍼/허리띠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 ④ 운동을 생활화 하고 다양한 취미나 여가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 ⑤ TV 시청 시에는 누워보지 말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보게 한다.

4. 발달장애인의 성행동문제

- 1) 경도(Mild) : 자위행위, 성행위, 성행위흥내, 키스, 애무, 임신

- ① 경도장애인의 경우, 심리-사회적 성적행동이 보통 수준의 정상인과 유사하다.
- ② 일반인과 유사한 성적 충동이나 자극을 느끼고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자기 자신을 성적으로 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성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그러므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성적충동과 욕구를 탐색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 ③ 사회활동의 빈도가 증가하므로 성폭행 피해의 빈도가 가장 높다.
- ④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 ⑤ 가능한 사회에 통합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언어를 통한 성교육, 성상담, 성치료가 가능하므로 계속적인 성교육과 성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
- ⑥ 사춘기 이전부터 즉, 조기에 시작해야한다.

- 2) 중등도(Moderate) : 자위행위, 성기노출, 애무, 포옹, 가슴만지기, 성행위흥내, 키스, 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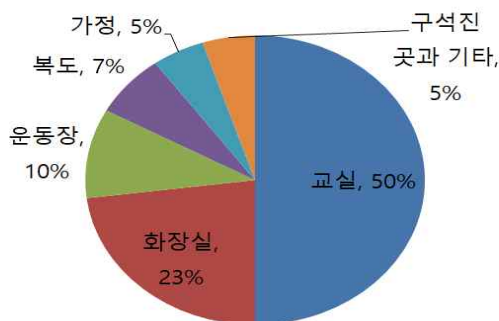
- ① 성행동, 자기자극, 무분별한 자위행동, 동성 또는 이성 간의 성교문제 등을 잘 일으킬 수 있다.
- ② 2차 성징 시작이 늦을 수 있다.

- ③ 성행도, 자기자극, 무분별한 자위행동, 동성 또는 이성간의 성교문제를 비장애인 청소년보다 더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 ④ 언어적 교육보다 시각적 단서가 더 효과적이다.

3) 중증(Severe) : 무분별한 자위문제 및 성기노출 등의 부적절한 성행동이 주를 이룸

- ① 중증 장애인의 경우, 성적 충동에 대한 조절이 어렵고, 신체적 문제/언어장애 문제 등이 동반되며 심리/사회적/성적 행동의 발달이 부족하다.
- ② 관능적, 성적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예견할 능력이 제한적이다.
- ③ 최중도 장애아의 경우, 기본적 욕구충족에 따라 기능하며 적응행동이 거의 없다.
- ④ 주로 자기자극의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하며 종종 지나치게 해로운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다.
- ⑤ 대소변 가리기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소변 처리 및 생리 시의 청결에 특히 신경써야한다.
- ⑥ 손톱을 짧게 깎아 주고, 만약 필요하다면 로션과 약을 사용하여 성기를 보호하도록 하고, 자위 시 해로운 도구 사용을 막는다.

4) 발달장애인의 성행동장소



5. 발달장애인의 성적돌발행동과 대처방법

1) 자위행위 유형

- ① 손이나 다리로 하는 자위행위
 - 만지거나 긁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비비거나 문질러 자극을 주는 행위
- ② 물체를 이용하는 자위행위
 - 책상 모서리나 계단 난간 등을 이용하여 생식기를 압박 자극하는 행위
- ③ 이물질을 삽입하는 자위행위
 - 대체로 여자아이의 경우이며, 이물질이 요도나 방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 자위행위 Q&A

- ① 3세 유아가 자꾸 생식기를 만진다.
 - 걷기 시작할 무렵 아기는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만져봄으로써 이해하려고 생각하는데, 생식기도 자신의 신체의 여러 부분이라고 생각해 탐색하는 것이다.
- ② 틈만 나면 화장실에 가서 자위행위를 하곤 한다. 어떤 때에는 수업 중 슬그머니 빠져나가기도 한다.
 - 사춘기에는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위행위를 자주하는 학생의 경우 혼자 오래두게 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 행위가 반복된다면 관심을 끌기 위해 나가는 등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 ③ 아무 곳에서나 생식기를 꺼내거나 팬티 안에 손을 넣고 자극한다.
 - 염증이 있는지 확인한 뒤, 단순 자위행위라면 일정한 사적장소를 제공해야하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도가 필요하다.

2) 자위행위 지도방법

- ① 여자
 - 손을 깨끗이 씻는다.
 -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간다.
 - 문을 잠근다.
 -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음행을 문지른다.
 - 오르가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자극을 준다.
 - 휴지로 분비물을 닦고 휴지는 휴지통에 넣는다.
 - 속옷을 입는다.
 - 손을 깨끗이 씻는다.
- ② 남자
 - 손을 깨끗이 씻는다.
 -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간다.
 - 문을 잠근다.
 -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원형을 만들어 음경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마찰을 준다.
 - 오르가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자극을 준다.
 - 휴지로 분비물을 닦고 휴지는 휴지통에 넣는다.
 - 속옷과 바지를 입는다.
 -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자위행동 지도 시 사용될 수 있는 단서

- 언어적 단서
- 시범
- 최소한의 신체적 도움

3) 바람직한 자위행위 방법

① 자위행동 전 단계

- 장소선택 :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하고 깨끗한 자기 방
- 손 씻기 : 더러운 손으로 음경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 손톱은 짧고 깨끗이 : 자위행위 시 손톱에 의해 상처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한 감염이 우려된다.

② 자위행위 단계

-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며, 너무 오랜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한다.
-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자위행위 후 단계

- 휴지나 물수건으로 앞에서 항문 쪽 방향으로 깨끗이 닦는다.
-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는다.

6. 여자들의 생리 & 남자들의 생리

1) 여자

- ① 사춘기 시기가 되어 음모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음모를 손으로 뽑는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갑작스런 신체 변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장애아동이 불안감을 느껴 이상행동을 할 수 있다. 보호자와 함께 공중목욕탕에 가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자연스럽게 관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② 생리(월경)를 시작해서 생리대를 팬티에 붙여 입혀주니 자꾸 떼는 이유는 처음 생리대 착용 시에 이물감과 부피감을 느낄 수 있다. 생리는 성인이 되어 가는 자연스런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 ③ 생리 때마다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생식기를 만지는 경우, 생리 중에는 평소보다 감염의 위험이 높다. 또, 생리대나 생리혈로 인한 불쾌감이 있는지 확인하고 생리대를 더 자주 갈아 착용하도록 한다.

2) 남자

- ① 처음 몽정을 경험하는 시기는 아동의 건강 및 영양상태, 지역적인 생활 문화 차이 등으로 개인차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연령 14~15세로,

80%의 남학생이 15세 이전에 몽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② 하정(몽정)현상은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몽정 또는 유정 현상으로 정액이 몸 밖으로 배출되곤 하면 의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 남자들의 생리 유의점

- 몽정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겪는 정상적인 성장과정이며, 지적장애아도 당연히 경험하는 생리현상이다.
- 여러가지 신체 변화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내 몸, 내 생식기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만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7.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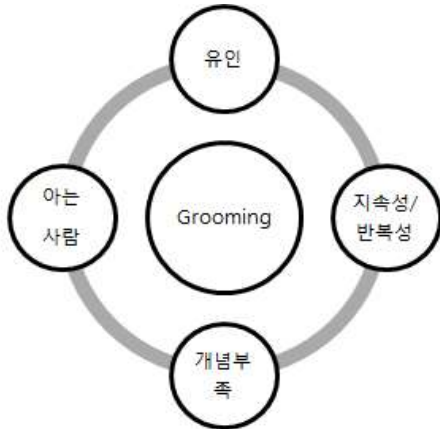
1) 성폭력

-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으로 폭력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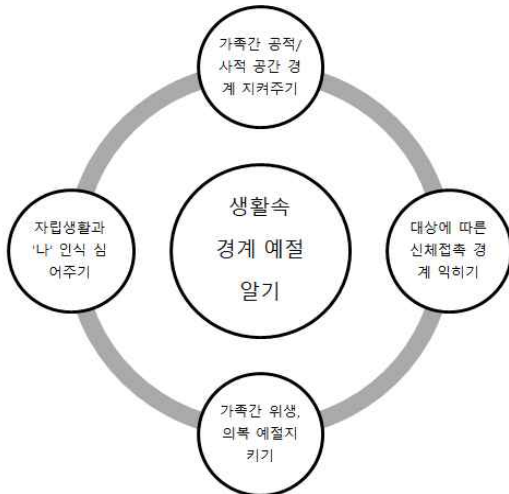
2) 발달장애인의 성행동특성

- ① 낮은 사고력을 지닌다.
- ② 쉽게 믿는다.
- ③ 친근함 표시에 쉽게 다가간다.
- ④ 사랑과 이용을 구분하기 어렵다.
- ⑤ 타인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3) 성폭력의 특성



4) 성폭력의 예방 지도



8. 경계교육과 의사소통

1) 의미

- ① 경계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물리적,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시각적 개인 영역을 의미한다. 국가 간에 국경선이 있듯 개인 간에도 사적인 경계가 존재함. 스스로 자신의 경계를 먼저 인식하고 타인의 경계를 함부로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② 경계존중 교육이란, 개인 간 경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이다.

2) 경계교육의 원칙

- ①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고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해야 한다.

- ②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려고 할 때는 ‘싫어’, ‘안 돼’ 라고 말해도 괜찮다. 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은 아니다.
- ③ 자신이 스킨십 등 상대방의 경계를 침해해야 할 경우 반드시 동의(허락)을 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존중해야 한다.

3) 일상속 경계 침해 사례

구분	경계 침해 행위
물리적	- 동의 없이 상대방 소유물을 사용하기 - 노크 없이 상대방의 공간 침해하기

구분	경계 침해 행위
신체적	-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일부 접촉하기(어깨, 엉덩이 등) - 친근감 표현 의도로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기
언어·정서적	- 소리치기, 위협하기 - 사생활 캐묻기(결혼여부, 이성친구 여부 등) - 스토킹, 상대방 의사 무시하고 찾아가기
시각적	- 남의 몸 엿보기 - 일방적으로 자신의 신체 보여주기 - 음란물 보여주기 -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 혹은 동영상 유포

4) 발달장애인인과의 의사소통

- 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②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 ③ 내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 ④ 내말에 화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 ⑤ 나를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5) 대화의 기본 조건 : 신뢰, 무조건적 사랑, 존중

6) 진정한 대화란

- 상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다.
- 예 :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넌 왜 그렇게 안했니?” 보다는 “처음엔 나도 이해가 안됐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마도 이래서 네가 이랬겠구나 싶더라. 내 말이 맞니?”
- 대화 : 나의 느낌, 감정, 생각을 교류하는 것. 대화의 시작은 들어주기이다.

7) 친절한 소통과정은 설명하기, 동의 구하기, 감사의 말 해주기이다.

8) 나 전달법

- ①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관찰)
- ② 내 느낌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느낌)
- ③ 내가 바라는 것 표현하기(욕구)
- ④ 정중하게 부탁하기(부탁)

9. 제언 및 결론

성이란 인간관계를 원활히 맺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한 부분이며 인간은 자신의 감정과 사고 그리고 욕구를 표현하는 자기표현의 권리가 있다. 하지만 성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적호기심을 느끼고 공공장소 및 부적절한 방법으로 성적자기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타인에게 부적절하게 호기심을 표현하거나 잘못된 성 행위를 하여 신체 일부분을 다치는 등 성적 호기심에 대처가 미숙하기도 하다. 때문에 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은 성인으로 발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발달장애인과 성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며, 자신의 욕구를 어떤 형태로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성에 대해 적절하게 대화를 나누고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 자위행위 지도방법, 성 가치관, 성 폭력, 이용인의 성적 돌발행동 및 대처방법에 대해 개별화를 통해 각각 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성에 대한 가치관과 가정에서 교육할 수 있는 성적표현 방법을 안내하여 일관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후 성교육이 필요한 연령의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미리 성 교육을 계획하여 수업 시 실시한다면 성에 대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함으로서 다양한 지역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사회참여를 하리라 사료된다.

팀스터디 19-04

언어검사도구 종류와 이해



팀 명	기능향상지원2팀
일 시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발표자	정애진
장 소	본관 상담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언어검사도구 종류와 이해

I 평가의 종류

아동의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하는 검사도구는 구조화된 정도나 검사 실시 방법, 검사 목적 등에 따라 표준화 검사와 비표준화 검사, 직접검사와 간접검사, 공식검사와 비공식검사로 나눌 수 있다. 언어평가에 사용되는 절차로 표준화 검사, 발달척도, 비표준화 검사, 행동관찰을 제시하였다.

1. 표준화검사 및 비표준화검사

1) 표준화검사

- 표준화된 검사나 발달척도는 아동의 수행능력을 정상발달에 근거하여 해석해볼 수 있게 해주므로 현재 수행 능력을 평가하거나 언어문제를 판별하는 데 주로 사용될 수 있다.
-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고 있으며 규준자료에 기초하여 검사 결과를 해석

2) 비표준화검사

- 비표준화된 검사나 행동관찰은 보다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아동이 보이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중재를 계획하거나 평가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언어문제의 유무를 선별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2. 직접검사 및 간접검사

1) 직접검사

- 검사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채점한다.
-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자료를 얻게 해준다.

2) 간접검사

-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대신에 부모보고나 행동관찰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실시한다.
- 너무 어린 경우나 다른 장애를 동반하여 검사 수행이 어려움 경우에는 부모보고나 행동관찰과 같은 간접적인 형태의 평가를 취한다.
-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보고를 할 때 편견에 좌우될 수 있으며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 실제보다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를 할 수 있다.
- 사용이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부모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관찰하게 되므로 다양한 환경에서 행동들을 반영하여 자료를 얻을 수 있다.

II 검사도구를 통한 언어평가

검사도구를 이용한 언어평가는 표준화된 과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아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또래아동의 평균과 비교해 봄으로써 언어발달이 얼마나 지체 또는 일탈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1. 전반적인 언어능력 검사도구

1) 영유아언어발달검사(Sequenced Language Scale for Infants : SELSI)

(1) 개요

- 주양육자가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실시
- 5개월~36개월의 영유아 대상
- 주양육자에게 면담을 통해 기록하거나 주양육자가 직접기록
-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평가점수, 등가연령, 백분위수, 정상발달/약간지체/언어발달지체로 판정

(2) 목적 및 대상

- 언어장애의 조기선별
- 아동의 발달을 알아는 부모나 주양육자의 면담
- 발달간의 차이 분석
- 인지개념 및 의미론적 능력, 음운능력, 구문론적 능력, 화용론적 능력

(3) 검사절차

- 준비물: 검사지, 검사실시 지침서, 평가기록지
- 채점방법: '예' 1점, '아니오' 0점
- 주양육자가 읽고 대답하게 하여 채점, 반응의 빈도가 아닌 발달과제의 습득유무를 판별

(4) 결과해석

- 1SD내에 있는 경우: 정상발달
- 1SD~-2SD에 있는 경우: 약간지체(유의요망)
- 2SD이하인 경우: 언어발달지체(정밀검사의뢰)

(5) 장점 및 단점

- ①장점: 검사실시 용이, 수용과 표현 중 어느 능력이 지체되어 있는지 파악, 언어하위영역의 지체됨 파악, 우리나라 아동의 기준으로 비교 가능
- ②단점: 아동의 언어능력을 이 검사결과로만 파악하기는 바람직하지 않음

2)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chool Receptive Expressive Scale : PRES)

(1) 개요

- 2세~6세 취학전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능력발달 평가
- 의미/인지, 구문, 화용능력 포함

(2) 목적 및 대상

- 언어발달 정상과 지체를 판별
- 수용 및 표현언어의 발달상 차이 분석
- 언어발달지체나 장애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언어능력을 파악

(3) 검사절차

- 준비물: 검사지, 검사실시요강, 그림자료책, 사물자료(축소물, 인형, 장난감 등)
- 검사가 오래 걸리고 아동이 지루해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라포형성 후 실시
- 아동의 집중, 검사태도,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40분정도 소요

(4) 결과해석

- 언어발달연령: 생활연령에 따라 어느 정도 지체되어 있는지 해석
- 백분위수: 동일연령대 아동 중에서 어느정도 해당하는지 상대적인 위치 제시

(5) 장점

- ①장점: 언어의 전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인 언어영역의 평가 가능, 다양한 검사자료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행동 유도
- ②단점: 검사자가 숙달될 때까지 많은 시행훈련이 필요, 복잡한 문항, 검사시간 오래소요

2. 의미론 및 상위언어 능력 검사도구

1)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 REVT)

(1) 개요

- 2세아동부터 성인까지 검사 가능

(2) 목적

- 2세 아동부터 성인까지의 수용어휘 및 표현어휘 능력을 측정

(3) 검사절차

- 준비물: 검사지침서, 검사자료(그림), 검사지
- 채점방법: 각 문항씩 1점으로 계산
- 검사실시: 표현어휘검사부터 실시, 수용언어는 표현어휘 검사 기초선부터 실시, 기초선 8개 연속, 8개 중에서 6개 오답이면 검사중지, 수용어휘만 실시 가능

(4) 결과해석

- 연령규준표를 참고하여 등가연령 산출
- 백분위수표를 참고하여 생활연령대의 상대적인 위치 판별
- 표준편차에 따라 '정상발달', '약간지체', '어휘능력 발달지체'로 판별

(5) 장점 및 단점

-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수용어휘 및 표현어휘 능력을 평가, 간편함
- 그림을 통해서만 표현어휘능력을 평가하는 과제의 제한

2) 한국판 맥아더 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

(1) 개요 및 목적

- 8개월~36개월 사이의 영유아
- 주양육자나 성인이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아동의 능력 평가
- 영아용(8~17개월): 284개의 낱말, 60개의 제스처와 놀이
- 유아용(18~36개월): 641개의 낱말, 문법
- 언어발달지체의 확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선별을 위해서 사용

(2) 검사절차

- 준비물: 검사지침서, 검사지
- 채점방법: 영아용, 유아용 모두 표현/이해 수 합산하여 총수 계산, 문항에 따라 점수 계산

(3) 결과해석

- 어휘, 제스처와 놀이, 문법: 10%ile미만이면 어휘발달 적신호, 25%ile은 지속모니터링
- 해석보류 및 해석주의: 주양육자의 거짓보고 의심, 해석에 주의

(4) 장점 및 단점

- 구조화된 상황에서의 검사나 표본을 통한 언어평가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제공
- 문항의 수가 많아 뒤로 갈수록 피로도 증가하여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음

3) 언어이해인지력검사

(1) 개요

- 학령전 아동의 언어이해력 및 인지력을 측정하는 도구
- 3세~4세
- 인지력에 기초한 개념의 이해
- 지시에 따라 수행하거나 자료를 지적하도록 고안

(2) 검사절차

- 준비물: 검사실시요강, 그림자료 및 사물자료, 검사지
- 채점: 통과 +, 실패 -

(3) 결과해석

- 실시요강에 백분위수, 등가연령 산출

(4) 장점 및 단점

- 언어영역에 대한 개별학습프로그램(IEP) 작성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
- 표본아동 수가 적어 정밀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움

4) 언어문제해결력검사(TOPS)

(1) 개요

-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언어화 하는 상위언어기술을 측정
- 문제상황이 표현된 그림을 보여주고 검사자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게 함

-원인이유, 해결추론, 단서추측

-아동이 속한 연령집단을 비교기준으로 백분위수 제공

(2) 목적 및 대상

-5세~12세

-특정상황에서 대답하는 능력, 언어를 통한 문제해결력을 측정

(3) 검사절차

-준비물: 검사기록지, 검사지침서, 그림판

-채점방법: 0,1,2점

(4) 결과해석

-각 소계를 합한 후 세 범주별로 점수 산출

-총점, 범주별 점수로 생활연령집단을 비교기준으로 한 백분위수 산출함

-연령별 평균과 표준편차, 백분위수로 점수해석

(5) 장점 및 단점

-언어장애 유무를 판단,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이해능력 증진, 상황에 적절한 언어사용능력을 증시시키는 언어훈련의 기초자료로 사용

-평가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대답은 경우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점수부여

3. 구문 능력 검사도구

1) 구문의미이해력검사(KOSECT)

(1) 개요

-문법형태소, 구문구조,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측정

-목표문장을 들려주고, 3개의 그림중에 1개그림 가리키도록 함

(2) 목적 및 대상

-언어이해력에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4세~9세(초3)

-CA 9세 넘더라도 구문이해력이 초등학교 3학년보다 지체보이면 사용가능

(3) 검사절차

-준비물: 검사그림판, 기록지, 실시안내서

-채점방법: +(1점) / NR, DK(0점)

(4) 결과해석: 생활연령 또는 학년집단과 비교하여 백분위수 기록

(5) 장점 및 단점

-학령기, 학령전기 아동의 구문이해력 측정

-짧은 시간안에 평가(15분내외)

-문법 또는 의미 이외의 단서나 추측으로 그림을 선택하여 아동의 반응을 문법이나 의미의 완전한 이해로 볼 수 없음

-구문 이해력이 완벽히 측정되지 않음

-담화나 개별적 심화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함

4. 화용 및 기초 의사소통 능력검사도구

1) 아동 화용언어 체크리스트(CPLS)

- 5세~초등학교 아동 대상
- 공식 언어검사도구로 관찰하기 어려운 화용 결함, 특징을 분석
- 문장사용이 가능한 아동 중 화용문제를 가진 아동을 선별하고 화용결함의 특징을 파악하여 언어치료방향을 제시함
- 자폐성장애 진단을 위해 심도있는 평가를 할 때 사용
- 아직 표준화작업이 완성되지 않았으나 양육자의 보고로 비교적 간단하게 검사가 가능함

5. 읽기성취 및 읽기 인지처리 검사

1)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읽기검사(BASA)

2) 국립특수교육원 기초학력검사: 읽기/쓰기(KNISE-BAAT[읽기/쓰기])

6. 조음음운검사

1) 우리말 조음음운평가(U-TAP)

(1) 개요

- 아동의 조음음운발달과 오류패턴 분석
- 낱말수준과 문장수준으로 구성, 자음 및 모음정확도와 음운변동 출현율을 통해 발달 및 오류의 패턴분석

(2) 목적 및 대상

- 생활연령에 비해 조음발달이 늦되거나, 조음이 명료하지 않은 아동
- 조음위치, 조음방법, 기식성 및 긴장도 등 오류 분석
- 2세~12세아동
- 기능적 조음장애 등 조음발달의 결함, 구개파열, 마비말장애, 뇌성마비등 기질적인 결함을 갖게 된 사람을 대상
- 조음문제 어느정도인지, 어떤 음소에 결함이 있는지 검사

(3) 검사절차

- 준비물: 그림자료, 검사지, 녹음기, 계산기
- 채점방법: 자음정확도, 백분위수
- 검사실시: 낱말수준(그림제시-반응유도-전사), 문장수준(그림제시-목표낱말이 들어간 문장을 유도 또는 목표문장 따라말하기-전사)

(4) 결과해석

- 자음정확도에 따라 생활연령 자음정확도에 비해 얼마나 지체되어 있는지 분석
- 음운변동의 출현율은 음운변동기록표에서 발생빈도 및 출현율을 산출하여 분석

2) 아동용 발음평가(APAC)

(1) 개요

- 틀리게 발음한 말소리의 수, 종류, 오류패턴 분석
- 연결발화에 포함된 말소리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관찰

(2) 목적 및 대상

- 조음음운능력의 연령의 적합성판별, 기능적 조음장애 선별, 구조적 문제, 신경 손상 조음음운장애 아동을 대상
- 3세~6세 취학전

(3) 검사절차

- 준비물: 그림판, 기록용지, 녹음/녹화장치
- 채점방법: 정조음 +, 그 외 들리는 대로 전사

(4) 결과해석

- 자음정확도, 백분위수, 오류패턴

(5) 장점 및 단점

- 정조음하지 못해도 자극반응도를 살필 수 있음
- 인지적인 어려움이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과제수행 어려울 수 있음

7. 유창성검사

1)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P-FA)

- 유창성장애 여부와 정도 파악
- 구어영역 및 의사소통태도 평가
-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 등 모든연령의 사람에게 실시
- 사례면담지, 구어평가 결과기록지, 의사소통태도 평가기록지, 검사도구(날말그림, 이야기그림, 그림책, 말하기그림, 읽기자료 등), 녹화/녹음기

8. 실어증검사

1) 실어증-신경언어장애 선별검사(STAND)

2) 한국판 웨스턴실어증검사(K-WAB)

3) 한국판 보스턴이름대기검사(K-BNT)

Ⅲ 연령과 욕구, 장애유형에 따른 언어검사 사례

<사례1>

(가) 연령: 9세 1개월

(나) 장애유형: 뇌병변(1)

(다) 주욕구: 조음정확도의 향상, 언어발달향상, 인지학습능력 향상

(래) 주요검사: 구강구조기능 관찰, 교호운동검사, REVT, U-TAP 또는 APAC,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등

<사례2>

- (가) 연령: 1세 8개월
- (나) 장애유형: 미등록
- (다) 주욕구: 언어발달향상, 상호작용능력 향상
- (라) 주요검사: 놀이관찰, SELSI, K M-B CDI 등

<사례3>

- (가) 연령: 4세
- (나) 장애유형: 미등록 또는 언어장애(4)
- (다) 주욕구: 말명료도 향상, 언어발달향상, 인지학습능력 향상
- (라) 주요검사: PRES, REVT,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U-TAP 또는 APAC 등

<사례4>

- (가) 연령: 6세
- (나) 장애유형: 미등록(유창성장애)
- (다) 주욕구: 유창성향상, 언어발달향상
- (라) 주요검사: P-FA, PRES, REVT 등

<사례5>

- (가) 연령: 6세 11개월
- (나) 장애유형: 자폐성(1)
- (다) 주욕구: 전반적인 언어발달향상, 상호작용능력 향상, 의사표현(화용) 향상
- (라) 주요검사: 자유놀이관찰, 공식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비표준화된검사나 주관적인 검사도구(의사소통기능, 의사소통의도 체크리스트 등) 사용함

결론

장애인복지관 내에서는 한 아동에게 다양한 영역들의 전문가들이 개별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 논의하고, 담당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으며 아동의 개별적인 발달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단하고 사례를 논의하는 과정 전에 아동의 배경정보와 더불어 발달수준 대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신의 영역을 제외하고 다른 영역의 진단도구와 평가내용 등의 해석이 어려울 경우 아동에 대한 배경이나 발달수준을 정확히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언어재활은 검사도구마다 평가하는 내용과 영역이 다양하고 대상의 연령별, 아동의 욕구에 따라 적게는 1~2개의 검사, 많게는 5개 이상의 검사도구를 사

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도 한다. 때문에 타영역의 언어검사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다른 영역의 치료사가 언어재활의 평가도구와 평가내용에 대해 간략히 이해하고 있다면 대상의 언어수준에 대해 더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1.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2판, 김영태 저, 학지사

팀스터디 19-05

발달장애 청소년의 성(性)교육



팀 명	기능향상지원 2팀
일 시	2019년 6월 20일
담당자	언어재활사 현은주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 청소년의 성(性)교육

1. 들어가며

발달장애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개념정립과 진지하고 자연스런 자세와 태도를 갖추기 위한 성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발달장애인의 정도에 따른 성행동문제

1)경도(mild)

- 경도장애인의 경우 심리·사회적 성적행동이 보통 수준의 정상인과 유사함.
- 일반인과 유사한 성적 충동이나 자극을 느끼고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자기 자신을 성적으로 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성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 사회활동의 빈도가 증가하므로 성폭행 피해의 빈도가 가장 높음.
- 가능한 사회에 통합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언어를 통한 성교육, 성상담, 성치료가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성교육과 성상담을 받도록 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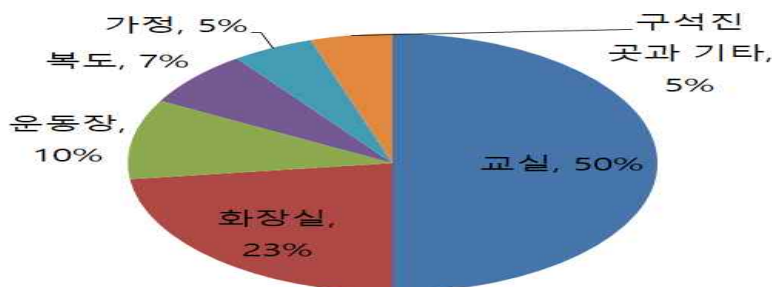
2)중등도(moderate)

- 성행동, 자기자극, 무분별한 자위행위, 동성 또는 이성 간의 성교문제 등을 비장애인청소년보다 더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2차 성징이 늦을 수 있음.
- 언어적 교육보다 시각적 단서가 더 효과적이다.

3)중증(severe)

- 성적충동에 대한 조절이 어렵고 신체적 문제, 언어장애 문제 등이 동반되며 심리·사회적, 성적행동의 발달이 부족함.
- 주로 자기자극의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하며 종종 지나치게 해로운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
- 성행위를 대비하여 손톱을 짧게 깎아 주고 만약 필요하다면 로션과 약을 사용하여 성기를 보호하도록 하고 자위시 해로운 도구 사용을 막아야 함.

3. 발달장애인의 성행동장소



4. 발달장애청소년의 성적 돌발행동과 대처방법

1) 자위행동

① 자위란?

: 자신이 성적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동이므로 존중되어야 함.

②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나 혼자 만질 수 있음.

2) 자위행위 유형

- 손이나 다리로 하는 자위행위
- 물체를 이용하는 자위행위
- 이물질을 삽입하는 자위행위

3) 자위행위 지도방법(여자)

1. 손을 깨끗이 씻는다.
2.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간다.
3. 문을 잠근다.
4.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음핵을 문지른다.
5. 오르가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자극을 준다.
6. 휴지로 분비물을 닦고 휴지는 휴지통에 넣는다.
7. 속옷을 입는다.
8. 손을 깨끗이 씻는다.

4) 자위행동 지도방법 (남자)

1. 손을 깨끗이 씻는다.
2.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간다.
3. 문을 잠근다.
4.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원형을 만들어 음경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마찰을 준다.
5. 오르가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자극을 준다.
6. 휴지로 분비물을 닦고 휴지는 휴지통에 넣는다.
7. 속옷과 바지를 입는다.
8.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자위행동 지도시에 사용될 수 있는 단서

- ① 언어적단서
- ② 시범
- ③ 최소한의 신체적 도움(접촉 절대 안됨)

5)지도방법

①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를 구분시킨다.

구분		예시
공적장소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	학교, 복지관, 지하철, 거리, 버스, 교실, 영화관, 화장실, 공원, 거실, 부엌, 안방, 강당, 컴퓨터실, PC방 등
사적장소	나혼자만의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내 방, 문이 있는 화장실

②생식기를 청결히 하는 생활습관을 몸에 익히게 한다.

③옷을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있다면 츠리닝보다는 지퍼, 허리띠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④운동을 생활화 하고 다양한 취미나 여가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⑤TV시청 시에는 누워보지 말고 바른자세로 앉아서 보게 한다.

6)바람직한 자위행동 방법

①자위행동 전 단계

- 장소선택: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하고 깨끗한 자기 방
- 손씻기: 더러운 손으로 음경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 손톱을 짧고 깨끗이 : 자위행위 시 손톱에 의해 상처가 생길 수 있고 그로인한 감염이 우려된다.

②자위행위 단계

-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며 너무 오랜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한다.
-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자위행위 후 단계

- 휴지나 물수건으로 앞에서 항문 쪽 방향으로 깨끗이 닦는다.
-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는다.

5. 발달장애 청소년의 특성

- 친밀감의(안아주기, 뽀뽀하기 등) 직접적인 표현
- 친근함 표시에 쉽게 다가간다.
- 자기 몸, 다른 사람의 몸 만지기
- 노출행동
- 냄새맡기
- 스타킹만지기
- 쳐다보기
- 타인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수용(지시, 통제)
- 쉽게 믿는다.

- 사랑과 이용을 구분하기 어렵다.
- 낮은사고력

6. 발달장애 청소년 여자들의 생리 & 남자들의 생리

1)여자

- ① 사춘기 시기가 되어 음모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음모를 손으로 뽑는 행동을 보임.
- ② 생리(월경)를 시작해서 생리대를 팬티에 붙혀 입을 때 자꾸 떼는 모습을 보임.
- ③ 생리때마다 팬티 속에 넣어 생식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임.

2)남자

- ① 처음 몽정을 경험하는 시기는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연령 14~15세로, 80%의 남학생이 15세 이전에 몽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② 하정(몽정)현상은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남자들의 생리 유의점

- 몽정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겪는 정상적인 성장과정이며, 지적장애아도 당연히 경험하는 생리현상이다.
- 여러 가지 신체 변화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내 몸, 내 생식기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만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음경이 휘어 있거나 작아도 발기에는 문제가 없으며 비정상이 아님을 알려준다.

7. 발달장애의 성에 대한 통념

- 발달장애인들은 영원한 어린이이다.
- 성교육을 함으로써 오히려 성적호기심만 더 커져 문제만 더 생길 것이다.
- 발달장애의 부적절한 행동은 무시해 버리면 사라질 것이다.
- 발달장애들은 무성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성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가진다.
- 성교육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장애인의 성은 전문가만이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

⇒ 모두 아니다.

8. 성이란?

1)성교육의 방향성

- ① 양육하는 부모태도와 자세는 아이의 안정적 발달과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 태도와 자세에 따라 은밀한 성, 장난스러운 성, 부끄러운 성, 밝고 건강한 성 등의 성인식이 형성된다.

- ② 부모나 교사가 건강한 성 개념 정립과 진지하고 자연스러운 자세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2)성가치관

- 성이란?

: 성은 인간관계를 원활히 맺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한 부분이다.

-자기표현능력이란?

: 자신의 감정과 사고 그리고 욕구를 표현 할 수 있는 능력

3)상호작용

①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 자신이 누구인지
- 가치있는 사람인지
- 감정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② 자녀의 행동 패턴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③ 부모가 존중해줘야 자녀 스스로 자신을 존중할 수 있다.

4)관점

① 지식의 전달은 누구나 다양한 매체가 있다.

② 그러나 관계 맺기는 아무나 할 수 없다.

③ 사람은 이해의 대상자이지 평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④ 친구가 되자. 평등한 수평관계를 맺자

⑤ 사람관점, 퍼플퍼스트 : 모두 장애를 기본으로 전제로 이야기한다.

⑥ 심리적 억압 없이 자율성을 보장하자.

⑦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긍정을 바탕으로 강점을 바라보자.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공허, 허전해서 관심끌기를 한다.

⑧ 시간을 두고 관찰하자.

-그들의 입장이 보인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내가 원하는대로 만들지 말자

⑨ 경계교육 : 물건, 내 몸, 타인의 몸, 마음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분

⑩ 관계교육 : 관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9. 결론

복지관 내 개별 및 그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발달장애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느끼고 성적자기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바른 성적표현에 대한 교육의 부재로, 타인에게 부적절하게 호기심을 표현하거나 잘못된 성 행위를 하

여 신체 일부분을 다치는 등 성적 호기심에 대처가 미숙한 아동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아동에게는 개별적으로 성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호자에게는 성 가치관과 성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안내하고자 ‘발달장애 청소년의 성’을 주제로 하는 교육연수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교육연수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 의사소통하는 방법, 문제행동과 성적표현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성에 대해 적절하게 대화를 나누고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 발달장애청소년의 성적 돌발행동 및 대처방법에 대해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교육연수에서 습득한 내용을 활용하여 아동에게 개별적인 성적표현방법을 지도하고, 보호자에게 올바른 성적관념 및 성적표현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텀스터디 19-06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돌봄)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일 시	2019. 03. 08. 13:30~14:30
발표자	박은영
장 소	대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돌봄)

1.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

1) 커뮤니티 케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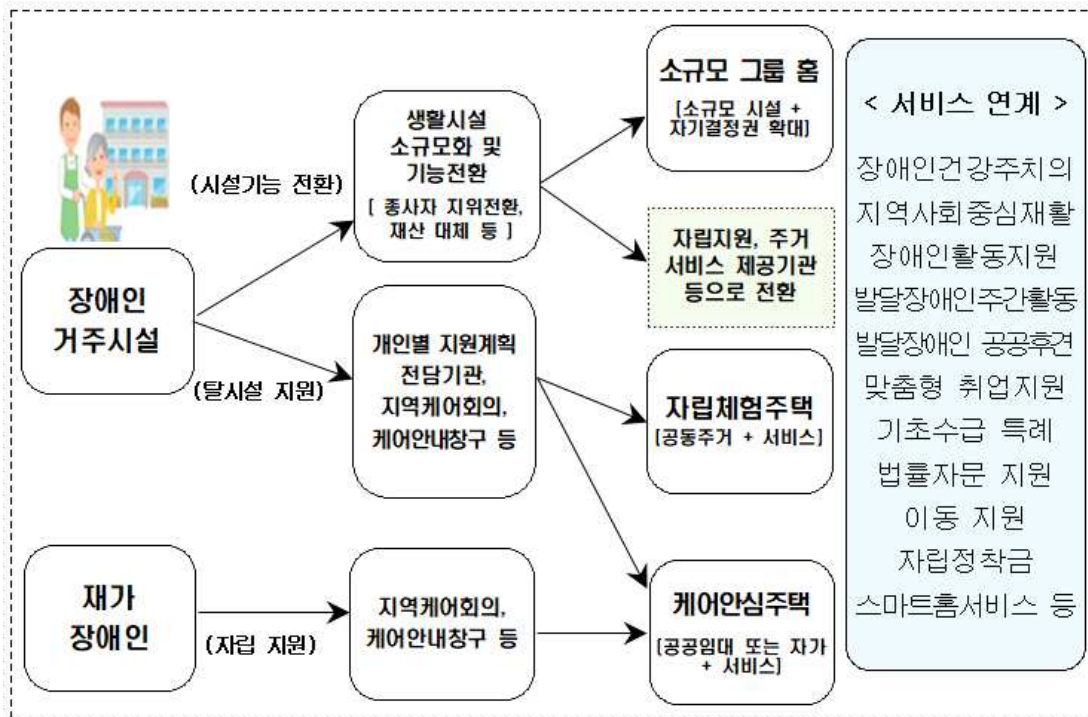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요양기관이나 장애인 시설 등에서 지내는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올해 상반기에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들의 탈 시설화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2) 커뮤니티 케어의 배경

고령화 등으로 돌봄(케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재가서비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급기관 중심으로 짜인 제공체제로 인해 재가서비스가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돌봄(케어)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해도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 희망하고 있으나 병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의료·복지체계가 이어져있어 결국 다시 시설 또는 병원으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3)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 (1) 목적 : 개인별 지원계획에 근거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자기결정권 보장, 삶의 질 및 인권 제고를 목표로 한다.
- (2) 대상 : 거주시설에 입소 중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장애심화, 부양가족 부재 등)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 (3) 지원가능 서비스 목록(지자체 자율 구성·운영)
 - 개인별 지원계획 : 탈시설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주거 지원 : 시설 퇴소 후, 일상생활 적응 훈련이 필요한 경우 자립체험주택(지원인력 상시 거주)을 거쳐 케어안심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연계 :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독립생활 지원(소득지원, 고용지원, 보건의료, 돌봄, 안심)
 - 거주시설 전환 선도사례 구현 : 지자체와 거주시설이 협의하여 시설 소규모화 및 운영 구조를 변경하는 선도사례 개발, 확산

2. 커뮤니티 케어 관련 기사

(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표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올해 7개월분 국비 약 64억 원과 지자체 자체 예산, 각 부처 연계사업 예산 등을 포함한 재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각 시·군·구가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정책으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민관협력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 기반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도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먼저 8개 지자체는 모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통 기반으로 ‘케어안내창구’와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해야 한다.

읍·면·동에 서비스의 신청·접수를 수행하기 위한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복지관, 보건소 등에서도 신청과 접수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복합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신청사례 관리는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하도록 한다.

이어 대상을 선택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4가지 기본모델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사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다수의 연계사업을 시행한다.

선도사업 예산뿐 아니라 의료기관 퇴원지원, 방문진료 등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이동지원 등 신규 장기요양 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으로 구현할 스마트홈 등 다양한 유형의 재원과 사업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선도사업 지역에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의 연계와 지자체 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확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계획을 마련한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제 선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다수의 연계사업을 활용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초기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역할과 달닌 직업 전문가들과의 협력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계획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도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2) 복지부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정책 “허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2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기존 사업들의 연장선일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 주거, 소득, 사회참여 등이 담긴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한자연은 복지부 계획 속 자립체험주택은 2~3인이 생활하는 주거를 제공하고, 1~2가구당 1명의 지원인력을 통해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체험홈과 같다고 설명했다.

보건 의료의 경우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 지원 등이다. 소득지원은 1인당 1200만원 자립정책금 지급과 고용연계 서비스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복지부 계획에 한자연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철학이나 개념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시행중이거나 장애인복지 사업들을 그대로 나열했다. 개념도 지향가치도 없는 정책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커뮤니티케어는 시설이나 기관 중심의 복지시스템을 개인중심의 복지 시스템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실제 영국은 시설 예산을 획기적으로 삭감해 개별화를 적극 시행했으며, 미국 또한 거주시설 폐쇄와 개인예산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한자연은 “복지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계획에는 탈시설 내용도, 개별지원 및 개인예산에 대한 내용도 없이 관성대로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즉각 폐기하고 거주시설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담은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정책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서비스 총량 확대와 장애인 개인이 자신의 선호대로 사회서비스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담아내야 한다”면서 “개별지원과 개인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ablenews.co.kr)

3. 커뮤니티 케어 외국 사례

(1) 영국의 공동체 돌봄 체계 서클

영국의 민간 단체 ‘파티서플(Participale)’은 지금과는 다른 혁신적인 노인 돌봄체계를 꿈꿨다. 이들은 영국 남부의 서더크(Southwark) 지방정부, 노동연금부, 스카이 미디어와 함께 ‘지역에 뿌리 내린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냈다. 노인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들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길을 찾도록 공동체의 자원을 끌어 모으기로 한 것이다. 먼저 노인과 가족 그룹을 만나 그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걱정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통적 돌봄 서비스와는 달리 이웃끼리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하고 맺은 관계망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다.

(2) 네덜란드 장기요양

고령화에 따라 지출이 많이 늘어난 네덜란드는 2015년 장기요양제도를 개혁한다. 노인이 시설로 들어가지 않고 자택에 거주하면서 지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간호사라는 제도를 활성화 하여 노인 1명에 간호사 3명이 케어하는 것으로 노인의 상태를 관찰, 기록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 서로간의 데이터 공유를 하는 것이다. 이는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울증 등의 질환을 예방한다.

4. 커뮤니티 케어 사업 추진에 따른 복지관의 역할

이전에는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 이뤄졌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적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돌봄이 가족에게만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진행되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 추진에 따라 복지관은 기본적으로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지역조직화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자기결정능력 향상과 자립을 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장애 가족에게는 커뮤니티 케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

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계몽 사업을 개발하여 진행함으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민 간 소통 및 관계성을 회복시키고 공통관심사를 형성하여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팀스터디 19-07

팀워크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및 분석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일 시	2019.06.20. 13:00~14:00
발표자	박성묵
장 소	상담실2



남동강애인종합복지관

팀워크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및 분석

I. 조직 문화 진단 및 분석 방법

1. 문화격차 분석기법

1) 개 요

☐ Kilmann-Saxton의 문화격차 분석기법(Kilmann-Saxton Culture-Gap Survey)을 이용해 한 시점에서 조직문화 현상을 파악하기 보다는 현재의 조직문화 상태와 희망하는 조직문화 상태 간의 격차(gap)를 파악하여 정확한 조직문화를 진단할 수 있음.

☐ 즉, Kilmann-Saxton의 문화격차분석기법을 이용해 조직문화상의 격차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를 분석할 수 있음.

2) 기준(차원)과 특징

☐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복잡한 요인·요소들을 어떻게 분류하는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조직문화를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구성할 계획임.

☐ 수직축은 기술(technical)과 인간(human)으로 나뉘는데 기술이란 작업 그 자체와 관련된 것으로 일 또는 과업의 기술적/기계적 측면을 의미하고, 인간이란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 일의 사회적/개인적 측면을 의미함.

☐ 수평축은 단기(short term)와 장기(long term)로 나뉘는데, 단기란 조직 내에서 매일 매일의 일상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고, 장기란 일상적인 것보다는 조직의 발전이나 개인 대 조직의 문제와 관련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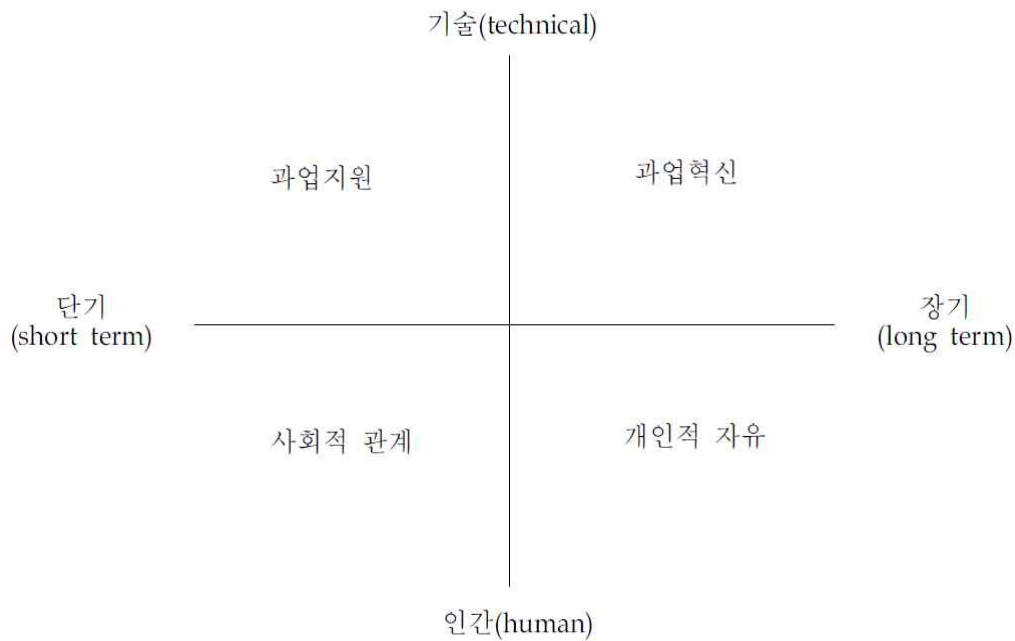
☐ 이 두 가지 축에 의하여 조직문화 요소는 과업지원, 과업혁신, 사회적 관계, 개인적 자유라는 네 가지 조직문화요소로 구성되게 됨.

☐ 이러한 조직문화 유형의 기준과 차원을 가지고 분석틀을 구성해 보면 <그림-1>과 같으며, 각 차원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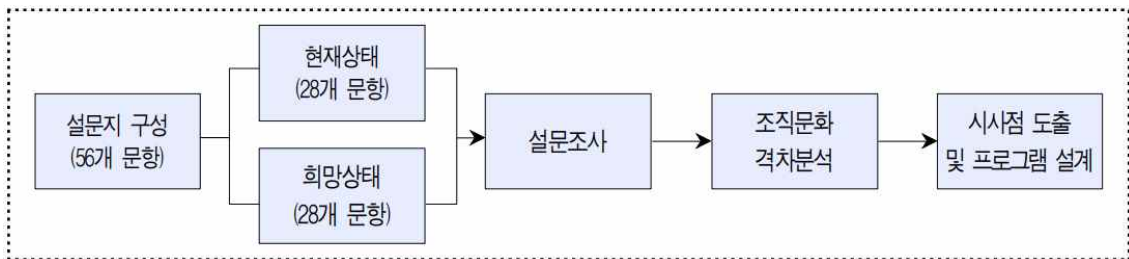
< 표-1 > 조직문화 유형차원에 대한 조작적 정의

차 원	조직적 정의
과업 지원 (task support)	일의 능률과 관련하여 부서 간에 또는 부서 내에서 정보를 얼마나 공유하고, 얼마나 협조하는가를 나타내는 요소
과업 혁신 (task innovation)	일과 관련하여 창조성 또는 혁신성이 얼마나 발휘되고, 새로운 일을 하는 정도 또는 일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것
사회적 관계 (social relation)	조직 내에서 동료 간 또는 상하 간에 얼마나 사귀고 어울리는가를 나타내는 요소
개인적 자유 (personal freedom)	자기표현의 정도를 포함하여 개인적인 자유 또는 자율성이 허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

< 그림-1> Kilmann-Saxton의 문화격차 분석기법



3) 절차 및 방법



□ 조직문화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구성함. 설문지는 대상조직 내의 설정된 각 문화요소마다 해당요소의 현재 상태와 이상 상태를 묻는 서로 유사하지만 상이한 7가지 항목을 도출하여 만들게 됨. 따라서 요소가 4가지이면 7항목×4요소=28항목이 현재와 이상에 각각 존재하여, 총 설문 문항은 56개가 됨.

□ 연구대상 조직의 구성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현재의 조직문화와 이상적 조직문화를 파악하고 이들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함. 즉 위의 4차원은 다시 현재 상태와 희망하는 조직문화 상태로 구분하고 현재와 희망상태 간의 문화격차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아래의 설문 문항은 현재 구성원이 속한 부서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희망 상황에 대한 내용임.

□ 문화격차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 문항의 각 척도는 양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응답자가 현재 상황과 희망하는 부서 상황에 대하여 체크한 결과가 <표-2>에서 제시하는 집계표와 일치하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채점함.

□ 문화격차는 전체 조직 뿐만 아니라 부서(팀)마다 여러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조직의 각 구성원들이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4차원의 조직문화 요소별로 평균을 구한 후, 각 문화요소마다 희망 상태의 7개 문항에 대한 정답 평균치에서 현재 상태의 평균치를 감산함으로써 문화격차를 수치로 구할 수 있음.

< 문화격차 진단 설문서 (현재 상황) >

● 각 번호마다 현재 귀하(구성원)의 부서 혹은 팀내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골라 ○를 해주시면 되며, A나 B 중 어느 하나가 뚜렷하게 귀하의 부서 상황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보다 더 가까운 것을 골라 반드시 A나 B에 ○를 해주시면 됨(만약 설문 응답자가 하나 이상의 부서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을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시면 됨)

번호	설문 문항 (A나 B 중 하나에 ○를 해 주십시오)
1	A. 다른 팀이나 부서의 일이면 뒷전으로 미룬다. () B. 다른 팀이나 부서의 일이면 지원한다. ()
2	A. 창의성이 존중된다. () B. 창의성이 무시된다. ()
3	A. 부서 내에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 B. 부서 내에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조성되어 있다. ()
4	A. 우리 부서에서는 근무 중의 복장은 자유롭게 입는다. () B. 우리 부서에서는 근무 중의 복장은 무난한 것으로 입는다. ()
5	A. 다른 부서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 B. 자신의 부서에 도움이 될 때만 정보가 공유된다. ()
6	A.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 () B. 변화지향적이다. ()
7	A. 직장동료가 친구처럼 되어도 무방하다. () B. 직장동료가 친구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
8	A. 우리 부서에서는 의사소통이 정식경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 B. 우리 부서에서는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
9	A. 업무분장이 공정하지 못하다. () B. 업무분장이 공정하다. ()
10	A. 일을 할 때 새로운 방식을 추구한다. () B. 일을 할 때 기존의 방식을 존중한다. ()
11	A. 동료들과 인간적인 친분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 B. 동료들과 인간적인 친분을 이루려 한다. ()
12	A. 우리 부서에서는 규정과 절차를 따를 때 개인적 판단에 의한 자율성이 허용된다.() B. 우리 부서에서는 모든 규정과 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 ()
13	A.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한다. () B. 쫓겨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일한다. ()

번호	설문 문항 (A나 B 중 하나에 ○를 해 주십시오)
14	A.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 B. 항상 개선하려고 한다. ()
15	A. 작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장려되고 있다. () B. 작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장려되고 있지 않다. ()
16	A. 우리 부서에서는 개인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행동한다. () B. 우리 부서에서는 조직보다는 개인을 위해서 행동한다. ()
17	A. 정보는 본인에게 이득이 될 때만 타인과 공유한다. () B. 조직이 보다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타인과 공유한다. ()
18	A. 남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행에 옮겨지도록 돕는다. () B.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행에 옮겨지는 것을 막는다. ()
19	A. 부서 내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 B. 부서 내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
20	A.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수행 시 개인적 선호도가 표출된다. () B. 우리 부서에서는 개인적 선호도가 표출되지 않는다. ()
21	A. 다른 사람들의 일이 완성되도록 돕는다. () B. 자신의 일에만 몰두 한다. ()
22	A. 새로운 일을 맡기를 거부해도 된다. () B. 새로운 일은 기꺼이 맡아야 한다. ()
23	A. 조직 내 업무의 활동에 참여하여 남들과 잘 어울리도록 권장된다. () B. 조직 내 업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다. ()
24	A. 우리 부서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경력을 위하여 살아간다. () B. 우리 부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살아간다. ()
25	A. 조직 내 타부서와 경쟁적이다. () B. 조직 내 타부서와 협조적이다. ()
26	A. 새로운 아이디어가 장려된다. () B.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시된다. ()
27	A. 타부서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 B. 타부서의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
28	A. 우리 부서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 B. 우리 부서에서는 조직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

< 표-2 > 문화격차 분석 집계표

과업 지원 (7개 문항)		과업 혁신 (7개 문항)		사회적 관계 (7개 문항)		개인적 자유 (7개 문항)	
번호	응답	번호	응답	번호	응답	번호	응답
1	B	2	A	3	B	4	A
5	A	6	B	7	A	8	B
9	B	10	A	11	B	12	A
13	A	14	B	15	A	16	B
17	B	18	A	19	B	20	A
21	A	22	B	23	A	24	B
25	B	26	A	27	B	28	A

< 표-3 > 조직문화의 현재 상태 기록지

과업 지원 (7개 문항)		과업 혁신 (7개 문항)		사회적 관계 (7개 문항)		개인적 자유 (7개 문항)	
번호	응답	번호	응답	번호	응답	번호	응답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1	10	1	11	1	12	1
13	1	14	0	15	1	16	0
17	1	18	1	19	1	20	0
21	1	22	0	23	1	24	1
25	1	26	1	27	1	28	0
7		5		7		4	

< 문화격차 진단 설문서 (미래 희망 상황) >

● 각 번호마다 앞으로 귀하(구성원)가 계열 부서의 규범이나 특성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있어서 A나 B 중 희망하는 내용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를 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설문 문항 (A나 B 중 하나에 ○를 해 주십시오)
1	A. 다른 팀이나 부서의 일이면 뒷전으로 미루어야 한다. () B. 다른 팀이나 부서의 일이면 지원해야 한다. ()
2	A.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B. 창의성이 무시되어야 한다. ()
3	A. 부서 내에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조성되지 않아도 된다. () B. 부서 내에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조성되어야 한다. ()
4	A. 우리 부서에서는 근무 중의 복장은 자유롭게 입도록 해야 한다. () B. 우리 부서에서는 근무 중의 복장은 무난한 것으로 입도록 해야 한다. ()
5	A. 다른 부서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 B. 자신의 부서에 도움이 될 때만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
6	A. 기존의 방식을 지켜야 한다. () B. 변화지향적이어야 한다. ()
7	A. 직장동료가 친구처럼 되어야 한다. () B. 직장동료가 친구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
8	A. 우리 부서에서는 의사소통이 정식경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있다. () B. 우리 부서에서는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
9	A. 업무분장이 공정하지 않아도 된다. () B. 업무분장이 공정해야 한다. ()
10	A. 일을 할 때 새로운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 B. 일을 할 때 기존의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 ()
11	A. 동료들과 인간적인 친분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 () B. 동료들과 인간적인 친분을 이루어야 한다. ()
12	A. 우리 부서에서는 규정과 절차를 따를 때 개인적 판단에 의한 자율성이 허용되어야 한다.() B. 우리 부서에서는 모든 규정과 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 ()
13	A.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 B. 쫓겨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일하면 된다. ()

번호	설문 문항 (A나 B 중 하나에 ○를 해 주십시오)
14	A.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 B. 항상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15	A. 작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장려되어야 한다. () B. 작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장려되지 않아도 된다. ()
16	A. 우리 부서에서는 개인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 B. 우리 부서에서는 조직보다는 개인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
17	A. 정보는 본인에게 이득이 될 때만 타인과 공유해야 한다. () B. 조직이 보다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타인과 공유해야 한다. ()
18	A. 남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행에 옮겨지도록 도와야 한다. () B.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행에 옮겨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
19	A. 부서 내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 B. 부서 내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려 한다. ()
20	A.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수행 시 개인적 선호도가 표출한다. () B. 우리 부서에서는 개인적 선호도는 말하지 않고 묵묵히 지낸다. ()
21	A. 다른 사람들의 일이 완성되도록 돕는다. () B. 자신의 일에만 몰두한다. ()
22	A. 새로운 일을 맡기를 꺼려한다. () B. 새로운 일은 기꺼이 맡는다. ()
23	A. 조직 내 업무의 활동에 참여하여 남들과 잘 어울리도록 권장되고 있다. () B. 조직 내 업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고 있다. ()
24	A. 우리 부서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경력을 위하여 살아간다. () B. 우리 부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살아간다. ()
25	A. 조직 내 타부서와 경쟁적이다. () B. 조직 내 타부서와 협조적이다. ()
26	A. 새로운 아이디어가 장려된다. () B.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시된다. ()
27	A. 타부서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 B. 타부서의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
28	A. 우리 부서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중요시해야 한다. () B. 우리 부서에서는 조직의 가치를 중요시해야 한다. ()

< 표-4 > 문화격차 분석 집계표

과업 지원 (7개 문항)		과업 혁신 (7개 문항)		사회적 관계 (7개 문항)		개인적 자유 (7개 문항)	
번호	응답	번호	응답	번호	응답	번호	응답
1	B	2	A	3	B	4	A
5	A	6	B	7	A	8	B
9	B	10	A	11	B	12	A
13	A	14	B	15	A	16	B
17	B	18	A	19	B	20	A
21	A	22	B	23	A	24	B
25	B	26	A	27	B	28	A

< 표-5 > 조직문화의 미래 희망 상태 기록지

과업 지원 (7개 문항)		과업 혁신 (7개 문항)		사회적 관계 (7개 문항)		개인적 자유 (7개 문항)	
번호	응답	번호	응답	번호	응답	번호	응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 경쟁가치모형 기법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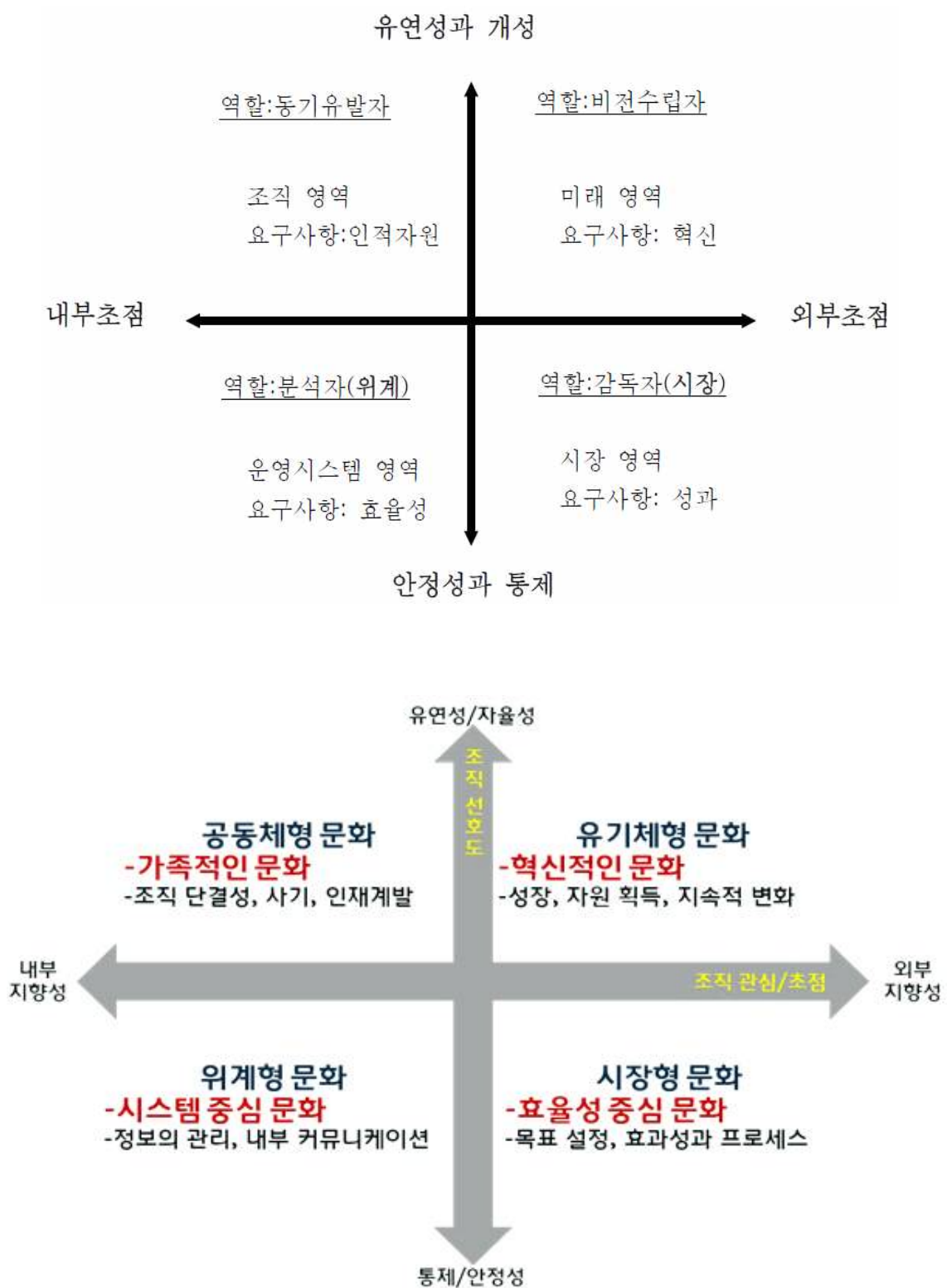
□ 캐머런(Cameron)과 퀸(Quinn)의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model: CVM)은 일반적으로 조직이 추구하는 4가지 서로 경쟁적인 가치(효과성) 모형에 기반한 조직문화 진단 기법임. 현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과 둘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변화의 방향과 동력을 얻게 됨.

2) 기준(차원)과 특징

□ 경쟁가치모형에 기반한 조직문화 분석기법은 조직 문화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즉, (1) 유연성, 재량성, 역동성을 강조하는 축과 안정성, 통제, 질서를 강조하는 축, 그리고 (2) 내부지향, 화합, 단결을 강조하는 축과 외부지향, 분화, 경쟁을 강조하는 축 등 2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조직문화유형을 집단문화 (clan), 혁신문화 (adhocracy), 위계문화(hierarchy), 그리고 시장문화(market)의 네 가지 조직문화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 네 가지 문화 유형을 <그림-7>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즉, 제 1사분면이 혁신문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유연성(flexibility)과 개성이 강조되고 외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문화임. 그래서 이러한 문화에서의 경영자는 비전 수립자의 역할을 하고, ‘혁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 제 2사분면은 집단문화를 나타내는데, 이 문화에서도 유연성과 개성이 강조되지만 조직 내부에 초점을 맞추며, 이 문화에서는 조직 구성원들간의 ‘조화와 화합’, 그리고 개별 구성원들의 ‘만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간주됨. 제 3사분면은 위계 문화로서 조직 내부에 초점을 두고 안정성(stability)과 통제가 강조되는 문화이며, 이 문화에서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며, 경영자는 효율성을 위한 분석자의 역할을 함. 마지막으로 제 4사분면은 시장 문화인데, 이것은 조직 외부에 초점을 맞추고 안정성과 통제가 강조되는 문화임. 이 문화에서는 ‘성과’ 달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

< 그림-7 > 경쟁 가치 모형





□ 경쟁가치모형을 적용한 조직문화 유형들에 대한 정의와 주요 특성을 요약해보면 <표-6>과 같음.

< 표-6 > 경쟁가치모형을 이용한 조직문화 유형의 특성

문화유형		집단문화	합리문화	위계문화	발전문화
가치체계		집단문화	합리문화	위계문화	발전문화
정의적 특성		가족적이고, 인간미가 넘치는 분위기의 문화로서 응집성이 강조됨	조직구성원들이 계획과 목표달성을 중심으로 결속되며 효율성을 강조함	조직구성원들이 공식화된 규정을 중심으로 결속되며 안정성을 강조함	매우 생동감 있고 활기가 넘치는 문화로서 혁신을 강조함
가치차원	목적	응집성	효율성	안정성	혁신
	수단	협력	계획	정보관리	적응성
조직특성	동기부여	배려	전문성 배양	권위체계 중시	잠재력 개발
	리더십	지원적	지시적	보존적	창의적
	업무특성	정형화된 업무	정형화된 업무	정형화된 업무	비정형화된 업무

□ 앞에서 제시한 경쟁가치모형에서 제기된 4가지 조직문화유형들은 순수한 이상형 (ideal type)에 가까움.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조직이라도 그 문화는 여러 유형들이 결합된 복합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임. 그러나 설문분석 결과를 이용해 각 조직별로 어떠한 조직문화유형이 지배적이며, 어떠한 조직문화유형이 약한지

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조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어떠한 조직문화유형이 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도 제시할 수 있음.

□ 본 자료집에서는 캐머런(Cameron)과 퀸(Quinn)이 4 유형의 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설문 문항들 중의 일부를 사용함. 즉, 조직 문화의 전반적 특성을 측정하는 두 문항과 조직 문화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영층의 특성을 측정하는 한 문항을 사용하였음. 아래에 세 문항이 제시되어 있는데,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로 하여금 각 문화 유형을 대표하는 a(집단), b(혁신), c(위계), d(시장)에 대해 현재 수준과 바라는 이상적인 수준(A, B, C, D)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음. 응답방법은 100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함. 1, 2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평균값을 구하여 전반적인 조직문화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3번은 조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의 리더십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함. 지시문과 설문 문항은 다음 <표-7>과 같음.

< 표-7 > 지시문 및 설문 문항

Q. 다음 문항들은 전반적인 조직풍토와 분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조직풍토와 분위기를 a.b.c.d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문항의 a.b.c.d의 4가지 유형 설명이 조직의 현재의 분위기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많은 점수를 부여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조직의 향후 이상적인 분위기(A.B.C.D)에 관해서도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점수는 0점에서 100점까지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으나, a.b.c.d의 점수의 합은 반드시 100점이 되도록 하십시오.

1. 우리 조직은?

현재 상태는?	1. 우리 조직은 ?	이상적인 상태는?
a. _____ 점	a. 아주 인간적인 장소이다. 마치 대가족과 같고 모두 운명공동체인 것처럼 보인다.	A. _____ 점
b. _____ 점	b. 아주 진취적이고 모험정신이 충만한 곳이다. 사람들은 쉽게 안주하지 않고 과감히 위험을 무릅쓰려고 한다.	B. _____ 점
c. _____ 점	c. 아주 구조화되어 있고 빈틈이 없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절차,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C. _____ 점
d. _____ 점	d. 매우 결과지향적이다. 주요 관심사는 반드시 일이 완수되도록 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이다.	D. _____ 점
합계=100점	-	합계=100점

2. 우리 조직의 분위기는?

현재 상태는?	2. 우리 조직의 분위기는 ?	이상적인 상태는?
a. _____ 점	a. 참여적이고 편안하다. 서로 간에 신뢰하며 개방적이다.	A. _____ 점
b. _____ 점	b. 매우 활기차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선다.	B. _____ 점
c. _____ 점	c. 계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한다. 효율성과 명확한 업무 처리를 강조한다.	C. _____ 점
d. _____ 점	d. 목표달성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강조한다.	D. _____ 점
합계=100점	-	합계=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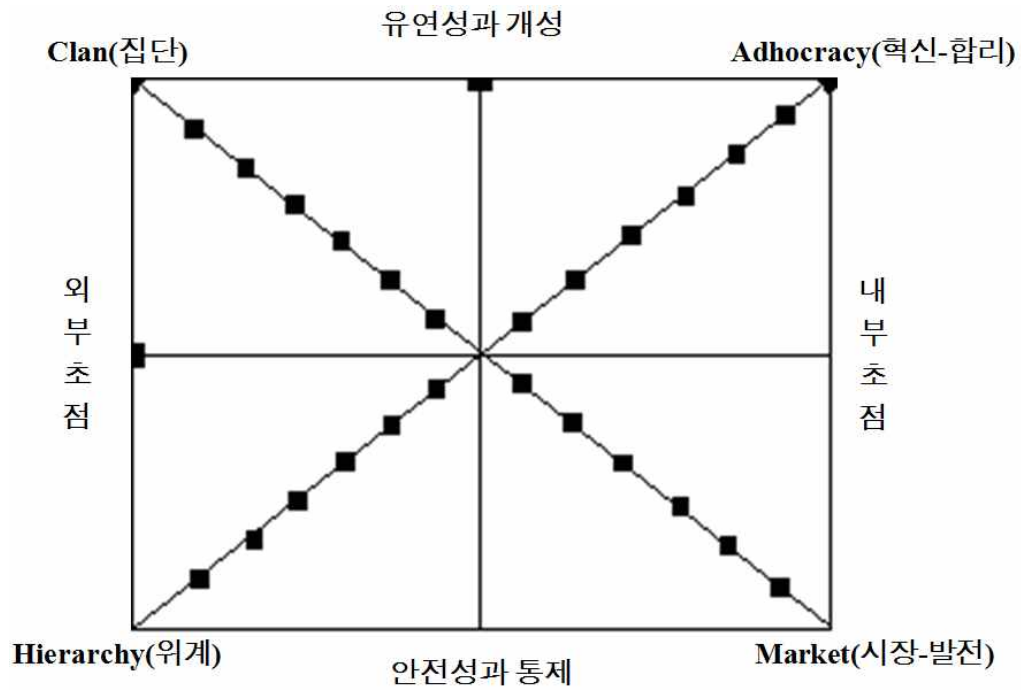
3. 우리 조직의 최고지도자는?

현재 상태는?	3. 우리 조직의 최고지도자는?	이상적인 상태는?
a. _____ 점	a. 대체로 후원자, 조력자, 혹은 부모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A. _____ 점
b. _____ 점	b. 대체로 창업가, 혁신가, 혹은 모험가라고 볼 수 있다.	B. _____ 점
c. _____ 점	c. 대체로 조직을 설계하고, 업무를 조정하며, 효율을 추구하는데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C. _____ 점
d. _____ 점	d. 대체로 목표달성에 있어 빈틈없는 강한 추진력을 지니고, 경쟁에 강하다고 볼 수 있다.	D. _____ 점
합계=100점	-	합계=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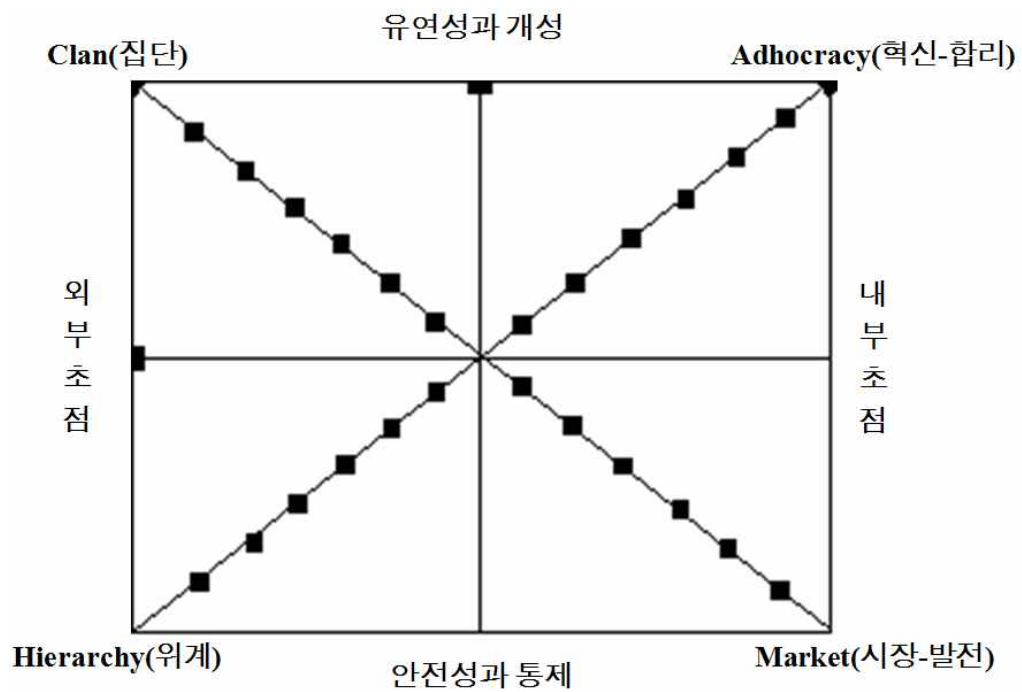
< 표-8 > 복지 기관의 조직문화 분석

구 분		조직문화유형	평 균	표준편차
조직문화	현재 상태	집 단(a)		
		혁 신(b)		
		위 계(c)		
		시 장(d)		
	발전 방향	집 단(A)		
		혁 신(B)		
		위 계(C)		
		시 장(D)		
리더십 특성	현재 상태	집 단(a)		
		혁 신(b)		
		위 계(c)		
		시 장(d)		
	발전 방향	집 단(A)		
		혁 신(B)		
		위 계(C)		
		시 장(D)		

< 그림-8 > 복지 기관의 조직 문화 형태



< 그림-9 > 복지 기관의 기관장 리더십 특성



□ 다음이 경쟁가치모형에 근거한 조직문화진단 기준 자료이다. 사회복지계의 경우 기초적인 연구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따라서 공공영역에서 연구된 아래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대체로 자신의 조직에 대해 위계형 조직문화의 특성을 가장 많이 가지는 것으로(31.55), 혁신형 조직문화의 특성을 가장 적게 가지는 것으로 (16.09)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바람직한 조직문화적 특성으로 보는 것은 집단형(30.68) 및 혁신형(25.90) 조직문화임.

□ 조직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시장형 및 위계형 리더십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리더십은 4가지 (문화적) 가치를 모두 고르게 보이는 “경영의 마스터(master)”같은 리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캐머런과 퀸도 가장 바람직한 리더는 서로 경쟁적인 4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음.

벨빈 척도를 활용한 팀 빌딩의 실제

표 경 흠 : Community Designer

사회사업가 & 컨설턴트 & 프리랜서(조직변화전문가)

I. 효율적인 팀워크 개발하기 (벨빈의 팀역할 조사표)

■ 방법 : 아래에 준비된 벨빈의 팀역할 조사표 내용 일곱 개 항목을 차례대로 한 항목씩 읽는다. 각 항목마다 모든 문항을 읽은 뒤 본인의 기준에 맞춰 10점을 나누어 매긴다. 만일 하나의 문항만 자신에게 해당될 때 그 문항에만 10점을 모두 매긴다. 예를 들어, 다섯 개의 문항이 똑같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다섯 문항에 각 2점씩 매긴다. 각 문항의 왼쪽 네모 칸 안에 점수를 매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해당된다고 느껴지는 항목에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항 - 내가 생각하는 팀에 대한 나의 공헌		
10		나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잘 활용한다.
11		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을 잘한다.
12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낸다.
1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팀에 최선을 다하도록 잘 돕는다.
14		나는 내가 시작한 것을 마무리 짓는 것에 능하다.
15		나는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16		나는 내가 보기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17		나는 특정한 상황에 놓였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이해하려고 한다.
18		나는 문제에 대해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다른 해결책들을 제시할 수 있다.

*오늘도 복지인의 길을 가는 사회사업가 & Community Designer 표 경 흠은 지역사회 변화를 통한 유비쿼터스 복지 실현과 가상조직을 활용한 사회사업 관련 실천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고, 이를 교육 및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과 지도력 개발 등을 강의하며, 사회복지정보원의 복지순례, 사회복지대학생정예화캠프, 학습여행, 합숙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상지대, 평택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순천향대에서 가상복지관을 운영하였다. 성공회대, 충남대, 공주대, 상지대 등의 정규강의를 진행하며, 전국 100여개 대학의 특강과 프로그램기획, 평가과정을 지도하였고,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주민과 서비스 기획팀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현재 비영리조직 전문 컨설팅 웰펌(Welfirm) 상임 대표이자, 제주카리타스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제2항 - 팀에서 나의 약점		
19		나는 허술하게 구성하고 이끄는 회의는 불편하다.
20		나는 가급적이면 많은 견해를 듣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21		나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
22		나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23		나는 한 가지 결론이나 결정으로 집중되는 것에 대해 동조하기에는 너무 객관적이다.
24		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시적이거나 강제적이다.
25		나는 다른 이들이 좋게 여기는 것을 방해하기 싫어서 반론이나 다른 의견 제시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잘 이끌지 못한다.
26		나는 내 아이디어에 너무 몰두하여 주변 상황을 소홀히 한다.
27		나는 미완성인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부끄럽다.

제3항 - 다른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같이 할 때		
2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9		나는 프로젝트에서 실수와 누락을 찾아내어 수정하거나 방지한다.
30		나는 주된 목표에 충실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31		나는 평소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다.
32		나는 팀이 유익하다면 어떤 결정이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33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발상황에서 신속히 기회를 찾는다.
34		나는 나의 행동과 태도에 있어 프로다.
35		나는 좋은 판단력을 가졌고 팀이 좋은 결정에 이르는 것을 도울 수 있다.
36		나는 잘 정돈되어 있어 팀이 조직되는 것을 돕는다.

제4항 - 평소 팀에서 일할 때		
37		나는 나의 동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차분하게 일한다.
38		나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서면 거리낌 없이 말한다.
39		나는 다른 이들의 의견에 도전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40		나는 나쁜 아이디어를 반박하기 위한 좋은 논거를 찾아낸다.
41		나는 보통 계획이 결정되면 실제로 착수되도록 할 수 있다.
42		나는 명백한 결정에 대해 다른 대안을 찾아본다.
43		나는 완벽한 것이 좋다.
44		나는 팀의 대표로 선택되는 것을 좋아한다.
45		나는 모든 견해를 경청하지만 필요할 땐 신속히 결정을 내린다.

제5항 - 나는 이럴 때 프로젝트로 일하는 것이 좋다.		
46		실행을 위해 다른 대안을 비교하고 상황을 분석할 때
47		어떤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일을 할 때
48		팀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49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50		다른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때
51		다른 사람들을 목표와 우선순위에 동의하도록 이끌 때
52		즉각 주어지는 업무에 오로지 전념할 수 있을 때
53		매우 창의적인 일을 할 때
54		나의 능력과 전문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때

제6항 - 어려움에 부딪치고, 시간이 부족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있을 때		
55		나는 주제나 프로젝트에 관해 최대한 많이 읽는다.
56		나는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해 보고 집단을 설득하도록 노력해본다.
57		나는 집단 내 가장 긍정적인 사람과 일한다고 생각한다.
58		나는 업무를 나누고 각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을 맡게 한다.
59		나는 프로젝트의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나의 온 힘을 쏟아 붓는다.
60		나는 침착하게 업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 본다.
61		나는 나를 짓누르는 압박감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문제해결에 전념한다.
62		나는 팀이 정체되어 있을 때면 팀을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
63		나는 팀원 전체와 전략을 상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7항 - 팀과 일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면.....		
64		나는 다른 사람들이 팀의 진전을 방해할 때 과하게 반응한다.
65		나는 너무 분석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66		나는 너무 완벽주의자라는 비판을 받는다.
67		나는 동료들이 아주 활기를 띄지 않는 이상 쉽게 지루해한다.
68		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69		나는 내가 생각하는 복잡한 아이디어와 개선책을 자주 표현하지 못한다.
70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이에게 부탁하고 해주길 기대한다.
71		나는 종종 내가 하는 것이 남보다 더 빠르고 낫다고 생각한다.
72		나는 어렵거나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렵다.

■ 벨빈의 팀역할조사 응답 기록지

제1항	12	10	13	16	17	18	14	11	15
제2항	26	22	20	24	19	23	27	25	21
제3항	31	33	28	30	36	35	29	32	34
제4항	42	44	45	39	41	40	43	37	38
제5항	53	50	51	49	47	46	52	48	54
제6항	56	63	58	62	61	60	59	57	55
제7항	69	67	70	64	68	65	66	72	71
총 점									
유 형	창조자 새싹형	자원 탐색가	지휘/ 조정자	추진자	실행자	감시 평가자	완결자	분위기 조성자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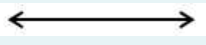
● 나의 제1유형은 무엇인가? _____

● 나의 팀에는 어떤 유형의 팀원들이 있는가?

조직의 내부역량 분석

○ 조직의 내부역량분석 설문지 * 질문내용은 조직의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다음은 귀 기관의 조직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귀하가 느끼고 있는 항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내용	매우 부정					매우 긍정
		1	2	3	4	5	5
1.	나는 우리 조직의 미션(mission)과 비전 (vision)에 대해 알고 있다.						
2.	나는 해결 과제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우선 순위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3.	예산 배분의 합리성에 대해 조직원들이 상당 부분 이해하며 공감하고 있다.						
4.	우리 조직과 선진조직과의 전략에 대한 비교분석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5.	조직 내 유사/중복기능(팀, 과, 부서)은 미션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되고 있다.						
6.	나는 우리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과 동기부여를 받고 있다.						
7.	조직의 비전과 전략은 구성원들의 업무와 연계되어 수행되고 있다.						
8.	나는 승진에는 실력이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9.	구성원들은 조직의 장기 비전과 전략에 대해 이해하며 공감하고 있다.						
10.	외부의 중요한 정보가 다양하게 입수되어 관련 부서에 신속하게 전파되고 있다.						
11.	조직 내 혹은 조직간 업무의 흐름은 최단 프로세스로 설계되어 있다.						
12.	조직 내에서 내부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13.	부서 간 관련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를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있다.						
14.	부서 간에는 업무상 필요한 정보 및 자료가 상호 공유되고 있다.						
15.	내부에서 수행되는 회의방법 및 성과면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16.	회의에서 개인적인 의견이 자유롭게 제안되어 수용되고 있다.						
17.	조직의 위기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와 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18.	비전 및 전략실현을 위한 나의 역할과 책임을 잘 알고 있다.						
19.	조직 내에서 개선활동과 혁신 활동은 매년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20.	선진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조직에 적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번호	질문 내용	매우 부정	←————→			매우 긍정
		1	2	3	4	5
21.	단위 조직(팀, 과, 부서)의 미션과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22.	구성원들은 업무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23.	부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권한과 책임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24.	근무평정 등 조직 내 평가제도의 합리성(객관성, 공정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25.	조직 내 또는 부서 간 업무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수행되고 있다.					
26.	개인들의 직무 부담이 적절하고도 명확하게 할당되어 있다.					
27.	인사제도는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8.	조직 방침의 중요도에 따라 유연한 조직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29.	구성원들은 조직의 방향설정을 위해 다양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0.	구성원들은 현재의 조직 구조에 의해서도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믿고 있다.					
31.	상하 간 의사소통은 적기, 적소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2.	전략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배분(인력, 예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33.	조직에서의 업무상 필요한 의사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4.	성과관리제도가 조직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35.	구성원은 상사의 조직 운영방침과 관리능력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					
36.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은 적절하게 위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37.	조직에서의 쟁점사항은 충분한 토론과 의견개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38.	정보공유를 위한 인프라(회의, 협의, 게시판, 문서, 정보시스템 등)는 잘 구축되어 있다.					
39.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조직이 적기에 환류되고 있다.					
40.	상사와의 업무관계는 일방적 지시보다는 협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번호	질문 내용	매우 부정				매우 긍정
		1	2	3	4	5
41.	승진 및 인사 이동시에는 공정한 원칙이 있으며 이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2.	개인의 평가 결과는 배치, 승진, 교육 등 인사관리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43.	우리 조직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전략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44.	각 조직간 업무분담은 중복이나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분되어 있다.					
45.	구성원들이 본인의 업적과 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46.	구성원들은 비전에 근거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47.	조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48.	인재육성을 위해 선진화된 지식의 습득과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49.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본인의 업무에 열정적이며 만족해하고 있다.					
50.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의 인사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51.	우리 부서 업무는 전체적으로 투입 예산 대비 충분히 수행할만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52.	조직의 편제는 환경의 변화와 전략에 맞게 조정 보완되고 있다.					
53.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접근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54.	업무수행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55.	적성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고 있다.					
56.	비전 수행에 필요한 자원(인력, 예산, 조직)이 우선순위에 의해 투입되고 있다.					
57.	업무상 필요한 내부정보 및 지식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다.					
58.	구성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59.	고객의 고충사항을 업무개선에 반영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60.	조직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과 인재가 확보되어 있다.					

○ 설문 분석 방법

- 영역별 수준 : 해당항목의 평균 점수에 의해 영역별 수준을 측정
- 항목별 평가 : 평균 점수의 상대적인 높고 낮음에 기초하여 강점과 약점의 파악
- 분석 변수 : 계층별, 성별, 부서별, 직능별 등
- 강·약점 파악 시 참고기준 (강점 : 4점 이상, 약점 : 3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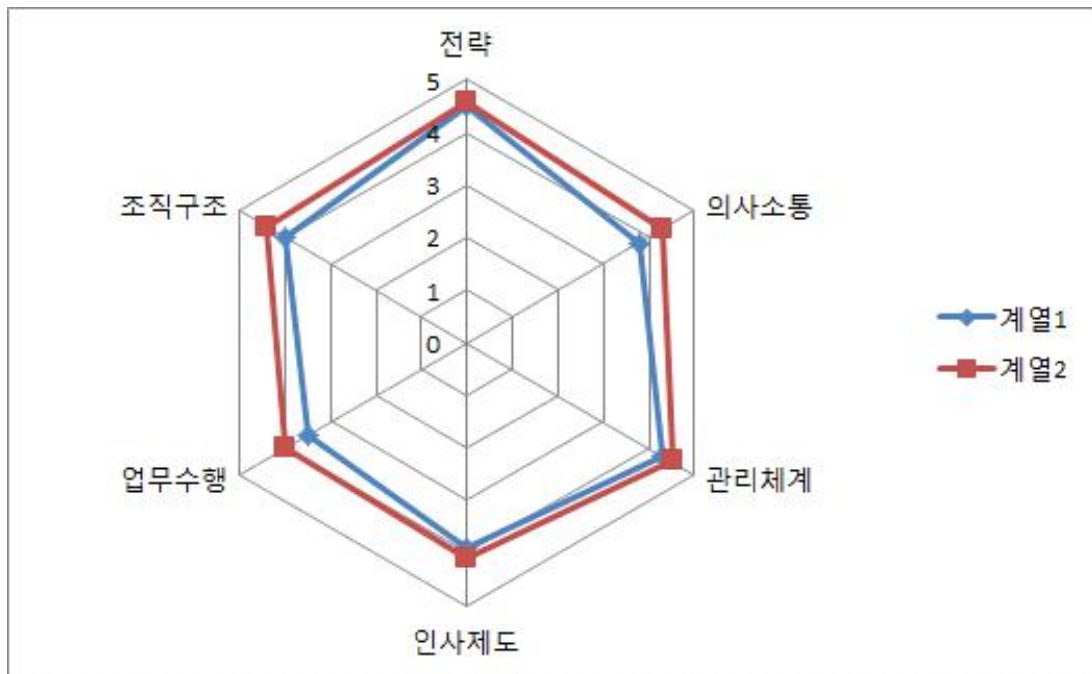
○ 설문항목별 세부항목 및 점수

항 목	세부 항목	점수(합/평균)	비 고
전 략	1, 4, 7, 9, 18, 29, 32, 43, 46, 56	/	각 항목별 점수 - 매우 부정 : 1 - 부 정 : 2 - 보 통 : 3 - 긍 정 : 4 - 매우 긍정 : 5
조직구조	5, 21, 23, 26, 28, 30, 33, 44, 52, 55	/	
업무수행	2, 11, 22, 25, 47, 49, 51, 53, 54, 58	/	
인사제도	6, 8, 24, 27, 41, 42, 45, 48, 50, 60	/	
관리체계	3, 12, 15, 17, 19, 34, 36, 38, 39, 59	/	
의사소통	10, 13, 14, 16, 20, 31, 35, 37, 40, 57	/	

○ 설문결과 분석 - 종합 6개 요인별 영역 및 내용

1. 전 략	■ 비전 및 전략 ■ 방침의 공유 ■ 권한과 책임 ■ 리더십 ■ 벤치마킹
2. 조직구조	■ 조직효율성 ■ 조직의 유연성 ■ 의사결정 신속성 ■ 업무규정 및 절차 ■ 부서 간 기능조정
3. 업무수행	■ 업무 부가가치 ■ 개인의 전문적 스킬 ■ 업무 흐름의 효율성 ■ 정보화 마인드
4. 인사제도	■ 인사평가제도 ■ 능력개발 ■ 동기부여 ■ 교육제도 ■ 평가의 활용
5. 관리체계	■ 보고 관리 ■ 경영방식 ■ 조직 간 협조 ■ 관리제도 효율성 ■ 회의관리
6. 의사소통	■ 상사와 의사소통 ■ 정보수집 ■ 부서간 의사소통 ■ 정보공유 수준 ■ 정보공유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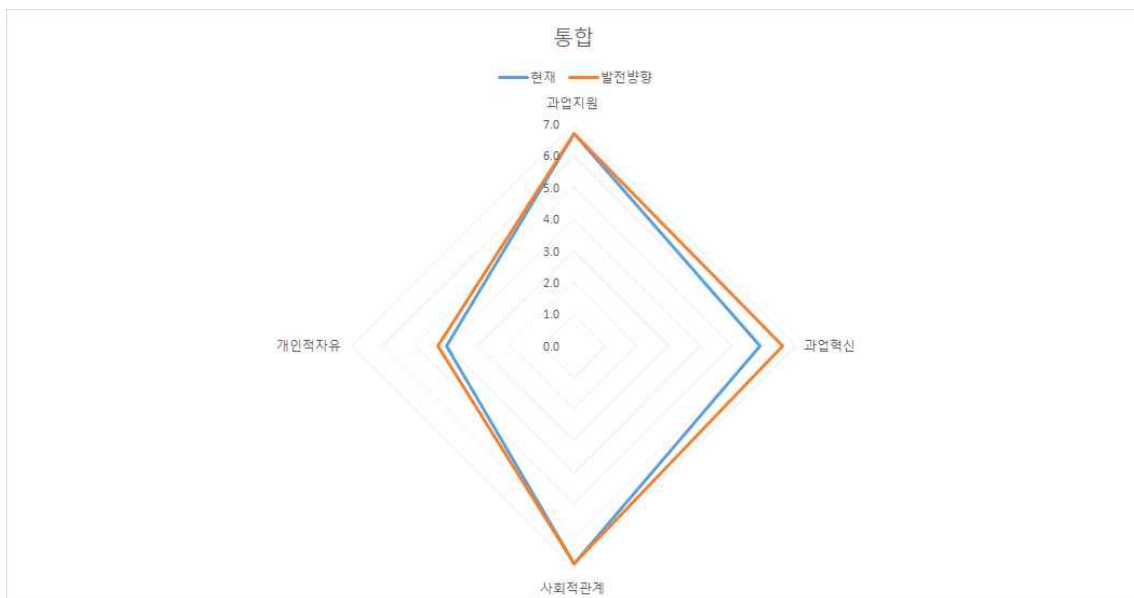
출처: 행정자치부.(2004). 조직진단매뉴얼 p.83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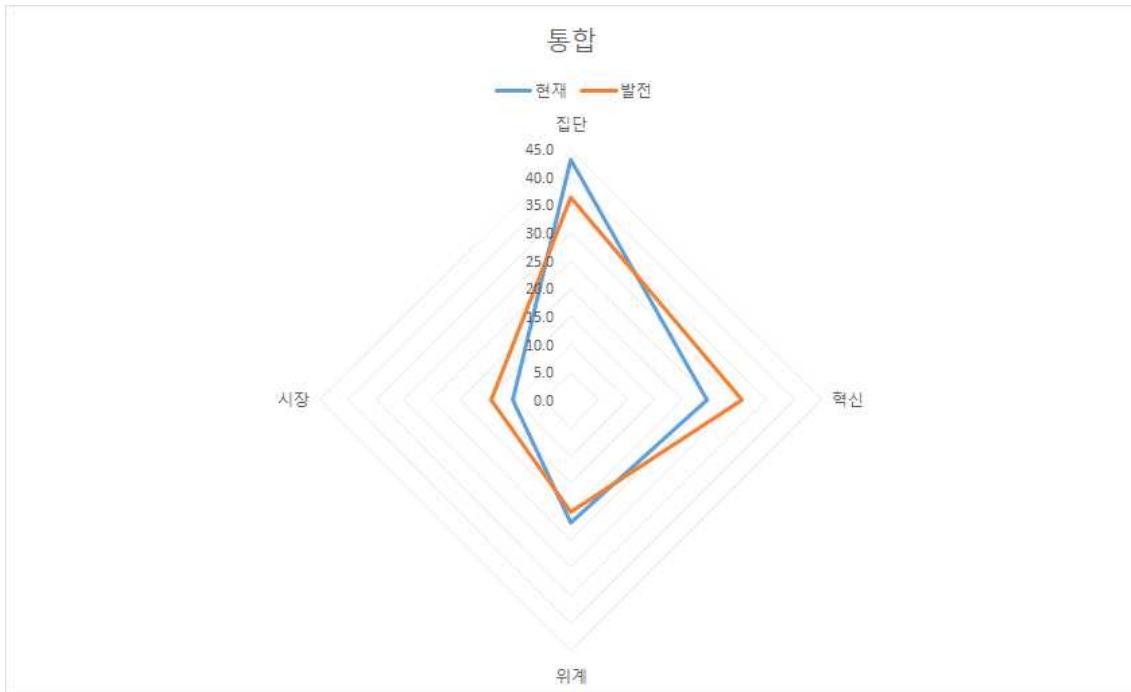
◎ 결론 및 제언

1.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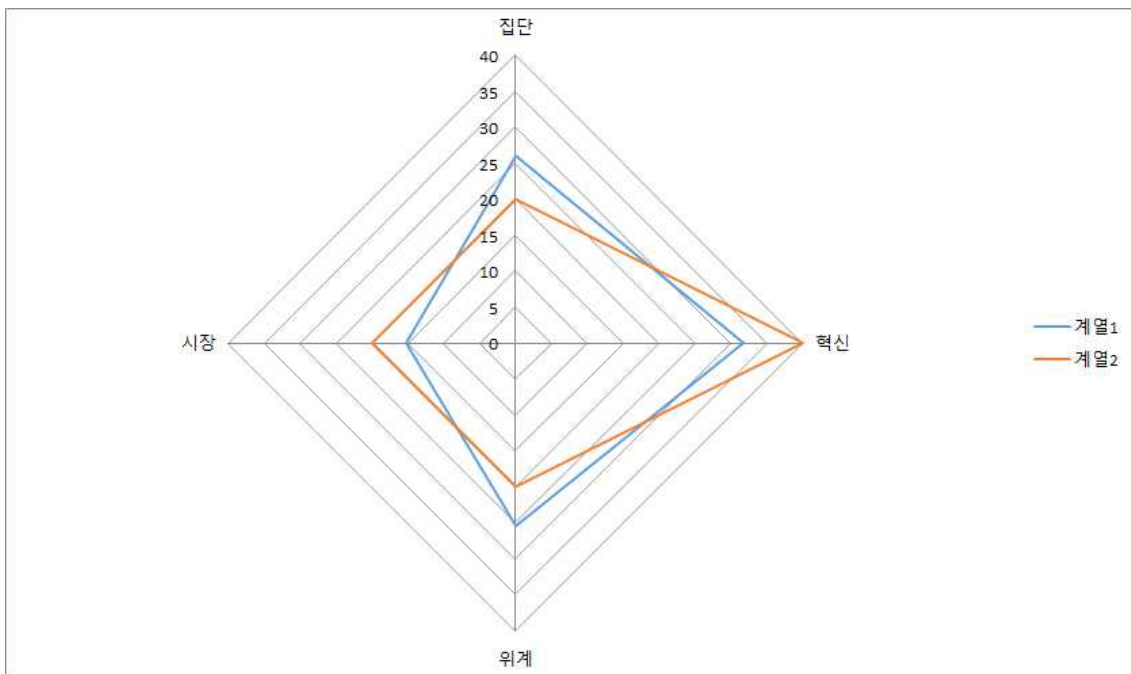
1) 문화격차진단



2) 조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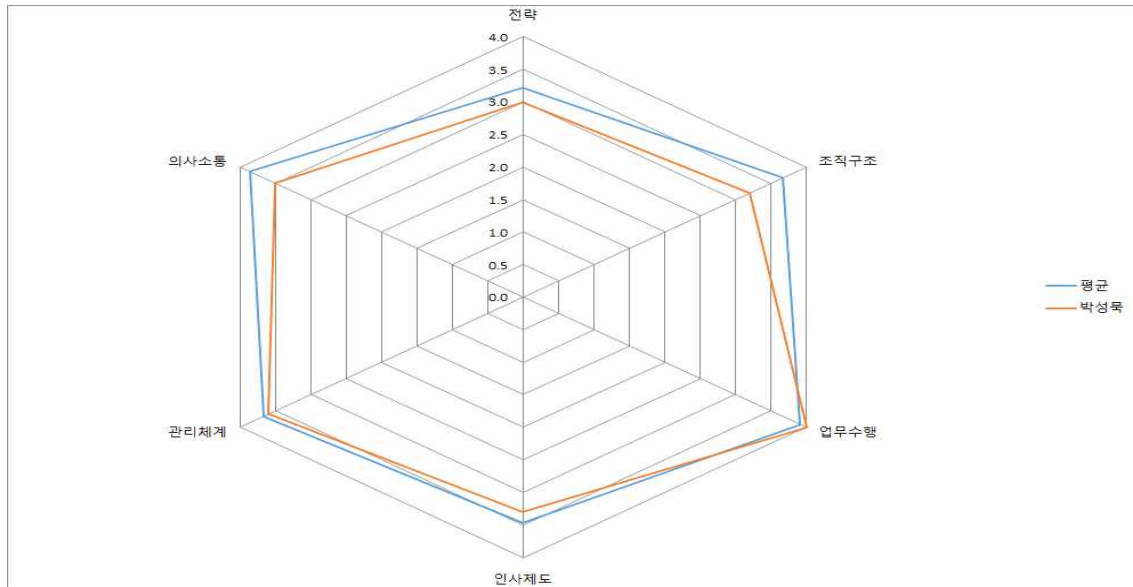
3) 리더쉽



4) 팀역할조사

- ① 자원탐색가 : 박성묵
- ② 실행자 : 박은영
- ③ 분위기조성자 : 권기현, 최보람, 민경화, 김수빈
- ④ 전문가 : 고희식

5) 내부역량분석



2. 제언

1) 설문지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팀과 팀 내 나의 역할 등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음. 팀 내 나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어떻게 보완해야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됨. 또한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팀의 장단점과 리더가 추구하고자 하는 팀에 대해 알게 되어 앞으로 발전된 팀을 위해 어떤 팀원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음.

2)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과 조직 내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함에 따라 가족문화지원팀에서의 나의 역할을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내가 잘하는 것(팀 안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과 내가 노력해야할 것(개선되어야 할)을 생각하게 되었다. 조직문화진단기법을 활용하였을 때 아직 우리조직(가족문화지원팀)이 건강한 조직에 속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leader와 follow의 의사소통과 감정적 이해를 통한 소통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한다.

3) 조직문화 및 내부역량분석을 통해 우리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에 대해 다시한 번 상기할 수 있었던 유의미한 시간이었음. 조직문화 분석을 통해 리더의 성향과 방향성에 대해 파악하여 건강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팔로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또한 조직내부역량분석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팀워크 향상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여 업무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됨.

4) 팀 구성원 간 성향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성향에 대한 공유를 통해 상호간 긍정적인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 업무 공유 및 업무 수행 시 조직 구성원 간의 욕구 만

죽을 위하여 일의 수행 방법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팀 문화뿐만 아니라 복지관 및 다른 부서와의 문화를 파악하고 격차가 있을 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문화격차 확인을 통하여 팀 구성원들이 원하는 조직 방향에 대한 이해 및 필요한 변화를 인식하였음.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함.

5) 조직 내부역량 분석을 통해 팀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에 대해 공유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나의 성향에 기반한 발전 방향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구성원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과 성격 등을 분석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거나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가진다면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건강한 조직을 형성해 가는 것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됨.

6) 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팀의 방향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고, 팀원들의 업무성향을 파악함으로써 그에 따른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수월하리라 사료됨.

7)척도를 통해 팀원들이 생각하는 현재 조직문화와 이상적인 조직문화에 대해 들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조직문화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보고 이야기해볼 수 있었음. 또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조직내부에 대한 나의 생각과 팀원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동안 내가 느낀 조직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조직 내 나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

텀스터디 19-08

달라지는 사회보장급여



팀 명	지역연계팀
일 시	2019년 2월 25일(월) 16:00~17:30
발표자	유명현
장 소	상담실2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주요 사회보장급여별 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

가.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 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나. 선정기준 및 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75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2. 기초연금

가.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나. 선정기준 및 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19년 고시금액: 노인단독 137만원, 노인부부 219.2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직역연금 기준	• (원칙)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특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기준연금액의 50% 산정)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기초연금 급여액 : 월 최고 단독가구 250,000원, 부부가구 400,000원 (‘19.4월 변경되는 지원액은 추후 통보)

3. 영유아 보육(보육료, 양육수당)

가.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나. 급여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양육수당(0~85개월) : 100~2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0~85개월) : 100~200천원 • 농어촌 양육수당(0~85개월) : 100~200천원 • 영유아(만0~2세)보육료 : 소득무관 전(全)계층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 220천원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월 462천원 • 장애아 보육료 : 월 462천원(정부지원시설 기준) • 방과후 보육료 : 만12세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 월 232천원
----------------	---

4. 장애(아동)수당

가. 지원대상

-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
-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단, 만18~20세인 초·중등교육법상 재학중인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지급)

나. 선정기준 및 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기타 기준	• 등록 장애인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장애수당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 월 4만원 -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월 20만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월 10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차상위 중증 : 월 15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차상위 경증 : 월 10만원 -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월 7만원 -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월 2만원

5. 장애인연금

가.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상자

나. 선정기준 및 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9년 선정기준액 장애인단독 122만원, 장애인부부 195.2만원		
기타 기준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 기초급여(공통) ▶ ~2019.3월 : 250,000원(감액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9.4월~2019.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자 253,75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 20% 감액 지급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감액하여 지급 - 부가급여(차등)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8만원	330,000원 ²⁾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0원	7만원 ³⁾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2)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2019.3월 : 20,000원~330,000원/ 2019.4월~2019.12월 : 20,000원~380,000원

3)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6. 긴급복지지원

가.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나. 선정기준 및 급여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80천원, 4인기준 3,460천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188백만원), 중소도시(118백만원), 농어촌(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기타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사유 등 생활실태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금전 · 현물 지원	주 급 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 계유지비	월 1,195,900원(4인)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 3백만원 이내(본인부담 금·비급여)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 용 지원	월 643,200원 이내 (대도시, 4인)	12회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이용 서비스 - 시설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월 1,450,500원 이내 (4인)	6회
	부 가 급 여	교육 ○ 초·중·고 수업료 등 필 요비용	- 초 221,600원, - 중 352,700원 - 고 432,200원 및 입학금·수업료 등	2회 (주거 지원 4회)	
		기타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에 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만원 / 월 - 해산비(60만원) · 장제비(75만원) · 전기요 금(50만원 이내)		1회 (연료비 6회)	
	민간 연계 등		○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민간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무제한

7.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포함)

가.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이하인 한부모가구

나. 선정기준 및 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은 72%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 (원칙)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참조
기타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미혼모·부 가족 포함)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지급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은 60%이하)
	• 자녀양육비(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아동 1인당 월 200,000원 ※ 5세이하 아동 양육하는 만25세 이상 미혼모·부자 가족, 조손가족은 월 50,000원 추가 - 지원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 54,100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생계급여 수급자만 제외)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기준중위소득 60% 이하/생계급여 수급자만 제외)
	: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 1인당 월 350,000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기준중위소득 60% 이하/교육급여 수급자만 제외) :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한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에게 연간 154만원 이내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포함) : 만24개월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며, 자립활동을 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 이하/교육급여 수급자만 제외) : 청소년 한부모가구주가 정규고교과정을 이수시 입학금·수업료 실비 지원

Ⅱ. 급여 · 서비스 실시

1.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시
급여액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 급여 지급 - 자가가구: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수선 유지급여 지급	- 입학금·수업료 - 부교재비 - 초등: 132,000원/년 - 중·고등: 209,000원/년 - 학용품비 - 초등: 71,000원/년 - 중·고등: 81,000원/년	1인 - 60만원	75만원

2.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구분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기준대상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이상 경증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18세미만 등록 장애아동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4조 3항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상자
급여액	- 노인단독 - 최고 25만원 - 노인부부 - 최고 40만원 (~'19.3월) *'19.4월부터 급여는 추후 통지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4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경증 - 4만원 -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2만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20만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10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중증 - 15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경증 - 10만원 -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7만원 -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2만원	- 기초급여('19.3월까지) - 18세~64세: 최대 25만원* * 부부장래인 - 최대 40만원* - 65세 이상: 기초연금으로 전환 하여 지급 - 부가급여*

* 부가급여

구 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생계·의료)	8만원	33만원*
기초(주거·교육) ※ 생계·의료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

* ~'19.3월 적용('19.4월 급여부터는 38만원)

3. 양육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구분	양육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대상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고등학교 재학생	18세 미만 아동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급여액	0~11개월 - 월 20만원 12~23개월 - 월 15만원 24개월~86개월미만 - 월 10만원 ※ 장애아동 : 0~35개월 - 월 20만원, 36~86개월미만 월 10만원 ※ 농어촌양육수당 : 0~86개월미만 아동 10~20만원	금지(지역)별	• 월 20만원 ※ 5세미만 아동 양육 만25세 이상 미혼모· 부자 및 조손가족은 월 5만원 추가 (※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원)	연 54,100원	월 5만원

4. 주요 사회서비스 바우처

가. 영유아보육료지원(i-사랑카드)

구분	영유아보육료지원(i-사랑카드)			
	만0~2세아 보육료지원	만3~5세아 보육료지원	장애아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지원
대상	만0~2세전계층	만3~5세 전계층	기준대상자 중 만0세~12세의 미취학 장애아	기준소득액 이하 (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소득수준 무관지원 연령별 정부 지원단가 전액지원	소득수준 무관지원 월/ 220천원	월 449천원 * 누리만3~5세 장애아 : 449천원	정액 100천원 * 방과후장애 아동 : 225천원

나. 사회서비스(바우처)

구분	사회서비스(바우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 발달지원
대 상	기준대상자 중 65세이상 장기 요양보험 등급 외 AB의(요양 서비스 필요) 노인 · 골절 등으로 단기 가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 「장애인복지 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만6세 이상~ 만65세미만)중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	기준대상자 중 출산 (예정)일 前 40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선정기준 개별 적용	- 만65세미만의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 1~3급 등록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법정보호 세대)	- 만18세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 - 전국가구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를 가진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
서비스 내용	- 시간 : 24시간, 27시간, 36시간 - 내용 : 가사· 활동지원을 위한 방문 서비스·단기 가사서비스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 위해 지급 (개인별 본인 부담금 차등 지원) · 기본급여 : 610 ~1,530천원 · 추가급여 : 130 ~3,539천원 * 추가 급여간 중복 가능	- 표준서비스기간 · 단태아 : 첫째(10일), 둘째(15일), 셋째 이상(15일) · 쌍생아 : 둘째(15일), 셋째 이상(20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산모(20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 (세부내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안내 참고)	- 서비스별, 지역별 상이	- 시간 : 24시간, 27시간 - 내용 : 가사 간병 서비스 제공	- 월 14~22만원 상당의 언어 치료, 미술· 음악 치료 등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금액 지원 (지역별 상이)	- 월 16~22만원 상당의 언어 발달진단 서비스, 언어 재활, 청능 재활 등 언어 재활 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 지도의 프로그램 제공

Ⅲ. 기타자료

1.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08,265원 = 2,152,214원(7인기준)
+ 256,051원(7인기준-6인기준)

3. 2019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12,102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62,110원(원단위 올림)

4. 실질사례(최고금액 기준)

(단위 : 원)

급여종류 구분	생계 급여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부가 급여	장애(아동) 수당	계	i-사랑 카드	장기요양	활동지원
1인가구 수급자 중증 청년장애인	512,102		250,000	80,000		842,102			만6세~ 만65세미만 1-3급장애인
1인가구 수급자 경증 청년장애인	512,102				40,000	552,102			
1인가구 수급자 중증 노령장애인	512,102		330,000			842,102		1,456,400	
1인가구 수급자 경증 노령장애인	262,120	250,000			40,000	552,120			기본급여 610,000~ 1,530,000
수급자가족 중 장애아동					40,000	40,000	*만0세 ~12세 (미취학)		추가급여 130,000~ 3,539,000
수급자가족 중 장애아동(중증) (초중등 재학중)					200,000	200,000	*방과후 장애아동 225,000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무료~131,076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가능함

-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무료~113,500원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무료~176,900원

5.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도

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추진 원칙 및 전략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조정 강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증장기 목표	국민 삶의 질 향상 : OECD 28위('17) → 20위('23) → 10위('40)			
4대 핵심 분야별 목표 및 증장기 방향 ('40)	고용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축소 22.3('17) ▶ 15.0%('40) ◆ 노동형태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 ◆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인적자원 역량 제고			
	소득 상대빈곤율 완화 17.4%('17) ▶ 11.3%('40) ◆ 공공부조 역할 강화 및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확대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1인 1연금 및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확충			
	건강 건강수명 연장 73세('16) ▶ 78세('40)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 의료이용체계의 효율화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서비스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율 확대 5.7%('15) ▶ 10.7%('40) ◆ 생애주기별·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에서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완성 및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핵심 추진 과제 ('23)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1.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2.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3.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1.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2.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3.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2. 필수의료 보장 3.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2.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3.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기반	· 사회투자 확대 ·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 강화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 분석의 과학화			

팀스터디 19-09

발달장애인성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팀 명	지역연계팀
일 시	2019.03.27.(수) 16:00~17:00
발표자	변 새 봄
장 소	상담실



남동장애인가족합복지관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교육 : CIRCLES

1. CIRCLES-친밀감과 대인관계

1) 개요

- 1983년에 미국의 James Stanfield 출판사에서 소개된 사회-성교육 교구
- 6가지 색깔의 circles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친밀감과 관련된 행동을 범주화함
- 인지, 언어, 시·청각, 대·소근육운동 등 다감각적 활동으로 구성함.
- Circles의 기본 목표는 학습자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건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데 있음

2) 발달장애인 성교육에서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

- 적절한 성행동이란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의미함
-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거리와 친밀감의 다양한 수준, 사회적 행동에 있는 뉘앙스를 잘 알지 못함
- 발달장애인은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음

3) 성이 포함된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위해 발달장애인이 학습해야하는 사항

-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소중함
- 사회적이고 성적인 개인공간과 사회적 거리, 사회-성적 개념
-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세련되게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 것
- 친밀감의 다양한 수준에 맞는 만짐, 말, 신뢰가 있다는 것
- 각 동그라미는 색깔, 행동, 친밀감, 거리감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

4) CIRCLES의 특징

(1) 사회적 역할을 범주화하고 그와 관련된 만짐(Touch), 말(Talk), 신뢰(Trust)와 함께 해당되는 색의 Circle을 포함한다.

◎ 만짐(Touch): 나와 서로의 몸 어디를, 얼마나 많이 만질 것인가를 뜻함

◎ 말(Talk): 다른 사람과 사적인 말과 공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뜻함

◎ 신뢰(Trust):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의지할 수 있는가를 뜻함

(2) 영상은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설명해 주고 대화의 수준과 만족의 정도, 만짐의 정도를 보여준다.

(3) 사회적 역할과 적절한 색의 Circle을 매치시키고 학습자들에게 그에 맞는 행동을 알려준다.

- (4)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과 자신들의 실제 삶을 비교·대조할 수 있다.
- (5) 자신이 맺고 있는 여러 대인관계를 평가하고, 서로 만족스러운 관계에서 허용될 수 있는 만짐, 말, 신뢰를 선택하도록 배운다.
- (6) 만짐, 말, 신뢰는 대인관계에 있는 행동, 인지, 애정을 의미한다. 이것들은 다양한 관계에 있는 전반적인 정서적 분위기를 나타낸다.

5) CIRCLES의 기대효과

- (1) 다양한 대인관계에 있는 친밀감의 다양한 수준을 구별하고 그에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돕는다.
- (2) 사회규범과 나이에 맞게 대인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방법을 가르친다.
- (3) 개인적 책임감을 키우고 사회통합을 잘 할 수 있는 기초를 놓는다.
- (4)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발달시킴으로써 자기결정과 상호존중을 잘 하도록 돕는다.
- (5)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복잡한 세상 안에서 더 잘 살도록 돕는다.

2. 여섯가지 색의 Circles와 그 의미

1) 보라색의 사적인 Circle : 나

- 당신은 당신 씨클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만질 수 없다.
-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당신도 그 사람을 만질 수 없다.
- ◎ 만짐(Touch):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고 사적행동을 위한 사회규범을 지키면서 당신 스스로의 몸을 만질 수 있다. 누가 자신을 만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 ◎ 말(Talk):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대신 자기 문제를 혼자 조용히 생각해서 해결하기 위해 속으로 말한다. 누구와 말하고 어떤 말을 할지 자신이 결정한다.
- ◎ 신뢰(Trust): 자신의 대인관계에서 자기 느낌을 믿는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은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결정한다.

2) 파란색의 껴안는 Circle : 가족

- 당신을 껴안을 수 있고 또 당신이 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의 가족과 애인이다.
- ◎ 만짐(Touch): 사랑을 보여주지만 낭만적인 사랑이 아닌 방식으로 가족을 꼭 껴안는다.
- ◎ 말(Talk): 어떤 문제, 심지어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가족에게 말할 수 있다.
- ◎ 신뢰(Trust): 자기 가족을 전적으로 믿는다.

3) 초록색의 가볍게 안는 Circle : 애인, 친척, 친한 친구들

- 당신이 가볍게(다정하지만 성적인 껴안음이 아님) 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의 친한 친구들이다.

(1) 애인

◎ 만짐(Touch): 사랑스럽고 낭만적인 방식으로 애인을 껴안는다. 친밀하게 애인을 만지고 낭만적으로 껴안고 키스한다.

◎ 말(Talk): 애인과 가장 친밀하고 낭만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신뢰(Trust): 애인의 느낌을 존중한다. 애인을 믿고 애인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2) 친척

◎ 만짐(Touch): 가볍게 껴안으며 애정을 나타내지만 몸을 꼭 껴안지는 않는다.

◎ 말(Talk): 개인적인 소식을 나눌 수 있으나 그들과 친밀한 것은 아니다.

◎ 신뢰(Trust): 친척들을 대개 믿는다. 친척들이 일부러 상처주지 않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도울 것임을 안다.

(3) 친한 친구들

◎ 만짐(Touch): 특별한 경우에 친절하고 애정어린 방식으로 친구들과 가볍게 껴안는다.

◎ 말(Talk): 사적인 얘기나 유쾌한 잡담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한다.

◎ 신뢰(Trust): 친구들이 일부러 자신의 감정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주로 믿을 수 있다.

4) 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 : 이웃사람들, 아는 사람들

- 당신은 아는 사람들과 악수하고 또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될 때 상대와 악수한다.

(1) 이웃사람들

◎ 만짐(Touch): 인사할 때만 그들과 악수하고, 이 때 손만 만진다.

◎ 말(Talk): 이웃사람들과 사적인 관계를 갖지 않지만 그들과 정중하게 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 신뢰(Trust): 이웃사람들을 조금만 믿는데, 그들의 이름 외에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2) 아는 사람들

◎ 만짐(Touch): 권위가 있는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만 그들과 악수하며 이 때 손만 만진다.

◎ 말(Talk): 아는 사람들과 사적관계를 갖지 않지만 그들에게 정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다.

◎ 신뢰(Trust): 아는 사람들을 조금만 믿는데, 그들의 이름 외에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5) 주황색의 손 흔드는 Circle : 어린 아이들

- 당신은 어린아이들에게 손 흔들고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한다.
- ◎ 만짐(Touch): 어린 아이들에게 손 흔들고,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여주지만 그들을 만지지는 않는다.
- ◎ 말(Talk): 어린아이들에게 짧게 응답해 주지만 그들과 길게 말하지는 않는다.
- ◎ 신뢰(Trust): 어린아이들을 거의 믿지 않으며, 미성숙하고 어른의 책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6) 붉은색의 낮선 사람 Circle : 지역사회 도우미, 의료진, 완전히 낮선 사람들

- 당신은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일과 관련하여 접촉한다.
- 당신은 낮선 사람을 만지지 않는다.
- 낮선 사람은 당신을 만지지 않는다.
- 누가 당신을 만질 수 있는지와 누가 당신을 만질 때 “안돼”라고 말할 때와 그 곳을 떠날 때를 당신이 결정한다.

(1) 지역사회 도우미

◎ 만짐(Touch): 당신을 만지거나 당신이 그들을 만질 수 있는데, 일과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 말(Talk): 일과 관련해서만 지역사회 도우미들과 말할 수 있다.

◎ 신뢰(Trust): 그들의 일과 관련해서만 믿을 수 있다.

(2) 의료진들

◎ 만짐(Touch): 건강 관리 및 진료를 위해 당신의 몸의 사적인 부위까지 만질 수 있다.

◎ 말(Talk): 건강에 대한 사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 신뢰(Trust): 그들의 일과 관련해서만 믿을 수 있다.

(3) 완전히 낮선 사람들

◎ 만짐(Touch): 낮선 사람들을 만지지 않는다.

◎ 말(Talk): 낮선 사람들과 말하지 않는다.

◎ 신뢰(Trust): 낮선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지역연계팀 논의해 볼 사항>>

- 발달장애인 성교육 제공자는 성에 대한 어떠한 영역까지 다루어야 하는가?
- 사회복지 전문가가 매일 혹은 자주 대면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성교육 제공자로서의 강점은?
- 발달장애인 성교육 제공시 당사자 외 함께 협조 혹은 참여해야 하는 사람은?
- 발달장애인 성 범죄 피해 예방은? 발달장애인의 성 욕구 충족 방안은?
-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는 어떤 색상에 포함될까?
- 재가서비스, 일반사례관리 대상에게 어떠한 성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

<참고자료>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2017.08.21.)

**[장애인은 엄마 자격 없나요] 장애인 성교육도 구멍... ‘성범죄 무방비’ 불안 키워
부모들, 지적장애 자녀 이성교차 차단 / 사회성 약해져 되레 성적 문제 야기 / 다양한
교류 통해 행동규범 익혀야 / 편견 깨는 열린 교육체계 마련 시급**

‘성적 자제력이 없다’, ‘인지능력이 부족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니 이성을 못 만나게 해야 한다’ ...

흔히 지적장애인 등에게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편견들이다. 심지어 일부 장애인 가족도 그러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장애인 성교육 전문가들은 사회와 미디어가 만들어낸 왜곡된 틀에 불과하다며 고개를 젓는다.

정진욱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장은 21일 “성교육 자체가 안 되니 평생 성에 눈을 뜨지 못하도록 이성친구와의 모든 교류를 철저히 끊어놓는 게 상책”이라며 자녀를 고립시키는 부모들도 있다”며 “그런 태도가 오히려 자녀들의 사회성을 떨어뜨리고 성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성교육 방식도 문제다. 장애인 성교육이 ‘친밀도가 다른 다양한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 맺기 교육’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레 다뤄지기보다는 ‘성(sex)’ 논의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돼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추국화 탁틴내일 성문화센터 소장은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종류의 교우(인간)관계를 접하면서 복잡한 행동규범과 그에 맞는 역할을 익혀야 성교육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남자친구와 다툼이 잦아지면서 ‘분노지수’가 높아졌다는 김규림(18·가명·지적장애 3급)양은 장애인복지관 교사의 권유로 탁틴내일이 운영하는 데이트코칭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연애고수의 재탄생’ 프로그램으로도 불리는 이 과정은 자신의 호감 표현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등 연애의 기초부터 대인관계 증진 기술을 단계별로 짚어줘 김양과 같은 장애학생들에게 인기다.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의 특성을 잘 아는 담임교사 대신 별도의 외부강사나 보건교사에게 성교육을 맡기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추 소장은 “장애학생들이 잘못 행동했을 때 담임교사가 바로 잡아주고 행동규범을 익힐 수 있도록 반복지도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도입된 장애인 성교육 도구인 서클즈(circles). 장애인 본인을 중앙에 두고 친밀감에 따라 사회적 관계를 6개의 원으로 나눈다. 이어 가족과 애인 등 가까운 순으로 각각의 원 안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감을 나누고 스킨십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가르쳐 준다.

적절한 성교육 도구와 교재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 관장이 미국에서 들여온 지적장애인용 성 교육 도구 서클즈(circles)는 사회적 관계를 친밀감에 따라 6개의 원으로 나누고 장애인 자신을 맨 중앙에 둔다. 이어 가족과 애인 등 가까운 순으로 각각의 원 안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감을 나누고 스킨십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가르쳐 준다. 정 관장은 “내가 17년 전부터 활용하고 있는 이 교구를 일선 특수학교에선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한 특수학교 교사는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성적인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우왕좌왕하다 아이들만 큰 상처를 입을 때가 있다”며 “교사들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거나 필요할 때 성교육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이강은·최형창·김라운 기자 kelee@segye.com

팀스터디 19-10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생태도 작성법



팀 명	지역연계팀
일 시	2019. 12. 20(금) 10:00-11:00
발표자	전기훈
장 소	2층 대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9년 3차 지역연계팀 팀스터디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생태도 작성법’

1. 생태도의 특징

- 1975년, 앤 하트만(Hartman)이 고안한 가족관계에 대한 도식이다.
- 클라이언트 및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사람·사회복지기관·환경의 영향 및 상호작용의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 클라이언트의 인식과 전문가와의 권력 공유관계 차원에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생태도를 그리기도 한다.
- ‘환경 속의 인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클라이언트 가족에게 유용한 자원이나 환경이 무엇인지, 가족체계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무엇인지, 체계 간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 개입초기에 가족을 사정하는 도구로 활용할 뿐 아니라 변화를 확인하는 도구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생태지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연속생태지도라고 한다.

2. 생태도의 기능

- 가족생활 및 가족이 집단, 단체, 조직, 다른 가족, 개인들과 맺는 관계의 본질에 대하여 전체적인 시각 또는 생태학적 시각을 가지도록 돕는다.
- 결혼 및 가족 상담, 입양과 위탁가정 연구 등의 다양한 상황에도 활용된다.
- 생태도는 기본적인 사회적 정보를 간편하게 기록하는 방법이므로 전통적인 사회력과 사례 기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생태도는 클라이언트와 실친가 모두에게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도록 해주며, 건설적인 변화를 더 잘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생태도는 특정 시간 동안 중요하게 일어난 상호작용에 대한 ‘스냅사진’의 역할을 한다.

3. 생태도 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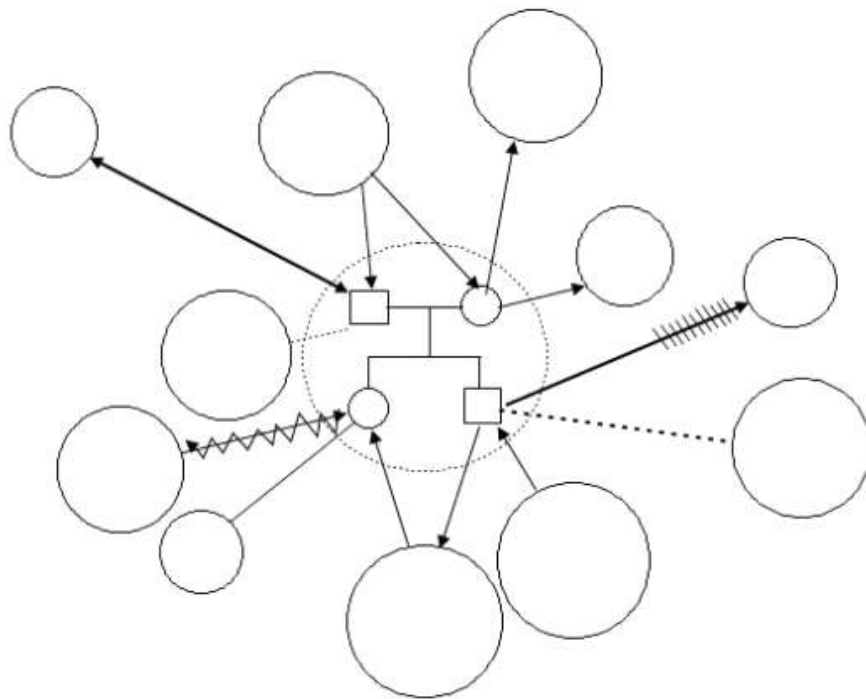
- 가족을 표현하는 원을 중앙에 그려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표시한다.
- 가족이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련된 주변 환경체계(직장, 병원, 친구, 학교 등)는 중심원 주변에 각각의 원으로 표시한다.
- 생태도 사용자는 나름의 약어와 기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가족과 환경체계의 관계를 다양한 선으로 표현한다.
- 실선은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데 실선이 굵을수록 밀착관계, 점선은 미약한 관계, 사선은 긴장이 많거나 갈등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4. 생태도와 가계도의 비교

- 공통점 : 같은 기호를 사용하기도 하며 모두 가족역동을 통찰하게 해준다.
- 차이점 : 생태도는 한 가족이 집단, 자원, 조직, 단체, 다른 가족 및 개인과 맺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면, 가계도는 한 가족의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 패턴, 특히 문제가 되거나 역기능적인 가족 패턴에 초점을 맞춘다.

생태도(Eco-map) 그리는 요령

1. 가계도를 그린 후, 각 개인력에 따른 영향력을 준 요소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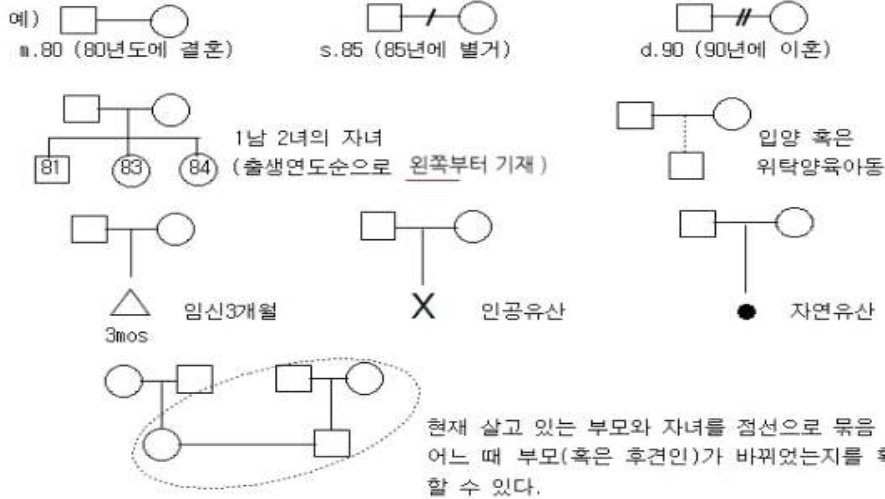


2. ○의 크기에 따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
3. ○이 가계도를 중심으로 가까운지 아니면, 멀리 떨어졌는지에 따라 관계의 정도가 다르다.
4. →의 굵기에 따라 영향력의 크고 작음을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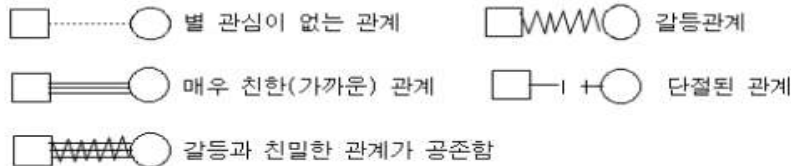
가계도(Genogram) 그리는 요령

1. 가족구성원과 가족구조를 표시하는 기호

□ 남 ○ 여 -출생연도나 사망연도를 함께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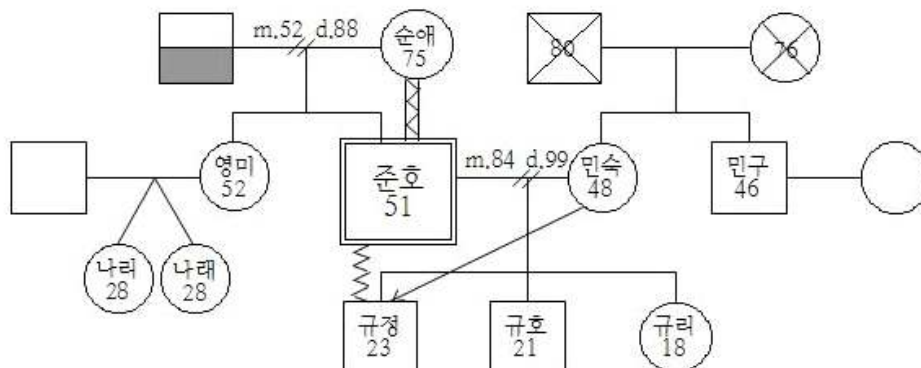
2. 가족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기호, 이러한 기호들은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별도의 용지에 기술할 수도 있다.



3. 가계도의 빈 여백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간결하게 기록한다.

예) ①만성적 질환 ②종교 ③교육
④취업 혹은 실업 ⑤퇴직 ⑥법법 행위
⑦알콜리즘 혹은 마약 사용 외에 가족의 사망이나 이사 등 중요 정보를 기록한다.

가계도 작성 예시



※ 참고문헌 : 네이버블로그(<https://m.blog.naver.com/lovnhateme/205221975>)

팀스터디 19-11

직업평가 실시, 채점 및 해석,
소견서 작성
(MDS, 퍼듀펙보드)



팀 명	직업지원팀
일 시	2019. 1. 8(화) 14:00~18:00
발표자	이주미, 이정진
장 소	직업적응훈련반 보람터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직업평가 결과 해석

1. 직업평가결과 해석 원칙

- 1) 재활전문가는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 내담자의 인지장애 유무 파악
 - 불안증을 가진 내담자의 경우 목표설명, 변경 시 충분한 설명 및 이해가 필요
- 2) 직업목표수립에 대한 제안점(여러가지 대안점 포함)
 - 직업정보사전 등을 통해 다양한 직업정보획득
- 3) 내담자는 평가결과 해석단계에 많은 참석
- 4) 직업평가뿐 아니라 상담을 통한 재활방향 설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
- 5) 결과해석 시 냉정하거나 공격적인 태도 지양
- 6) 다양한 검사도구와 내담자 평가시에 사용되는 접근에 대한 많은 지식 보유
- 7) 부정적인 평가결과는 긍정적인 결과와 균형을 맞추어 제시

2. 직업평가 결과 해석단계

단계	과업
제 1단계 (도입)	- 직업평가사는 사용된 평가도구를 내담자에게 평가결과 해석에서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기 -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 - 내담자와 함께 평가목표를 다시 고찰
제 2단계	- 내담자가 평가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 - 긍정적인 검사결과를 강조하면서 전체 평가결과를 요약설명 - 내담자로부터 피드백
제 3단계	- 사용된 평가도구들을 분석하고, 기준 등의 지침을 참고 - 평가결과에 대한 내담자의 느낌청취 - 각 평가도구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 평가결과에 대한 내담자의 부정, 비현실적인 직업목표와 같은 문제 다루기 - 특정 흥미분야, 신체적·정서적·지적 능력설명
제 4단계	- 내담자에게 평가결과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재활계획 수립과의 관련성을 논의 - 내담자에게 추가적인 피드백을 요청 - 재활계획을 수립

3. 직업평가 결과 해석의 문제점

- 1) 평가도구에 따라 상반되는 검사결과가 나타날 경우
 - ① 검사도구간 차이점 : 지필검사(객관식, 주관식), 연령과 지능수준 등의 기준차이

② 개인 내 차이점 : 신체적, 심리적 상태(피곤함, 주의산만, 불안감, 스트레스, 동기 등)

③ 검사 실행과 채점의 차이점 : 평가장소나 환경, 평가실행자로 인한 불안감

2) 내담자가 검사결과를 신뢰하지 않거나 평가사의 제안점을 거부할 경우

① 불신과 거부의 원인규명

② 내담자의 감정 이해 - 경청, 진실성과 관심 보이기

③ 원인규명 후 적극적으로 제안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사용

3) 내담자가 비현실적인 직업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① 내담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훈련경험이 적으면 차이 발생

② 급여와 승진가능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직업분야의 정보 제시

③ 대안적 직업분야에 흥미를 갖고 현실적인 결정을 하도록 그 분야의 종사자를 만나거나 견학의 기회 제공

4. MDS 평가 요인별 해석 시 고려사항

1) 언어-공간 인지영역

- 언어능력은 인지능력과 일치하므로 PPVT로 측정 가능
- PPVT는 환경적 결핍(가족환경, 교육적 자극)이나 청각장애 반영
- 평가는 강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해야 함.
- 기초선 설정 시 1차, 2차가 설정된다면 2차 기초선으로 설정해야 함.
- 최고한계선의 경우 최초로 최고한계선이 나온 것만 적용함.
- 최고한계선이 2, 3차가 나올 경우 평가자가 집중하지 않았음을 시사함. 간혹 피검자가 평가에 집중하지 않거나 대충 대답하는 모습이 보일 경우에는 이차한계선이 나타날 수 있음.
- 점수기록 시 응답한 번호만 작성할 것. 채점을 할 경우 피검자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에 대해 위축될 수 있음.

2) 감각영역

- 환경으로부터의 정보를 수용, 인식하는 기본적 체계 평가 : 응용능력-적응력이 얼마나 빨리 적용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음.
- 적절한 감각기능은 인지발달과 운동기능발달에 필수적
 - ※ 정신장애의 경우 약물로 인해 감각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

① BGT

- 연령, 중추신경의 병리상태, 심각한 정서적 상태에 영향
 - ※ 정신장애(조현증)의 경우 그림에 참가하는 경우 다수임.
- 통합 실패는 전반적 뇌기능 장애(지적장애)와 관련 : 각이 있는 그림의 완성도가 낮으며, 통합점수 낮음.

- 기초적인 감각운동기능의 해체와 관련
- 발달적 채점과 정서적 채점이 있으나 현장에서는 발달적 채점 위주로 진행함.
- 정서적 채점의 경우 평가지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일반화하면 안됨. 일반화를 하고 싶다면 심리검사 도구를 2~3개정도 더 활용하여 유사한 결과 도출 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명확한 일탈만 채점하고 애매한 것은 채점하지 않는다.
- BGT검사의 다양한 사례를 보며 채점사례확인을 하거나 많은 케이스를 채점해보는 노력이 필요함.
- 용지회전을 할 경우 한번 바로잡아주고 계속해서 회전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시각적 한계를 의심해보아야 함.(다른 검사에서도 회전 및 시야확보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② HVDT

- 피부운동감각과 시각적 정보처리 기능 평가
- 입력된 감각자극과 이미 가지고 있던 개념을 조직화하는 상위의 피질기능은 촉각-시각 과제와 매우 높은 연관성이 있음. :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통합해서 산출하는 인지기능과도 관련 있음.
- 쉬운 '모양' 영역도 변별하지 못하는 경우 두정엽 손상 의심
- 공간지각력 장애는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됨(행동장애가 공간지각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음).
- 오른손↓, 왼손↑ : 좌반구 병변, 학습영역↓, 공간지각↑, 크기변별의 어려움
- 오른손↑, 왼손↓ : 우반구 병변, 공간지각, 동작성, 지남력, 수리 장애, 학습↑, **모양/형태<크기/질감**
- 촉지각의 어려움은 기초 직업전, 직업기능의 문제를 의미(작은 도구 사용, 작은 부속 변별, 조립과제 수행)
- 좌우의 점수차이를 통해 뇌손상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KI(운동통합) 수준이 낮으며, 표준점수 차이가 2 표준편차 이상일 경우 두정엽에 중등도 이상의 기능장애가 있음을 의미함. 이러한 경우 감각해석, 장소에 대한 지남력, 언어기능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 지적장애의 경우 단순 인지장애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촉지각의 제한으로 인한 것임.
- 왼손의 점수가 높다고 해서 왼손이 우세손이라는 단정은 위험함. 학습으로 인해 왼손의 점수가 높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소견을 작성해야 함.
- 정확한 채점 및 해석을 위해서는 뇌구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함.
- 촉각, 시지각 기능을 파악하는 검사로 언어적인 요소에 집착하지 말아야 함.
- HVDT 점수가 낮으면 지적기능이 낮고, 점수가 높으면 지적기능이 높다는 연구의 신뢰성 70%이상임.

3) 운동영역 - MAND

- 운동행동의 영역(소뇌 기능의 영향을 받는 영역) : 운동의 속도와 방향, 운동의 협응력, 운동과 관련된 힘, 평형감과 위치감각
 - ※ 정신과적 약물이 소뇌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정신장애의 경우 지적장애인 수행모습과 동일하게 수행함.
- Persistent control(지속적인 통제) : 막대밀기, 손-코-손
 - ① 손을 사용하는 작업의 질 저하, 오류 ↑, 사고발생 ↑
 - ② 단순운동기능 제한만이 원인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시력검사를 의뢰할 필요 있음.
 - ③ 낮을 경우 : 주의집중력, 시각적 추적의 어려움, 불안/충동성 조절의 어려움
- Kinesthetic integration(운동감각통합) : 발붙여건기, 한발서기
 - ① 공간에서의 균형과 신체의 정위 측정
 - ② 낮을 경우 : 높은 곳의 물건 내리기, 기기,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수행 어려움
- Muscle power(근육의 힘) : 손의 힘, 제자리 멀리뛰기
 - ① 손과 팔의 강도와 다리의 강도
 - ② 낮을 경우 : 들기, 옮기기, 밀기나 당기기의 어려움. 상체근육의 힘 저하는 뇌의 외피 손상을 의미하기도 함.
- Bimanual dexterity(양손 정교성, 협응력) : 막대 구슬 꿰기, 너트볼트
 - ① 성인 지적장애인의 직업훈련잠재력 예측에 매우 효과적
 - ② 손이 운동자극을 수용하지 못함, 차별적인 운동기능 수행하지 못함, 정밀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한 수행

4) 정서요인

-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평가
- 시각-운동지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직장, 가정에서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욕구좌절됨.
- 정서문제는 지각문제에 대한 이차적 발생이므로 교사, 부모와 추가적으로 상담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함.
- OEI, BGT의 경우 해석시 관찰소견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음. 낮은 영역에 대한 체크 이유와 특별한 행동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함.

Ⅱ. 직업평가 소견서 작성

1. 직업평가보고서 구성

- 직업평가를 실시한 후 각 평가도구의 결과에 대한 채점 및 해석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긍정적인 어휘로 내담자의 강점을 강조하고 제한점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 마련 및 직업재활 방향을 설정하는 것.

구성	작성방법
평가일, 의뢰요청 기관, 평가유형	- 평가를 실시한 일자 작성 - 직업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기관명 기입 - 해당되는 평가유형 기입
장애인의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연락처 등
평가목적, 평가방법	- 평가목적 : 의뢰사유 기입 - 평가방법 : 평가에 사용된 평가도구 작성
배경정보	장애력, 가정환경, 교육 및 훈련, 직업경력, 기초 학습, 생활적응능력 등 초기면접 정보
직업평가 내용 및 결과	신체능력, 심리사회, 작업표본, 상황 및 현장평가 등의 결과
종합소견 및 직업재활방향	- 직업적 강·제한점 : 평가도구에서 분석된 직업적 강점, 제한점 작성 - 직업수준 및 목표 - 직업권고 : 권고프로그램 및 적합직무 작성
작성일자, 평가사 성명과 서명	-

2. 직업평가보고서 기록

- 직업평가계획서에서 작성한 평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과 해석
 - 평가 결과 해석 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용어 사용
 -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정보 등 대안점 제시
 - 직업평가 해석단계에서 장애인이 충분히 관여하여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평가사뿐만 아니라 관련 직업재활담당자들이 모두 평가결과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평가과정 결과 공유
 - 직업평가 결과와 장애인의 욕구와 작업환경의 선호경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소견 제시
 - 직업재활 방향은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과 실행방안을 기록
- * 예시(현재 사용 양식)

직업평가 소견서

등록번호	18-0167 (직18-009)	이 름	손**	성 별	남
생년월일	-	주장애(급)	지적장애(3)	동반장애	-
평가일	2018. 07. 30	나 이	-	우세손	우

< 장애 및 주 호소내용 >

- 직업적응훈련 및 취업을 위한 평가에 의뢰되었으며, 중학교까지 발달이 지체되어 다양한 치료활동을 하였으며 고등학교 입학 시 장애등록을 하였음. 공업계 고등학교 전기과를 졸업하였으며 인천장애인복지관 한울 대학프로그램을 이용 후 이용기간 만료로 종결된 이후 약 1년여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대기 중 본 관 직업적응훈련 이용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 평가내용 >

- 직업적성(잠재력) - MDS(장애인평균 : 55, 비장애인 평균 : 100)

영역	언어-인지 (58.2)		감각 (100.7)			운동 (87.3)			정서 (52.6)		통합-대응 (61.2)	
검사 항목	K-WAIS	PPVT	BVMGT	HVDTR		MAND			OEI-R	EBC	BRS	SFAB
표준 점수	-	58.2	100	103	100	97	81.1	87.3	52.6	-	61.2	-

- ① 언어-인지 하위확장된 작업활동, 감각 기술직, 운동 전환적훈련, 정서 하위확장된 작업활동, 통합-대응 상위확장된 작업활동활동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서, 통합-대응을 제외한 3개 요인을 참고하여 원자료로 하여 산출된 직업수준은 84.64점으로 전환적훈련/지역사회고용을 위한 직업전 훈련(71.5-84.9)임.
- ② 수준 정의 : 지역사회 내 고용에 필요한 작업행동과 직업준비 기술이 이 수준에서 강조되고 직업탐색과 직업훈련활동이 또한 수행된다. 기능적인 학습은 개인의 연령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상황에 따라 지속될 수도 있다. 이 수준에서 지원 작업활동은 있다 하더라도 적다. 전통적인 직업재활서비스가 선호된다.
- ③ 발달필수 모델에 따른 개입 우선순위 : 통합-대응, 정서→언어,인지→감각,운동,

< 평가소견 >

- 관찰평가 평가시간 내내 수동적이면서 묻는 질문에 그저 '네'정도로 짧게 대답하였으며, 본인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언어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고 검사행동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관찰되었음. 어머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팔을 잡고 어머니를 보는 행동이 간혹 관찰되었음.
- 언어인지 수용언어 이해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수용어휘력 검사에서 서울장애인복지관발행 표준 점수 산출한 결과 58.28 점으로 하위확장된 작업활동 수준의 어휘 수용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약 9세 수준의 어휘 수용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감각 눈과 손의 협응력, 시각적 단서에 대한 주의집중력, 환경에 대한 조직력, 시지

	각 처리능력 확인을 위한 벤더도형(BVMGT) 검사에서 100점으로 채점되어 기술적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 수준은 비장애인 평균 수준의 기능을 보이고 있음. 시지각 및 피부감각 수용능력 파악을 위한 HVDT 검사에서는 오른손(R)-기술직(103), 왼손(L)-기술직(100)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하위영역별 표준점수는 아래 표와 같고 모양 기술직, 크기 전환적훈련, 감촉 전환적훈련, 형태 기술직 수준을 보이고 있음. <table><tr><th>HVDT 하위점수</th><th>모양</th><th>크기</th><th>감촉</th><th>형태</th></tr><tr><td>R(103)</td><td>118</td><td>70</td><td>85</td><td>130</td></tr><tr><td>L(100)</td><td>100</td><td>85</td><td>61</td><td>130</td></tr><tr><td>평균(101.5)</td><td>109</td><td>77.5</td><td>73</td><td>130</td></tr></table> 각 하위영역간 수행 수준에서 1~2 표준편차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인내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다만 본인의 직업수준에 비추어볼 때 의미있는 결함적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우선순위에서는 다소 후순위로 두어도 무방함.	HVDT 하위점수	모양	크기	감촉	형태	R(103)	118	70	85	130	L(100)	100	85	61	130	평균(101.5)	109	77.5	73	130
HVDT 하위점수	모양	크기	감촉	형태																	
R(103)	118	70	85	130																	
L(100)	100	85	61	130																	
평균(101.5)	109	77.5	73	130																	
■ 운동	대·소근육 사용과 관련된 운동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MAND를 실시하였으며, 소근육 준기능직(97), 대근육 전환적 훈련(81.1), 전체 준기능직(87.7) 수준을 보이고 있음. 하위영역별 점수는 아래 표와 같고, 지속적인 통제평균(PC) 전환적훈련(86.5), 근육의 힘 평균(MP) 상위확장된 작업활동(59.1), 운동지각의 통합평균(KI) 기술직(98.5), 양손의 정교성 평균(BD) 기술직(102.5) 수준으로 나타났음. 오른손 평균(R) 전환적훈련(74), 왼손 평균(L) 전환적훈련(74) 수준으로 나타났음. <table><tr><th>항목</th><th>Fine</th><th>Gross</th><th>PC</th><th>MP</th><th>KI</th><th>BD</th><th>R</th><th>L</th></tr><tr><td>표준점수</td><td>97</td><td>81.1</td><td>86.5</td><td>59.1</td><td>98.5</td><td>102.5</td><td>74</td><td>74</td></tr></table> 전체 하위영역에서 전환적훈련 도는 기능직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음. 다만 근력 및 근피로도 수준을 나타내는 근력 수준이 타 하위영역에 비해 예외적으로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항목	Fine	Gross	PC	MP	KI	BD	R	L	표준점수	97	81.1	86.5	59.1	98.5	102.5	74	74		
항목	Fine	Gross	PC	MP	KI	BD	R	L													
표준점수	97	81.1	86.5	59.1	98.5	102.5	74	74													
■ 정서	BVMGT 정서지표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보이는 지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관찰행동 결과 단편적이고 단순한 답변, 순응적 반응을 보였음. 부모 설문을 통한 정서행동관찰척도(OEI-R) 채점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음. 충동성-욕구좌절 하위확장된 작업활동, 불안 상위확장된 작업활동, 우울-위축 하위확장된작업활동, 사회화 하위확장된 작업활동, 자아개념 작업활동, 공격성 준기능직, 현실감부재 작업활동 수준으로 나타났음.																				

	<table> <tr> <th>항목</th> <th>충동성 욕구좌절</th> <th>불안</th> <th>우울 위축</th> <th>사회화</th> <th>자아 개념</th> <th>공격성</th> <th>현실감 부재</th> </tr> <tr> <td>표준점수</td> <td>53.7</td> <td>55</td> <td>70</td> <td>55</td> <td>31.6</td> <td>85</td> <td>42.5</td> </tr> </table> 설문 결과 자아개념 및 현실감 수준이 본인의 직업수준에 비하여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하위영역에서도 확장된 작업활동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한된 사회적접촉, 고립 및 위축, 낮은 자아정체감, 비합리적인 공포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본인의 직업수준에 비추어볼 때 통합고용 및 독립생활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영역임. 행동관찰결과 지나친 순응 및 상황에 대한 상세한 묘사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항목	충동성 욕구좌절	불안	우울 위축	사회화	자아 개념	공격성	현실감 부재	표준점수	53.7	55	70	55	31.6	85	42.5
항목	충동성 욕구좌절	불안	우울 위축	사회화	자아 개념	공격성	현실감 부재										
표준점수	53.7	55	70	55	31.6	85	42.5										
■ 통합 - 대응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 능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설문을 통한 적응행동 조사 결과 상위확장된 작업활동(61.25)수준을 보이고 있음. 시간개념, 상황 및 사건에 대한 표현, 생산성 등에서 다소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음. 지역사회 통합고용을 위하여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종합소견 및 직업재활 방향 >	
■ 직업적 강점, 제한점	① 강점 - 감각 기능으로 세밀하고 다양한 변별이 필요한 작업 상황에 쉽게 적응할 것으로 보임 - 근통제성 및 양손의 정교성 수준이 본인의 직업수준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이는 작은 부품 및 세밀한 정교성을 요구하는 작업에 유리한 것으로 보임 ② 제한점 - 정서 및 통합대응 수준으로 본인의 직업수준에 비하여 예외적으로 낮은 수행 수준을 보이고 있어 통합고용 상황에서 관계형성의 어려움, 지나친 순응, 지역사회 적응 등의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낮은 수준의 근력은 직업상황에서 근지구력 및 근피로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음.
■ 직업재활 방향	① 수준 : 전환적훈련/지역사회고용을 위한 직업전 훈련 프로그램을 요함 ② 직업권고 : 제조, 포장 등 많은 육체활동을 요구하지 않는 직무가 현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직업훈련 등 기능을 교육받는다면 일반고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③ 권고 프로그램 :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 발달 필수모델에 의한 프로그램 우선순위는 통합대응, 정서 - 언어,인지 - 감각 - 운동 순의 개입이 필요함. 다만 본인의 직업수준 및 평가상 점수를 종합하여 볼 때 정서 - 언어,인지 - 통합대응 - 운동 - 감각 순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 - 심리지원 등을 통한 정서 기능의 강화, 지역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한 자립생활 기술 향상, 낮은 수준의 근력을 향상하기 위한 운동프로그램 등이 권고됨.

■ 종합소견	직업적응훈련 및 고용을 위하여 본관에 내방하여 직업진단을 받았으며 전호나 적훈련 수준/지역사회고용을 위한 직업전훈련 수준으로 결과가 산출되었으며, 정서 및 통합대응 수준이 본인의 직업프로그램 수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입방향으로 심리지원, 지역사회 적응행동 및 자립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등이 권고됨. 약 2년 이내의 고용가능성이 84% 이상을 보이고 있어 직업프로그램 최소한의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 고용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팀스터디 19-12

업무효율화를 위한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이해



팀 명	직업지원팀
일 시	2019. 11. 28(17:00~18:00)
발표자	고형식(가족문화지원팀)
장 소	직업지원팀 사무실



노동강제인종차별금지법

업무효율화를 위한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이해

1. 구글 독스

- **Google docs**: 구글 독스, 구글 문서 도구(구글이 제공하는 웹 기반 문서 작성 도구(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등))

- **G 스위트(영어: G Suite)**: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로 클라우드 컴퓨팅 생산성 및 협업 소프트웨어 도구, 소프트웨어 모음이다. 이전 명칭은 업무용 구글 앱스, 기업용 구글 앱스(**Google Apps for Work**)였다.

2. 왜 쓰려고 하는가

한진 "업무는 구글 G스위트로"...조원태發 혁신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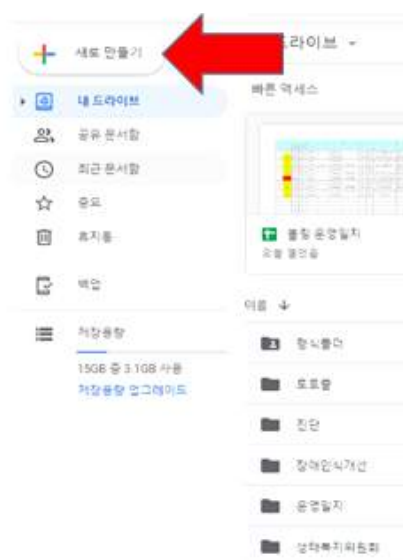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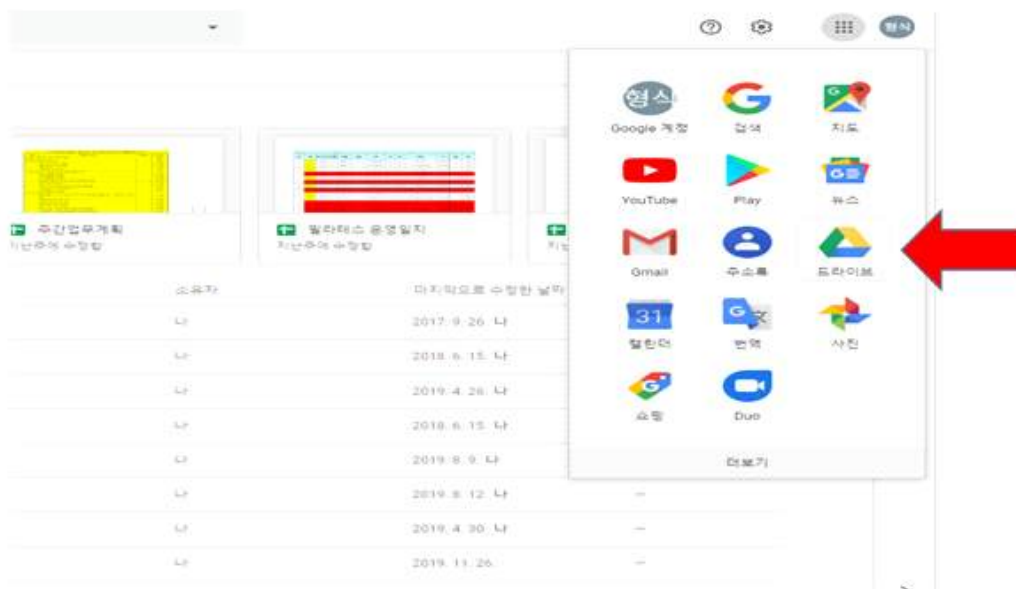
입력 2019.06.26 17:47 | 수정 2019.06.27 01:34 | 지면 A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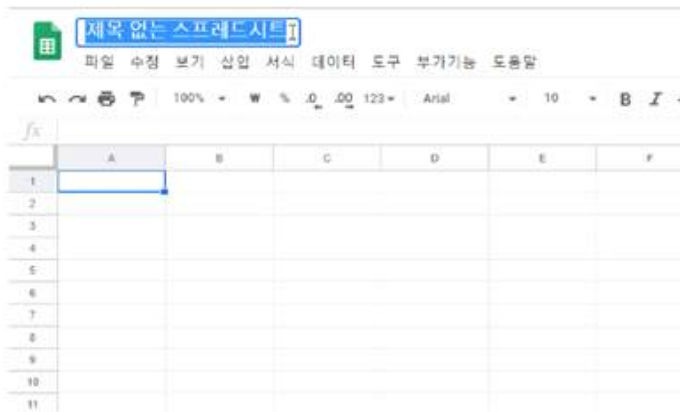
한진그룹이 다음달부터 그룹웨어(업무용 소프트웨어 묶음)를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에서 구글 G스위트로 바꾼다.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를 통해 기동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정보기술(IT) 전문가로 알려진 조원태 회장(사진)의 또 다른 혁신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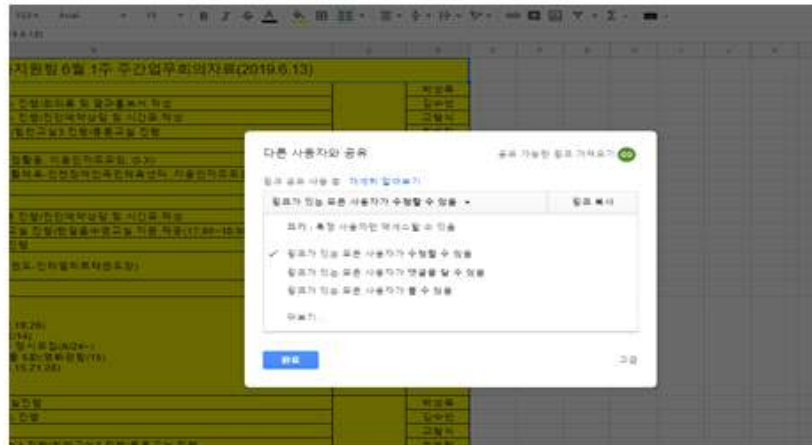
G스위트가 기존 오피스 SW와 구별되는 특징은 공용 저장장치인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는 데 있다. PC에 저장하던 문서와 자료, 데이터를 모두 대용량 클라우드에 담아두고, 권한이 있는 직원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내려받아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종류

- 구글 문서 (한글에 익숙해진 업무환경에서 사용하기 매우불편)
- 구글스프레드시트(엑셀과 상당히 비슷하나 조작방법이 상이)
- 구글 프레젠테이션(파워포인트와 흡사함)
- 구글 설문지(네이버 설문지정도의 연출가능)
- 구글 내지도







4. 비교

스프레드시트

엑셀

스프레드시트

엑셀

5. 현 업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제안

- 주간업무 계획
- 업무 / 운영일지
- 외근 시 급하게 취합해야 하는 정보
- 지원 사업 물품구매시 계산기
- 외부 교육 시 익명 질문

팀스터디 19-13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과 긍정적 행동지원의 이해



팀 명	늘푸른동산
일 시	2019. 12.20
발표자	정 지 은
장 소	늘푸른동산 프로그램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1. ‘도전적 행동’ 용어의 이해

1) 관점의 변화

(1) 문제행동(problem behavior)의 관점

- 장애를 사회가 아닌 개인의 관점으로 보며 도전적 행동을 하는 개인의 문제이며 개인의 기질적 특성으로 생각함

(2) 도전적행동(challenging behavior)

- 도전적 행동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공받는 서비스, 가정 등 주변사회와 환경에 대한 하나의 의사표현 방법.

2) 도전적 행동(발달장애인의 마음표현)의 유형

(1) 회피

- 무엇인가를 하라고 시키면 도전적 행동을 함
- 과제나 활동을 하다가 어려우면 도전적 행동을 함
- 과제나 활동을 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도전적 행동을 함
- 과제나 활동을 할 시간이 되면 도전적 행동을 함
- 지시했던 과제나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면 도전적 행동을 함
- 주어진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힘듦으로 인해 도전적 행동을 함

(2) 관심끌기

- 도전적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봄
- 사람들이 있을 때 도전적 행동이 더 심함
- 주위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반응을 보이면 도전적 행동이 더 오래 가거나 심해짐
- 혼자 있을 때에는 도전적 행동을 보이지 않음
- 이용인에게 오랫동안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혼자 두었을 때 도전적 행동을 함

(3) 요구하기

-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도전적 행동을 함
- 다른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있을 때 달라고 도전적 행동을 함
- 원하는 물건이나 음식 등을 자신이 꺼낼 수 없을 때 도전적 행동을 함
-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빼앗겼을 때 도전적 행동을 함
- 갑자기 늘 하던 일상생활의 패턴을 바꾸었을 때 도전적 행동을 함
- 원하는 것을 주면 도전적 행동을 멈춤

(4) 자기자극

- 때와 장소를 안가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 행동을 함
-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행동을 계속함

3) ‘긍정적 행동지원’ 이란?

협오자극의 사용을 억제하고 문제의 원인을 환경에서 탐색하며 그릇된 행동을 제거하기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고 사후치료보다는 사전예방에 주력하는 지원방법

(1) 응용행동분석(ABA)

- 행동수정 접근법(행동의 원인보다 행동 자체의 감소에 초점을 둔 방법)에서 문제행동을 제거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닌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는데 집중한 응용행동분석(ABA)으로 변화

A(선행사건)	B(행동)	A(결과)
이0범씨가 간식을 받을 때 간식이름을 따라 말한다	간식이름의 첫음절을 소리 낸다	칭찬과 해피트리 스티커(정적 강화)를 준다

- 개인이 행동하는 방식은 기존의 선행사건의 결과이고 이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경험해 온 결과들로 인한 것임
- 담당자는 이용인들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을 학습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선행사건과 결과를 관리**하고 통제해야함.

(2) 생태학적 이론

- 이용인의 행동은 그 사람과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의 기능을 하며 이용인의 입장에서 도전적 행동은 유용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음

(3) 자기결정권

- 성인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강조되며 이용인이 교육적 과정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담당자가 교육계획안을 개발할 때 더 이상 유일한 전문가로 간주되지 않음
-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도전적 행동은 단순히 제거될 수 없고 개개인이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체행동을 모색하여 그것을 수행하였을 때 강화하고자 함

4) 도전적 행동에 관한 사업 예시

<서울시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시범사업>

(1) 사업취지

- 도전적행동으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낮 시간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대상

- 만 19세 이상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거부를 당하거나 이용경험이 없는 발달장애인 50명

(3) 사업내용

- 주4회 일6시간 이용
- 도전적 행동 사정평가(도전적행동 기능평가, 관찰평가, 도전적행동에 대한 개별화 계획수립) 후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에 배치
- 10개의 복지관별 도전적 행동 감소를 목표로한 개별화 프로그램(자기주장 프로그램, 자기주도적 선택활동 등) 제공

(4)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준비사항

- 개별화원칙에 따라 1대1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직원을 선발하여 충원함
- 대상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능분석에 근거하여 1대1 개별화 서비스를 위한 환경정비

(5) <서울시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시범사업>의 의의

- 도전적 행동을 지닌 발달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도
- 응용행동분석과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하여 단순한 보호성태가 아닌 체계적인 행동수정방법을 적용시켜 향후 도전적 행동감소와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를 추구함
- 서비스 사정평가 및 배치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분리시켜 보다 객관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함

2. 기능평가 및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 수립

1) 도전적행동의 정의

- (1) 발달장애인의 도전적행동은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
- (2) 변화 가능한 환경적 요인을 찾아 도전적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도전적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맞는 대처방법을 실시했을 때 문제행동이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
- (3) 환경적 원인평가 과정인 ‘기능행동평가’ 필요

2) 기능행동평가

(1) 기능행동평가의 의미

- 기능행동평가를 통하여 명확하게 도전적행동을 기술
- 자극 통제하는 선행사건과 행동을 유지시키는 결과를 확인함
-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중재방법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정보를 얻게됨

(2) 기능행동평가의 목적

- 환경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므로 문제행동을 내적인 것의 결과로 보기 보다는 뭔가 해결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상황을 변화시키려 했던 결과로 바라봄
- 핵심은 사람을 다루거나 통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새롭게 구성하고 기술을 형성시킴으로써 도전적행동이 그러한 환경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비효과적이며 무관하도록 만드는데 있음

(3) 기능행동평가의 내용

가. 문제행동에 대한 기술

- 도전적행동에 대한 조작적정의를 통해 도전적행동의 실제적 발생, 지속시간, 강도 등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함

문제행동	데이터 기록방법	문제행동의 조작적 정의
울음	회수 및 지속시간	큰소리의 울음이 10초이상 지속되는 행동, 울음이 멈추고 10초 후에 다시 울기 시작할 때에는 서로 다른 울음발생 회수로 기록한다
공격행동	발생회수	다른직원에게 힘을 줘서 때리는 시도로 할퀴기, 발로차기 등 한번 공격행동이 발생할때마다 1회 발생 회수로 기록한다

나. 문제행동을 유지시키는 후속결과

- 기능행동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도전적행동을 유지시키는 후속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함

- 도전적행동의 후속결과는 정적강화, 부적강화로 구성됨

* 정적강화 : 감각적자극의 획득(몸흔들기, 머리흔들기 등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극), 사회적활동 및 보상 획득(맛, 신체적접촉, 꾸중이나 신체적 제재까지 포함하는 관심과 관련된 정적강화의 형태), 유형적활동 및 보상획득(음식물이나 장난감을 획득)

* 부적강화 : 감각자극의 회피(배고픔 또는 다른 상황으로 인한 고통의 일시적인 대체), 사회적활동 및 보상 회피(원하지않는 관심으로 기능하는 모든 요인포함), 과제와 사건의 회피(어려운과제, 일과의변화, 신체적인 접촉으로부터 회피)

- 강화는 개별적인 것으로 언어적 훈계는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정적강화가 되는 반면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혐오적인 강화가 될 수 있음

- 도전적행동을 조절하고 대체행동을 개발할 때 행동의 방식보다는 행동의 기능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

ex) 커피를 1시간에 한번씩 마시는 이용인의 경우 무조건 커피를 끊기보다 커피를 마시는 횟수를 줄이면서 커피향 방향제를 맡게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다.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자극

- 기능행동평가의 정보에는 문제행동과 관련된 선행사건과 선행사건의 조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선행사건은 강화물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행동이 발생할 기회로 작용함

ex) 오늘 활동을 열심히하는 사람은 해피트리스티커를 줄게요

라.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배경사건

- 결핍이나 포만상태는 배경사건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특정시기에 강화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직접적으로 행동 유발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선행사건과 다르며 선행사건이 행동을 촉발할 가능성을 높임

- 배경사건을 파악할 경우 도전적행동을 예측하거나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됨

배경사건		
생리적	환경적	상황적
약물	소음/혼란	개인적변화
질병	혼잡	기관휴업/휴일
피로	활동장면이나 활동구조	일상의변화
배고픔	좌석배치	교실 이동
고통		동료와의 싸움
		성인과의 말다툼
		성인의 질책

(4) 기능행동평가의 실행절차 및 방법

가. 실험적 방법(행동치료 전문가가 하는 방법)

- 도전적행동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사건이나 후속결과 혹은 두가지 모두를 체계적으로 조작해보는 것

① 기능분석 : 직접적으로 문제행동을 통제하는 후속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행동을 유지시키는 후속결과의 조작을 강조

② 구조분석 :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사건을 조작하는데 더 중점

나. 직접평가방법

- 행동의 기능과 관련있는 실제적인 관계진술을 밝히기 위해 직접관찰을 함. 직접 클라이언트를 관찰하면서 도전적행동의 유형, 강도, 지속시간, 빈도를 파악함

① A-B-C 관찰(응용행동분석)

	선행사건(A)	문제행동(B)	후속결과(C)
설명	행동이 일어나기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행동을 하였나?	행동이 일어난 후 어떤 일이 있었나?
예시	같은반 동료들이 작업물을 가져다가 맞추고 있었다. A씨가 옆으로 다가가니 동료들이 방해된다고 말하였다	A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작업물을 다 흩어놓았다.	동료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담당교사에게 말하였다. 담당교사는 A씨가 동료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하였다.

다. 간접평가방법

-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도전적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다양한 정보를 고찰함으로써 짧은 시간동안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음

① 의뢰정보와 기관기록 : 클라이언트의 이전 기관 담당교사나 의뢰한 사람을 통한 정보수집. 하지만 의뢰정보나 예전기관의 기록은 도전적행동의 발생과 관련된 배경사건, 선행사건, 후속결과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함

② 행동평정척도와 체크리스트 : 동기사정척도(도전적행동의 기능이나 동기를 찾기 위한 16가지 항목의 설문지/관찰자간 신뢰도가 낮고 실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있음), 행동적 기능에 대한 질문지(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적행동 결과와 도전적행동의 메시지를 다름/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님)

③ 면담 : 클라이언트의 도전적행동에 대해 잘하는 가족과 전문가에게 직접 면담하며 도전적행동에 대한 물리적 기술, 도전적행동의 발생이나 비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 도전적행동이 유발하는 다른사람의 반응을 질문함

3.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방법

1) 문제행동에 대한 후속반응(중재의 적용)

(1) 후속결과 중심의 실행

: 담당자가 선행사건 중재와 대체행동 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이 일어날 수 있음.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대한 담당자의 반응은 그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음.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적강화는 긍정적 행동지원의 주요 특징

*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선행사건 조절

① 시설내에서 3개 이내의 규칙세우기 (이름표세우기, 시간지키기)

② 자리바꾸기, 불필요한 물건 치우기 등 물리적환경 조절

(2) 강화

: 강화란? 행동과 후속결과 간의 관계, 행동의 빈도, 비율, 강도, 지속시간 또는 형태를 증가시킴. 강화제는 강화과정을 통해 강화제로서의 효력을 가져야 함(ex. 해피트리 스티커를 한달동안 많이 받은 사람이 원하는 간식을 직접 선택하여 먹음으로써 해피트리 스티커가 효과적인 강화제가 되기까지의 경험을 거쳐 강화제가 됨)

① 일차강화제 : 자연적으로 강화되며 자폐성 장애의 상동행동

② 이차강화제 : 사회적강화제, 활동강화제, 물질강화제, 토큰강화제

* 긍정행동지원에서는 사회적강화제와 활동강화제를 주로 사용

(3) 적절한 행동에 대한 강화전략

① 칭찬 :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며 긍정적인 목소리로 칭찬함

② 토큰경제 : 긍정행동지원에 중요한 전략으로 가치가 없는 토큰이 가치있는 것으로 교환됨. 스티커 혹은 별표 등으로 토큰을 결정하고 얼마나 자주 토큰을 줄 것인지 교환 강화제로 어떤 보상을 결정할 것인지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어떤 행동을 해야 토큰을 받게되는지 가르치고 습득한 토큰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결정해야함

③ 행동계약 : 클라이언트와 담당자의 역할이 기록된 서면 합의서로 클라이언트가 수행해야하는 행동의 양과 계약기간, 담당자가 목표행동을 지원강화하는 방법과 형식은 간단하게 기술함

* 순서 : 대상결정, 목표행동 선정, 목표행동에 획득할 수 있는 강화제 결정, 강화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설정, 분명한 언어로 내용기술, 클라이언트의 서명, 특정 시간에 계약서 재검토, 갱신, 수정, 종료의 반복

④ 프리맥의 원리 : 선호도가 낮은 활동 뒤에 선호도가 높은 활동 제공

⑤ 집단강화체계

-독립적 집단강화 : 강화의 획득은 개별학생의 수행에 따라 발생됨

-상호의존적 집단강화 : 공동의 강화제를 위해 함께 수행,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모든 클라이언트가 도달하도록 함

-의존적 집단강화 : 집단 내 특정 1명 이상이 수행에 따라 발생됨. 도전적 행동이 많은 클라이언트가 문제적 인물에서 주목받는 역할이 됨

(ex. 도전적행동이 두드러지는 한명이 잘하면 모든 이용인이 토큰을 받도록 함)

⑥ 자기강화 : 자기관리 과정을 완성시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기준을 학생이 결정하도록 하며 의존성이 많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임

(4) 행동감소전략

: 클라이언트의 도전적행동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강화제를 통한 감소에 목적이 있음

① 차별강화 : 도전적행동이 보이지 않을 때 강화하거나 선정된 대체행동을 강화하여 도전적행동을 감소시킴

- 상반행동 차별강화 : 상반된 행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음

- 대체행동 차별강화 : 프로그램시간에 누워있고 싶은 A씨에게 누워있어도 좋다고 말하지만 앉아서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토큰을 제공하는 차별강화법

- 저빈도 차별강화 : 점진적인 행동감소 변화세에 강화물을 제공

- 타행동 차별강화 : 특정 클라이언트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여 차별강화물 제공

② 소거(강화 철회하기) : 강화를 통해 유지된 행동에 대해 강화를 철회하는 것

- 소거를 적용한 행동은 지속적으로 소거를 적용해야 함

③ 반응대가 : 특정한 행동 발생에 수반하여 일정량의 강화제를 철회 및 제거

- 반응대가 활용시 클라이언트가 강화제 혹은 토큰을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함 (ex.해피트리스티커를 제거해야할 때 모두 다 제거하지않고 1,2개는 남겨놓는 것)

- 클라이언트와 사전에 결정된 행동에 대해서만 반응대가 실행하며 실행전에 클라이언트와 보호자에게 설명필요

- 제거할때는 단호한 어투로

④ 타임아웃

- 사전에 정해진 시간 동안 강화물 접근차단하며 시간은 짧게 설정함

- 끝내는 방법 : 사전에 정해진 시간 동안 적절한 행동을 보일 때, 사전에 정해진 시간, 사전에 정해진 시간이 되고 부적절한 행동이 없을때

(5) 혐오자극제시

: 긍정행동지원에서 기피해야하는 방법으로 '무조건 혐오 자극-체벌', '조건 혐오 자극-질책, 잔소리'이 대표적임

① 과잉교정

- 원상회복 과잉교정 :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거나 본래의 상태로 복구

(ex. 자신의 사물함에 사진을 다 찢는 경우 다시 복구하도록 교정)

- 행동 연습 과잉교정 :적절한 대체행동을 연습함
- 과잉교정은 다른 모든 접근이 비효과적이었을 때 사용하며 지도시간이 오래걸리는 단점과 부적절한 대체행동을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음. 그리고 도전적 행동 시 도전적행동과 관련없는 운동반응(윗몸일으키기 등)이 효과적이지 않음.

(6) 후속결과 조절 시 유의점

- 별의 사용에 보수적이어야하며 고통과 모욕감을 주는 성격을 배제해야함
-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교수적 프로그램과 계속적인 행동지도가 필요함
- 이용인과의 신뢰관계가 바탕에 있어야하며 공정하고 일관적이며 즉각적으로 개입해야함
- 대체행동지도 전에 시도하고자 하는 대체행동을 지도받은 적이 있는지, 동기적인 요인 때문에 실행 못하는 것인지 파악해야 함

4. 긍정 행동지원 적용사례

1) 가정에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① 대상자정보

- 만 5세/남/발달장애/산만하게 돌아다니기, 바닥에 눕기, 동생 공격하기, 물건던지기, 지시내용 따르지 않기

② 목표행동 설정

- 어머니가 식사준비를 하는 시점, 저녁시간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도전적행동에 초점을 맞춤
- 식사시간에 도전적행동 횟수를 양적측정하여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함

③ 기능적 행동평가

가. 기록의 검토

- 초기상담, 사회진단, 언어진단 등의 기록을 점검하며 가족상황, 경제상태, 건강상태, 자원체계, 의학적내력, 장애특성 등의 전반적인 정보얻음

나. 부모면담과 행동평정척도 실시

- 어머니와 개별상담 시 부모면담지, 대상행동 정의를 위한 기록지, 문제행동 발생조사지 사용하여 조사
-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정확한 대처방법을 알지못한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가족전체 생활에 영향을 주고있다는 것을 알게됨

다. 직접관찰

- 일상생활을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하여 관찰

라. 직접관찰에서의 응용 행동분석(A-B-C)

선행사건(A)	도전적행동(B)	후속결과(C)
TV를 틀어줌	바닥에 힘없이 누워있고 부모의 지시를 듣지않음	말로 꾸짖으며 아동이 보고 있는 TV를 꺼버림
동생과 함께 놀게함	바닥에 누워있다가 동생을 따라 돌아다님. 동생에게 침을 뱉거나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함. 물건을 바닥에 버리고 벽을 두드리며 머리를 부딪침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말하며 제지함. 저녁식사 준비를 하지못하고 아동 옆에서와 벌을 세우거나 혼냄

④ 부모님과 합의된 가설설정

가. 도전적행동의 기능분석 결과

-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관심을 끌기 위하여 도전적행동을 보임
- 동생과 함께 놀고 싶어서 도전적 행동을 보임

나. 중심가설

- 동생과 의미 있는 놀이활동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도전적행동은 감소할 것임
- 혼자서도 장난감을 의미있게 조작할 수 있을 때 도전적행동은 감소할 것임

⑤ 선행사건 조정

중다요소	긍정적행동지원	세부내용
선행사건 조정	환경조정	-현관옆에 대상자의 사진이 부착된 시각일정표와 놀이선택판을 붙임. -놀이선택판에는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부착되어 있음 -대상자만을 위한 전용의자를 비치함 -시간에 따라 정한 놀이를 다한 후 붙였던 놀이카드를 떼어 수납할 놀이수납장을 놀이선택판 옆에 비치함

⑥ 대체행동 교수

중다요소	긍정적행동지원	세부내용
대체행동교수	언어적표현지도	-대상자 : 동생과 놀이를 함께 하기위해 놀이요청을 할 수 있는 몇가지 언어적 표현을 그림카드를 통하여 연습시키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그림카드를 통하여 연습함 -동생 :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그림카드 및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연습시킴
	놀이지도	-동생과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연령수준에 맞는 놀이지도를 실시 -동생이 없어도 혼자서 의미있는 놀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좋아하는 놀이도구를 활용하여 연습

	자세지도	-누워있는 자세를 줄이기 위하여 잠자기 전에는 꼭 대상자의 의자에 앉아서 모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	--

⑦ 결과중재

중다요소	긍정적행동지원	세부내용
결과중재	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신체적 접촉과 함께 언어적으로 칭찬함 -시각일정표에 예정되어 있던 대상자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함
	도전적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시각일정표에 예정되어 있던 동생과의 놀이 후 대상자가 좋아하는 TV프로그램 시청 카드를 일정표에서 떼고 보여주지 않음

⑧ 결과 및 도전적행동이 감소 후 유지된 이유

가. 결과

- 대상자를 위한 가정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통하여 도전적행동인 감소됨
- 대상자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의 효과가 종료 4주 이후에도 유지됨

나. 도전적행동이 감소된 이유

- 중다요소 중재(선행사건, 대체행동, 결과중재)를 실시하였고 가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일과 중에 중재가 삽입됨
- 시각적 도구들이 대상자의 이해를 돕고 가족 전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음

다. 도전적행동이 중재종료 이후에 유지된 이유

- 놀이자체가 주는 긍정적 효과가 다른 중재보다 컸기 때문이고 가족의 태도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내에 상호작용이 개선되었고 긍정적 상호작용이 지속됨

라. 의의

- 가족이 의미있는 중재로서 대상자의 도전적행동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가족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함

2) 시설에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① 대상자정보

- 만 25세/남/자폐성장애/활동거부하기, 소리지르기, 타인을 깨물고 주먹으로 치거나 넘어뜨림, 자신의 머리 때리기, 하루종일 PC 태블릿 보기

② 목표행동 설정

- 시설활동 중에서 단체활동을 하는 시간, 담당자가 집활동 진행해야하는데 대상자에게 신경쓰느라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도전적행동에 초점을 맞춤
- 활동거부하기, 담당자 밀기, 소리지르기 등 도전적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함

③ 기능적 행동평가

가. 기록의 검토

- 초기상담, 사회진단, 언어진단 등의 기록을 점검하며 가족상황, 경제상태, 건강상태, 자원체계, 의학적내력, 장애특성 등의 전반적인 정보얻음

나. 기능평가면담지, 도전적행동 발생동기 평가조사지(MAS) 실시

- 기능평가면담지를 통해 도전적행동이 발생하는 상황, 도전적행동에 대한 담당자의 반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에 대해 기재함
- 도전적행동 발생동기 평가조사지를 통해 대상자가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과 단순히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한 2가지 변인이 도전적행동의 이유로 파악됨

다. 직접관찰에서의 응용행동분석(A-B-C)

선행사건(A)	도전적행동(B)	후속결과(C)
스타렉스 앞에 울며 서있음	울다가 앞에 서있는 직원을 때리고 옷을 벗는 모습을 보이며 직원의 말을 듣지않음	혼자있는 시간을 주어 안정이 되도록 기다린 후 옷을 입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귀가함
태블릿 PC 앞에 놓고 앉아있음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드는 상동 행동을 함	혼자 있는 시간을 주어 안정을 지원하고 대화를 통해 전환함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음	프로그램시간이 되어 참여를 권하 자 ‘안해’라고 거부한 후 직원을 밀거나 세게 잡는 모습을 보임	거부가 심할 경우 참여하지 않도록 함
퍼즐활동을 함	퍼즐을 모두 맞춘 후 정리를 하자 고 하자 표정이 굳어지며 정리된 퍼즐을 다시 엮는 모습을 보임	퍼즐을 다시 모두 맞춘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자고 하니 거부는 하지만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④ 담당자와 합의된 가설설정

가. 도전적행동의 기능분석 결과

-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 도전적행동을 함
- 주어진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도전적행동을 함

나. 중심가설

- 대상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할 경우 도전적행동이 줄어들 것임
- 감각적인 활동을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이 이뤄질 경우 도전적행동은 줄어들 것임
- 타인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하면 도전적행동은 줄어들 것임

⑤ 선행사건 조정

중다요소	긍정적 행동지원	세부내용
선행사건 조정	환경조정	-현관옆에 대상자의 사진이 부착된 시각일정표를 붙임. -시각일정표 아래 일정표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붙임 -적절하게 놀이를 요청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매일 센터에 오면 틀어주고 모델링을 함 -별도의 공간에 트램폴린을 비치함

⑥ 대체행동 교수

중다요소	긍정적행동지원	세부내용
대체행동교수	언어적표현지도	-대상자 : 혼자서 쉬고싶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몇가지 의사소통을 언어적 표현 혹은 그림카드를 통하여 연습함
	운동지도	-소리지르고 높이뛰는 것을 감각적으로 즐기기 때문에 집단활동에 방해가 되지않는 공간에 트램폴린을 놓고 운동하기를 하도록 함
	자세지도	-대상자의 사진이 담긴 의자에 앉아 정해진 과제를 마칠 때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함(가정과 연계)

⑦ 결과중재

중다요소	긍정적행동지원	세부내용
결과중재	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신체적 접촉과 함께 언어적으로 칭찬함 -시각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활동을 시간 안에 하였을 때 대상자가 좋아하는 운동하기를 함
	도전적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시각일정표에 예정되어 있던 활동 이후에 대상자가 좋아하는 운동하기를 일정에서 빼면서 대상자에게 선호하는 활동을 하지못하게 함

⑧ 종합평가

가. 교육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도전적행동이 의사소통의 표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됨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게 나옴

나. 중재 회기의 연장필요성

- 중재과정 및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만족도가 나타남.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나 짧은 중재기간이 아쉬움

다.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

- 대상자들의 중재내용을 사례발표 형식으로 공유하여 교육을 단기성으로 끝내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함

교수님TIP. 시설에서의 긍정행동지원 활용방법

가. 1차 예방 : 시설 내 모든 이용인을 대상으로하며 적절한 행동을 교수하고 인식 시킴으로써 행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 모든 이용인들의 적절한 행동 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문제행동을 예방하고자 함

나. 2차 예방 : 도전적행동을 보일 위험에 있는 소그룹 학생의 요구에 대한 보다 특수한 중재를 제공하여 도전적행동 발생 수를 감소시키고자 함

다. 3차 예방 : 도전적행동의 강도가 높은 소수의 이용인을 대상으로하며 현재 도전적행동의 강도와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센터 내의 전체적인 환경조정 및 규칙 정하고 시각일정표를 반별로 하나씩, 개별적으로 선택판을 제작하여 무료한 시간을 보낼 때 나타나는 도전적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함

- 프로그램 진행 중 전체 구성원을 중심으로 집단과 개별적 접근이 필요한 이용인을 구별하고 개별적 접근이 필요한 이용인을 중심으로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을 세우고 가정과의 연계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텀스터디 19-14

다양성과 인권



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17:00~18:00
발표자	류수진
장 소	열린일터 프로그램실



열 린 일 터

I 인권의 정의와 인권보장의 역사

1. 권리(Right)란 무엇인가?

- 고대부터 객관적이 옳고 정의로운 어떤 상태를 뜻함.
-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은 질서, 선을 이기고 악이 단죄되는 상태를 dikaion
- 중세 이후 인간이 마땅히 행사하고 요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떤 특별한 자격
- 번역하면서 정직, 도리, 당연, 면허, 권의, 공평, 진실, 권세 등으로 되다가 권리로 통일, 우리나라에서는 1880년대 후반부터 쓰이기 시작
- 權利(권세+이로움) : 원래 도덕적이고 반권력적이고 장중한 어감을 가진 Right 개념이 권력과 이익, 힘의 느낌을 주는 '권리'로 번역되면서 본뜻이 왜곡되어 전달 됨.

2.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권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기본적 권리
- 다름을 인정, 존중
- 귀족, 재산을 가진 남자, 노동자, 여자, 장애인, 아동, 흑인, 성소수자 등 모두를 포함.
- Rights of man → Human Rights(1948년)

3. 인권의 종류

- 자유권 :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 기본권과 권리와 차이점 : 권리>인권>기본권

4. 인권의 특성

- 천부인권, 자연권, 보편적 권리, 불가침의 권리

5. 인권보장의 역사적 전개

1) 근대 이전

- 왕과 소수 귀족은 많은 특권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 평민은 신분제 체계 속에서 부당한 억압과 차별, 왕권신수설

2) 근대시대(18세기 후반)

- 시민혁명 : 신분제 사회의 차별과 억압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 증가, 천부 인권 사상의 확산 등의 시대적, 사상적 배경에서 발발
- 시민혁명의 결과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보장

- 시민혁명의 한계 : 부르주아 혁명
(재산을 가진 남자들만 인권을 획득 - Right of man)

3) 18세기 산업 혁명 이후 : 자본주의 모순 속에서 국가개입의 필요성 증대

-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 문제 발생
- 국가 개입 필요성 증대

4) 20세기 초 : 사회권 보장

- 사회권 :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권리
- 사회권의 종류 :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
- 사회권의 보장 과정 :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년)에서 최초로 보장, 세계인권선언(1948) 규정

5) 20세기 중반 이후 : 연대권(집단권)의 등장

- 식민지에서 독립한 민족들이 자결권을 요구하고 여성, 장애인, 아동, 난민 등의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연대권(집단권) 등장
- 연대권의 종류 : 자결권, 평화의 권리, 발전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인류 공동의 유한 보호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6) 인권 발달 관련 문서 및 인권의 확대

- 영국 대헌장(1215) : 국왕의 절대 권력을 최초로 제한, 국민의 인권 보장 발판
- 영국 명예혁명(1688)
- 영국 권리장전(1689) : 명예혁명 이후 국왕의 권력 행사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 미국 독립선언(1776) : 천부 인권, 저항권 명시
- 프랑스 인권선언(1789) : 시민의 권리를 자유권, 재산권, 저항권 등으로 규정
- 1830년대 선거권 확대 운동 : 차티스트 운동
-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권 등 최초로 사회권 규정
- 세계인권선언(1948) : 인권이 전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임을 선포하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을 세계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할 인권의 기준으로 규정
- 68혁명 : 학내 문제로 시작된 시위는 미국의 베트남 침략과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에 항의하는 시위로, 기성세대와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혁명으로 발전

II. 인권의 가치와 원칙 :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인권적 관점

1.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	특권그룹	억압그룹		차별의 이름
		경계그룹	억압그룹	
인종	백인	백인 혼혈인	유색인종	인종차별 백인우월주의
민족 (한국에서외 인종)	“순수” 한국인 (부모님 두 분 모두 한국인)	피부색이 밝은 혼혈인	피부색이 어두운 혼혈인, 유색인종	민족우월주의 단일민족신화
성별	남성	간성	여성	미소지니 남성중심주의 가부장제
성별정체성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앤드로지너스, 중성적/양성적	트랜스젠더	시스젠더주의 트랜스포비아
성적지향	이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무성애자	동성애자 (제이, 레즈비언)	이성애주의 동성애혐오 호모포비아
나이	장년층 (40대, 50대)	청장년층 (20대, 30대)	아동청소년, 10대 노년	나이차별 나이권력
지역	서울	수도권, 지방 대도시	시골산간지역, 지방 도시, 전라도 이혼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서울중심주의 지역차별주의
가족의 형태	“정상” 가정 (부+모+자녀)	동거, 비혼, 코하우징	이혼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정상가정이대울르기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상한 종교 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종교)	무속신앙 무교(무신론자)	무슬림, 유대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통일교, 종산도 등	정통종교주의
장애	(일시적) 비장애인	일시적 장애인, 숨길 수 있는 장애인	장애인 (지체장애, 지적장애,정신장애, 발달장애,뇌병변장애 등)	비장애중심주의 장애차별
소득/경제력 (고용의 형태)	재벌, 부자, 상위계층	중산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정규직 등	자본주의 사회계층주의 물질만능주의
외모	잘생긴, 예쁜, 몸짱외, 날씬한	보통 얼굴/몸매, 경범한	못생긴, 뚱뚱한, 장마른 등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 **특권그룹** : 단순히 자신이 속한 사회적 정체성 그룹 때문에 부, 명성,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기 더 쉬운 사람들을 말함. 사회 규범에 맞는 보편적인 존재로 인정받으며 ‘정상’이라고 여겨짐. 또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기회를 많이 부여함.

- **억압그룹** : 단순히 자신이 속한 사회적 정체성 그룹 때문에 부, 명성,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함. 사회규범에 맞지 않는 ‘비정상’으로 여겨짐.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기회를 많이 박탈당함.

- **경계그룹** : 상황(때와 장소 등) 혹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위치가 가변적인 사람들을 말함.

※ 시대, 상황, 장소, 개인의 기준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님.

2. 인권공식

- 인권 :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하게 가지는 권리
- 인권공식 : A가 B에게 C를 근거로 D를 요구한다.
(A : 권리의 주체, B : 의무의 주체, C : 권리의 근거, D : 권리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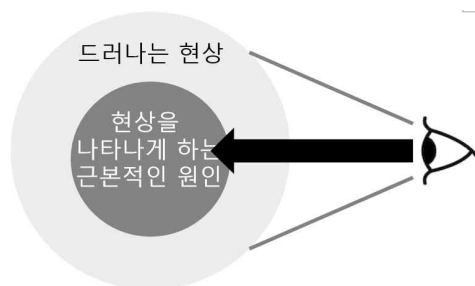
3. 인권의 기준

- 가장 약한 사람이 기준이어야 모두가 포함됨.
- 약자나 소수자를 위한 기준이 아닌 나를 위한 기준임을 알아야 함.

4. 차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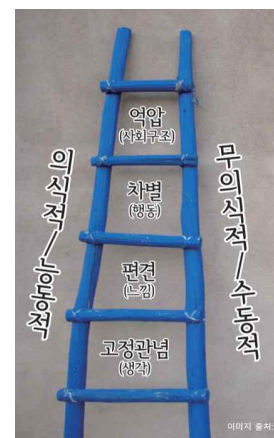
- 차이가 차별이 되는 권력구조를 바라보아야 함.
- 권력 : 남성중심, 비장애인 중심, 이성애자 중심 등



- 차별, 혐오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함.

- 차별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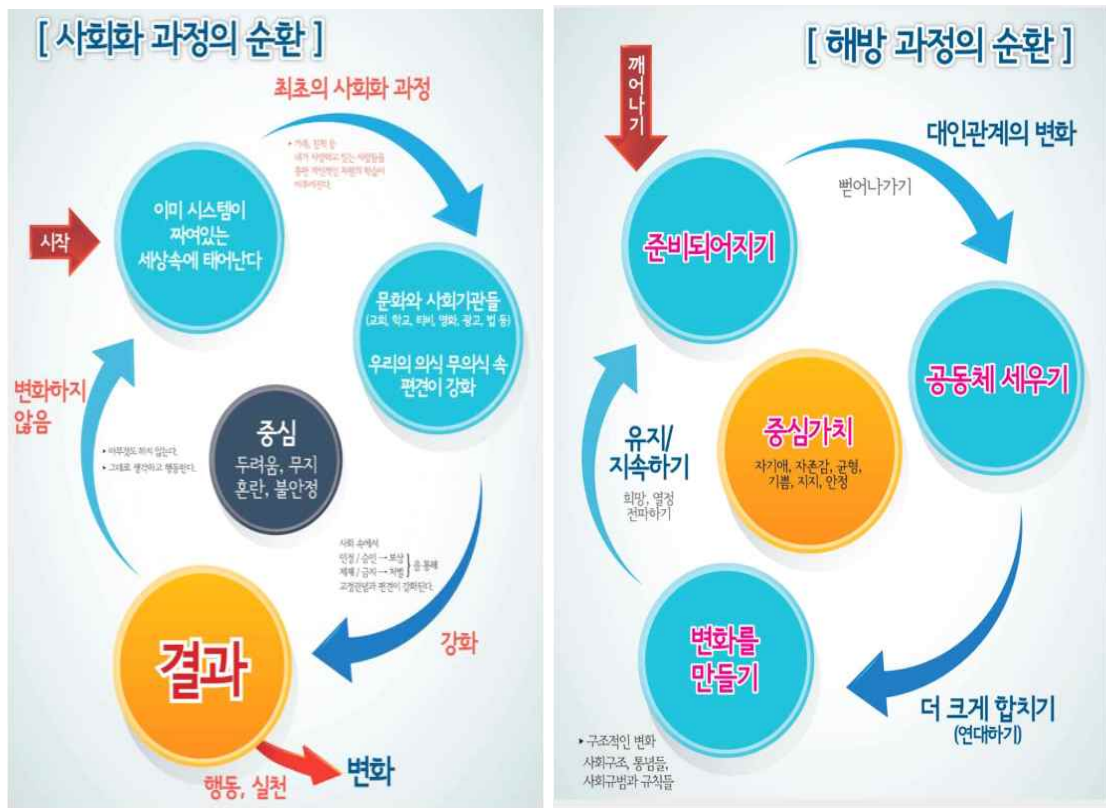
- ‘차별은 ‘사람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이다.’
- ‘아동, 청소년을 차별하는 사회는 장애인도 차별한다.’
- ‘장애인을 차별하는 세상은 성소수자도 차별한다.’
-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세상은 여성도 차별한다.’
- ‘소외, 배제, 차별, 억압, 폭력의 기재와 구조는 동일하다.’



5. 다문화 사회의 다양성

- 우리 모두 다문화이다. 우리 모두 서로 다 다르지만,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6. 사회화 과정 / 해방과정



Ⅲ. 아동청소년과 인권 : 나이차별과 나이권력

1. 나이 차별 특징

- 모든 사람이 다 겪음
- 관계에 따라 위치와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느끼지 못하기도 함.
- 당연하거나 공평한 것이라고 느끼기도 함.
- 서열화, 집단화를 만들.
- 구조적 차별과 억압을 재생산함.

2. 혐오란 무엇인가?

- 감정, 감각 : 포비아(phobia), 비과학적, 비이성적 공포
- 사회구조 : 사회 구조적 차별, 억압, 폭력

3. 나이로 인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

- 급식충, 툇딱충(연금충) : 자본주의적 논리로 정당화,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판단
- 노인 혐오 : 경제력과 사회계급과 연관, 경쟁에서 밀려 사람 대접받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약자와 나를 분리하는 타자화
- 청소년 혐오 :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라는 관념,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믿음, 그 반대는 적용되지 않음.

4. 호칭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까?

- '내가 선배니까 말 봐도 되지?' → 수평적 소통이 가능할까?
- 호칭과 경어 : 예의 이면에 권력관계 형성
- 나이라는 권력을 지탱하는 축 : 천박한 자본주의, 군대문화, 언어(존칭), 집단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서열 문화

5. 체벌, 맞을만해서 때렸다?

- 교육, 훈육이라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음 → 폭력
- 가정폭력특별법 개정 필요 : 가해자 처벌이 아닌 가정을 지키는 목적이 우선, 가해자 처벌 미약(훈방, 합의)하므로 신고율(연인관계 7%, 혼인관계 0.3%)이 매우 낮음.

6. 교권을 침해하고 보장되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 원인 : 12년 학교 교육의 목표는 입시, 경쟁과 암기 위주의 교육, 대학 서열화로 교사의 수업 구성권이 없는 것 자체가 교사의 교권 침해임.
- 해결방안 :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구조, 즉 노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함. 학교교육은 함께 살 수 있는 교육, 시민교육, 협력 교육으로 나아가야 함.

IV. 장애인과 인권 : 비장애인 중심주의와 장애차별

1. 사회복지와 인권

- 보호 프레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2. 장애인에 대한 3가지 고정관념과 편견

- 장애인은 배려 받아야 하는 사람(시혜적 관점, 선별적 복지)
- 장애는 극복해야 할 어려움 : 장애 포르노('나는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도구가 아니다')
- 장애인은 무서운 사람 : 범죄의 가해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무서운 사람

3. 한국형 (장애)홀로코스트
 -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 태아장애선별검사(태어나지 못하게), 이동, 교육, 직업 차별 및 배제(함께하지 못하게)
4. 구조적 억압 철폐
 -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복지 :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폐지, 커뮤니케이션, 장애인차별금지법

V. 여성과 인권 : 성차별과 성평등

1. 미소지니(Misogyny) - 고대 그리스어 misos(혐오) + gune(여성)
 - 여성은 열등하고 위험한, 특별한 존재, 성적 도구화, 대상화
2. 미소지니 사회에서 드러나는 특징
 - 가부장제, 남성중심주의, 남성우월주의, 성차별(남녀포함)
3.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남성혐오’는 불가능하다.
 - 여성혐오는 구조, 남성혐오는 감정의 영역. 즉 등치에 놓고 비교할 수 없음.
4.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자신의 몸,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고민, 탐구할 수 있도록 함.
 - 성관계에는 현재 시점의 적극적이고 수평적인 동의가 필수 조건임.
 -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콘돔을 반드시 사용함.
 -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대해서 교육함.
 - 임신 중단 방법, 선택, 결과에 대해서 교육함.
 - 출산 후의 몸의 상태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교육함.
 - 육아의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교육함.
 - 아이를 원하는 사람은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듦.

VI. 성소수자와 인권

1. 동성애에 대한 오해와 진실
 - 1) 동성애는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 이런 질문 자체가 차별적인 질문임. 동성애가 성장과정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이 있지만 연구결과, 아직 어떤 사람이 왜 성소수자가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함.
 - 성별이 이분법적으로 나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져 있으며 살면서 정체화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동성애는 쾌락을 위한 선택이다?

- 동성애자들이 더 큰 쾌락과 성적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동성애를 선택하다면 왜 멸시와 차별, 천대, 폭력을 당하는 힘든 길을 선택하겠는가? 이성애자가 되기로 선택한 순간이 있었는가? 그저 누군가에게 끌리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진 순간이 있었을 뿐임.

3) 동성애는 정신병이다?

- 1973년 미국심리학회에서 정신병 목록 삭제
- 1992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삭제

4)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다?

- HIV : 원숭이가 보유한 바이러스가 체액(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을 통해 감염

- AIDS : HIV에 감염된 후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면역 결핍 증후군임. HIV와 AIDS는 다름. HIV는 자연 발생하지 않음. 동성애자들 이성애자들 HIV 감염인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감염되지 않음.

※ 에이즈를 퇴치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 국가가 적극적으로 콘돔 사용의 필요성 교육
- 국가는 HIV와 에이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 무지와 차별, 공포의 사슬을 끊어야 함.
- 국가는 모든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무료 HIV 신속검사 제공하여 감염인이 최대한 빨리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5) 차별할 자유와 혐오할 권리를 억압하지 마라?

- 우리 모두는 인권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의무가 있음.(세계인권선언문 제 29조)
-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 없음.
-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기준에 따른 ‘정상성’ 강요할 권리 없음.
- 다른 사람의 인권, 다양성,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의 인권, 다양성,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함.

7. 종교와 성소수자 [‘인권옹호자 예수’ - 김지학]

‘종북몰이에 심취한 이들이 북한을 필요로 하듯이 한국의 보수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필요로 한다. 대형 교회 목사들의 교회 사유화, 횡령, 세습, 성폭력, 논문 표절

등의 사기, 각종 범죄와 타락한 행동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권층의 죄(재벌, 재벌 언론, 재벌에 기생하는 정치인 등의 탐욕과 그 탐욕으로 빈곤을 만드는 사회 구조)를 경고하고 노동자 탄압, 경제적 살인, 환경 파괴, 인권과 민주주의 파괴 등에 목소리를 내는 대신 술이나 담배 같은 기호식품이나 성을 죄악의 대표로 삼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성애자들의 성 인권 이슈(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는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결혼제도와 가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정폭력(배우자와 아동을 향한 폭력)을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8. 성소수자 지지자 가시화 운동 : 앨라이(지지자, 옹호자) 되기

- 비온뒤무지개재단 ‘나는 앨라이입니다.’ 캠페인 : 자신이 성소수자 인권의 지지자임을 선언하고 주변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운동임.

-인권 운동은 주로 억압그룹에 속한 당사자 운동이 많은데 억압그룹에 속하지 않는 특권그룹 사람들이 지지와 연대를 표현하는 것임.

VII. 인권교육가의 자세

- 학습, 사유, 반성, 존중, 경청, 지지, 공유

- 비폭력 대화의 기술 :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함.

1. 경청한다.

-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들음.

2. 동의한다.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

3. 정보를 추가한다.(‘그리고’ 사용)

- “그리고 어떤 교수님이 그러는데..”

- “그리고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 있더라..”

- “그리고 이런 관점도 있더라..”

VIII. 소감

현장 사회복지사로서 연간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받아왔지만, 인권의 개념은 모호하고 체계적인 공부が必要하여 15주 과정의 인권교육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차별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나의 무지함으로, 또 생각없이 자동적으로 생겨버린 편견들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교육 중에 왜 이렇게까지 무지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개인적 관심이 좁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사회복지 전공과정과 보수교육 과정을 포함한 교육안에서 체계적인 인권교육 과정이 부재했음을 알게 되었다. 최근에서야 ‘사회복지와 인권’ 과목을 법정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되고 있다는 실정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교육을 들으며 특별히 사회적 정체성, 나이차별, 성소수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첫째,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특권그룹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스스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있지는 않지만 특권그룹이라고도 인식하지 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현재의 나는 사회규범에 맞는 보편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것 자체로도 이미 유리한 그룹에 속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인 나는 함께 하는 이용인들에게 의도치 않게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태도가 있는지 다시금 성찰할 필요가 있었다. 개인적 삶에서는 고독한 노년을 보내게 될 수 있다는 막연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나도 어느 생애주기나 상황 속에서 억압그룹 속에 있을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권의 공식에 나를 대입시켜보는 계기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모두를 포함하는 인권으로 거리감이 당겨지는 시간이었다.

둘째 나이차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어린 사람들에 대한 대함이 전통적인 유교 문화에 성장해 온 나의 당연함과 감성적인 낙관에 사고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도전을 받은 시간이었다.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성장해온 나는 어른은 지혜롭고 너그러우며, 미성년은 어른들의 지원과 지도를 받는 것이 당연함으로 인식되어있었다. 이렇게 형성된 인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나이 어린 사람들은 ‘머릿없음’으로 치부가 되고, 나의 입장 정리도 상황에 순응하는 태도인가 스스로 검열하게 된다. ‘~해야만 한다’는 전통적 규범에 간혀 고집하는 끈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졌다. 사회구조를 바라보는 시선에 앞서 인권이 꼭 좋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 가

치와 상충되는 불편함을 넘어서야 하기에 나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주어져 감사했다. 그러면서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장애인복지 현장에 있으면서도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고 나(개인)에게서 문제를 찾고 순응하는 자신을 본다. 그 이면의 사회적 구조,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필요를 느낀다.

셋째, 특별히 성소수자에 대해 무지했고, 편견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성애자중심에 서서 성소수자와 교류해본 경험이 없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성소수자는 사회와 스스로에게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나’를 인정하기 위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게 됨을 알게 되었다. 이미 안정된 사회에서 자신에게 몰두하며 살아가는 나의 생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된 성소수자로서 숨어야 하거나 투사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과 그 사회는 뭘까 싶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우회적인 거절이나 모욕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을, 혐오를 만들고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종교집단과 극우 정치세력을 용인했고 지금까지 변하지 못한 이 사회는 도대체 뭘까 의문에 의문이 드는 시간이었다. 무지하고 무심하여 침묵하며 동조한 나를 돌아보게 하였다.

이번 인권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현상을 비판하고 문제적 시선으로 사회적 구조를 바라보아야 하는 자극을 받았다. 또한 관심과 정확한 지식, 긍정적인 경험으로 편견과 차별 넘어, 있는 그대로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경험을 확장해 나가야겠다.

텀스터디 19-15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서류정리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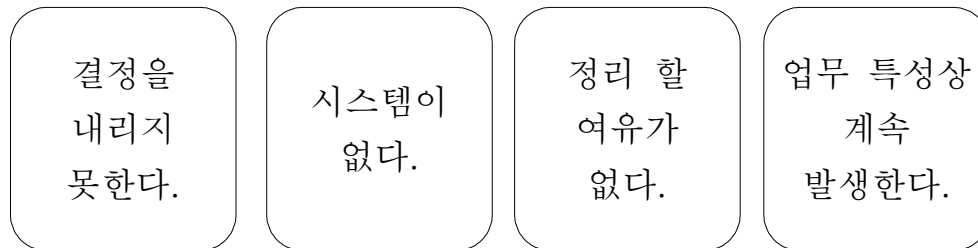
일 시	2019년 12월 23일(월) 17:00-18:00
발표자	김지혜
장 소	작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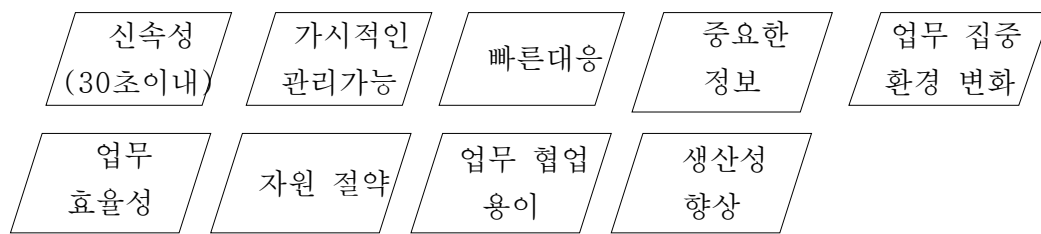
열 린 일 터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서류정리의 기술

1. 서류 정리가 힘든 이유



2. 서류를 정리하면 좋은 점



3. 단계별 책상 정리 방법

1) 꺼내기 & 분류하기 : 책상 위와 서랍에 있는 물건을 전부 꺼내서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한다.

필기류, 문구류, 사무용품	개인물품
종이서류 및 문서	나누어 줄 것 / 버릴 것

2) 버리기 & 나눔하기

- 버릴 것은 쓰레기통에 즉시 버린다.
- 안 쓰는 개인물품은 되도록 집으로 가져간다.
- 고민되는 것은 ‘망설임 박스’를 만들어 임시 보관한다.
- 나누어 줄 것은 바로 처리한다.

3) 수납하기(주소 정해주기)

- 책상 위는 정말 필요한 물품만 두기.
-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가까이 두기.

3단 서랍을 활용한 정리 	첫 번째, 사무용품, 문구류, 명함
	두 번째, 퇴근 전 서류
	세 번째, 가끔 보는 서류철, 진행 중인 업무의 참고서류, 개인물품

4) 습관 / 유지하기

- 버리기
- 제자리 돌려놓기
- 업무 시작 전 5분 청소
- 4분의 3원칙

4. 단계별 서류 정리 방법

1) 분류하기 & 버리기 : 서류 및 문서를 전부 꺼내서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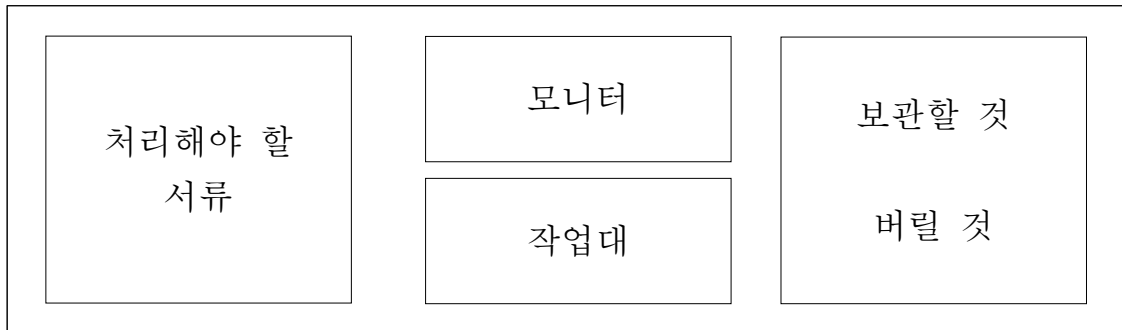
지금 처리할 것	위임할 것
보관할 것	폐기할 것

2) 수납하기(주소 정해주기)

- 서랍식 서류함 - 접수, 진행 중, 처리완료, 임시보관
- 3단 트레이에 수납 - 접수, 진행, 완결

	
<서랍식 서류함>	<3단 트레이>

3) 시스템 갖추기 : 처리해야 할 서류를 정리할 공간 마련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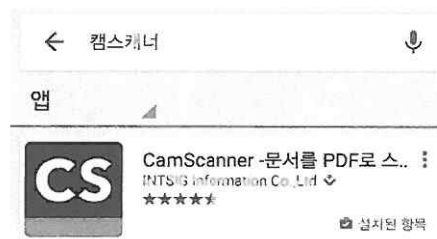


4) 습관 / 유지하기

- 퇴근 시 책상 위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 필요한 서류만 올리고 일한다.
- 메모지는 노트나 다이어리를 활용한다.
- 필요 없는 것은 제때 버린다.
- 사용한 서류는 반드시 제자리에 정리한다.

5. 서류가 쌓이지 않게 하는 방법(골든타임을 사수하라!)

- 보관하기 전에 한번 더 묻는다.
- 무분별하게 인쇄하는 습관을 고친다.
- 짧은 참고 자료는 읽고 즉시 처리한다.
- 사진찍기 or 스캔하기



6. 그 외 정리 TIP

1) 보관용 증빙서류 정리

- 도큐먼트 파일을 이용한다.
- 요술붓통을 이용하여 정리한다.

2) 영수증 정리

- 영수증을 지갑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 영수증 보관은 투명한 도구 or 파우치를 사용한다.
- 영수증 뒷면에 사용내역을 적는다.

3) 명함정리

- 명함에 필요한 정보 적기 : 헤어지고 난 후 상대방의 관련 정보를 메모한다.
명함을 받은 그날 안에 기억이 선명할 때 적는다.
- 명함 보관 방법 : 명함 보관은 두 종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명함 관리 앱으로 휴대폰에 보관한다.
- 명함 버리는 법 :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명함을 정리하고,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나 연락할 일이 없는 명함은 과감히 버린다.

팀스터디 19-16

구글 스프레드시트 및 엑셀 함수의 이해



팀 명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일 시	2019년 6월 20일
발표자	최용수
장 소	프로그램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구글 스프레드시트 및 엑셀 함수의 이해

1.기본적 함수(구글 스프레드시트 및 엑셀 공통사용함수)

[1]SUM

(1)사용용도 : 특정 셀주소에 기입된 값을 합산할 때 사용

(2)명령어 : =sum(셀주소) / Ex.=sum(C2:C13) → ‘:’는 ~에서부터~까지를 뜻함

F7 : ✕ ✓ fx =SUM(C2:C13)						
	A	B	C	D	E	F
1	이름	입금월	입금금액	입금은행		
2	최용수	1월	50,000	신한은행		
3	송준규	1월	100,000	신한은행		
4	최용수	2월	50,000	국민은행		
5	송준규	2월	100,000	국민은행		
6	최용수	3월	50,000	신한은행		
7	송준규	3월	100,000	신한은행		900,000
8	최용수	4월	50,000	국민은행		
9	송준규	4월	100,000	국민은행		
10	최용수	5월	50,000	신한은행		
11	송준규	5월	100,000	신한은행		
12	최용수	6월	50,000	국민은행		
13	송준규	6월	100,000	국민은행		
14						

[2]SUMIF

(1)사용용도 : 특정 조건에 맞춘 값만을 합산할 때 사용

(2)명령어 : =sumif(조건값을 검색할 셀주소, 특정값, 합산을 할 셀주소) /

Ex.=sumif(A2:A13,"최용수",C2:C13)

(3)알아두면 좋을 점 : 특정값을 설정할 때 텍스트는 “” 꼭 사용해야 함, 숫자와 셀주소는 “” 사용하면 안 됨 / Ex.최용수(X) “최용수”(O) / 특정값은 특정셀주소도 가능

F7 : ✕ ✓ fx =SUMIF(A2:A13,"최용수",C2:C13)						
	A	B	C	D	E	F
1	이름	입금월	입금금액	입금은행		
2	최용수	1월	50,000	신한은행		
3	송준규	1월	100,000	신한은행		
4	최용수	2월	50,000	국민은행		
5	송준규	2월	100,000	국민은행		
6	최용수	3월	50,000	신한은행		
7	송준규	3월	100,000	신한은행		300,000
8	최용수	4월	50,000	국민은행		
9	송준규	4월	100,000	국민은행		
10	최용수	5월	50,000	신한은행		
11	송준규	5월	100,000	신한은행		
12	최용수	6월	50,000	국민은행		
13	송준규	6월	100,000	국민은행		
14						

[3]SUMIFS

(1)사용용도 : 여러 가지의 특정 조건에 부합한 값을 합산할 때 사용

(2)명령어 : =sumifs(합산할 셀주소,조건을 검색할 셀주소1,특정값1,조건을 검색할 셀주소2, 특정값2) / Ex.=sumifs(C2:C13,A2:A13,"최용수",D2:D13,"신한은행")

F7									
	A	B	C	D	E	F	G	H	I
1	이름	입금월	입금금액	입금은행					
2	최용수	1월	50,000	신한은행					
3	송준규	1월	100,000	신한은행					
4	최용수	2월	50,000	국민은행					
5	송준규	2월	100,000	국민은행					
6	최용수	3월	50,000	신한은행					
7	송준규	3월	100,000	신한은행		150,000			
8	최용수	4월	50,000	국민은행					
9	송준규	4월	100,000	국민은행					
10	최용수	5월	50,000	신한은행					
11	송준규	5월	100,000	신한은행					
12	최용수	6월	50,000	국민은행					
13	송준규	6월	100,000	국민은행					
14									
15									

[4]IF

(1)사용용도 : 특정조건에 부합할 때 표시할 내용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내용을 자동 구분하여 기입하고 싶을 때 사용

(2)명령어 : =if(특정조건,부합 시 표시내용,부합하지 않을 시 표시내용) /

Ex.=if(F5<600000,"입금요망","입금완료") → 특정조건은 부등호도 사용가능

G5									
	A	B	C	D	E	F	G	H	I
1	이름	입금월	입금금액	입금은행					
2	최용수	1월	50,000	신한은행					
3	송준규	1월	100,000	신한은행		개별적으로 입금해야 할 돈 : 600,000			
4	최용수	2월	50,000	국민은행		입금액	추가입금여부		
5	송준규	2월	100,000	국민은행	최용수	300000	입금요망		
6	최용수	3월	50,000	신한은행	송준규	600000	입금완료		
7	송준규	3월	100,000	신한은행					
8	최용수	4월	50,000	국민은행					
9	송준규	4월	100,000	국민은행					
10	최용수	5월	50,000	신한은행					
11	송준규	5월	100,000	신한은행					
12	최용수	6월	50,000	국민은행					
13	송준규	6월	100,000	국민은행					
14									

[5]COUNTIF

(1)사용용도 : 특정조건에 맞는 값이 몇 개가 있는지 셀 때 사용

(2)명령어 : =COUNTIF(특정 조건을 셀 셀주소,특정값) / Ex.=countif(A2:A13,“최용수”)

F5 : ✕ ✓ fx =COUNTIF(A2:A13,“최용수”)						
	A	B	C	D	E	F
1	이름	입금월	입금금액	입금은행		
2	최용수	1월	50,000	신한은행		
3	송준규	1월	100,000	신한은행		
4	최용수	2월	50,000	국민은행		입금횟수
5	송준규	2월	100,000	국민은행	최용수	6
6	최용수	3월	50,000	신한은행	송준규	6
7	송준규	3월	100,000	신한은행		
8	최용수	4월	50,000	국민은행		
9	송준규	4월	100,000	국민은행		
10	최용수	5월	50,000	신한은행		
11	송준규	5월	100,000	신한은행		
12	최용수	6월	50,000	국민은행		
13	송준규	6월	100,000	국민은행		
14						

[6]COUNTIFS

(1)사용용도 : 특정조건들에 부합한 값이 몇 개가 있는지 셀 때 사용

(2)명령어 : =countifs(특정조건을 셀 셀주소1,특정값1,특정조건을 셀 셀주소2,특정값2) / Ex.=countifs(A2:A13,“최용수”,D2:D13,“신한은행”)

F5 : ✕ ✓ fx =COUNTIFS(A2:A13,“최용수”,D2:D13,“신한은행”)								
	A	B	C	D	E	F	G	H
1	이름	입금월	입금금액	입금은행				
2	최용수	1월	50,000	신한은행				
3	송준규	1월	100,000	신한은행				
4	최용수	2월	50,000	국민은행		신한은행	입금회수	
5	송준규	2월	100,000	국민은행	최용수	3		
6	최용수	3월	50,000	신한은행	송준규	3		
7	송준규	3월	100,000	신한은행				
8	최용수	4월	50,000	국민은행				
9	송준규	4월	100,000	국민은행				
10	최용수	5월	50,000	신한은행				
11	송준규	5월	100,000	신한은행				
12	최용수	6월	50,000	국민은행				
13	송준규	6월	100,000	국민은행				
14								

[7]VLOOKUP

(1)사용용도 : 특정범위 내에 특정값의 셀을 기준으로 같은 행에 있는 값을 찾을 때 사용

(2)명령어 : =vlookup(특정값,특정범위,찾아낼 행의 순번,0or1) / Ex.(“최용수1월”,A2:E13,5,0)

→특정값은 특정범위의 가장 왼쪽에 있는 열에서 값을 찾아낸 후 그 후 행의 순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냄. 즉, ‘기준값’열의 정보 중에서 “최용수1월”이라는 정보를 찾은 후 5번 째 행의 값을 가지고 옴.

→제일 마지막 값은 0 혹은 1을 넣게 되어있는데, 0은 “무조건 똑같은 정보를 찾아라”라는 명령어이고, 1은 “비슷한 것도 찾아라”라는 명령어임.

→기준값 설정은 필수임. 그래야 여러 가지의 조건에 부합한 정보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음.

H9	:		=VLOOKUP("최용수1월",A2:E13,5,0)								
	A	B	C	D	E	F	G	H	I	J	K
1	기준값	이름	입금월	입금금액	입금은행						
2	최용수1월	최용수	1월	50,000	신한은행						
3	송준규1월	송준규	1월	100,000	신한은행						
4	최용수2월	최용수	2월	50,000	국민은행						
5	송준규2월	송준규	2월	100,000	국민은행						
6	최용수3월	최용수	3월	50,000	신한은행						
7	송준규3월	송준규	3월	100,000	신한은행		최용수는 1월에 어느 은행에 돈을 입금했을까?				
8	최용수4월	최용수	4월	50,000	국민은행			1월			
9	송준규4월	송준규	4월	100,000	국민은행		최용수	신한은행			
10	최용수5월	최용수	5월	50,000	신한은행						
11	송준규5월	송준규	5월	100,000	신한은행						
12	최용수6월	최용수	6월	50,000	국민은행						
13	송준규6월	송준규	6월	100,000	국민은행						

기준값의 또 다른 예

H9	:		=VLOOKUP(G9&H8,A2:E13,5,0)								
	A	B	C	D	E	F	G	H	I	J	K
1	기준값	이름	입금월	입금금액	입금은행						
2	최용수1월	최용수	1월	50,000	신한은행						
3	송준규1월	송준규	1월	100,000	신한은행						
4	최용수2월	최용수	2월	50,000	국민은행						
5	송준규2월	송준규	2월	100,000	국민은행						
6	최용수3월	최용수	3월	50,000	신한은행						
7	송준규3월	송준규	3월	100,000	신한은행						
8	최용수4월	최용수	4월	50,000	국민은행						
9	송준규4월	송준규	4월	100,000	국민은행						
10	최용수5월	최용수	5월	50,000	신한은행						
11	송준규5월	송준규	5월	100,000	신한은행						
12	최용수6월	최용수	6월	50,000	국민은행						
13	송준규6월	송준규	6월	100,000	국민은행						
14											

최용수는 1월에 어느 은행에 돈을 입금했을까?

1월

최용수

신한은행

2.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만 사용하는 함수들

[1]IMPORTRANGE

(1)사용용도 : 정보를 넣어야 할 시트와 데이터가 있는 시트를 연결할 때 사용

(2)명령어 : =importrange(“특정URL주소”,“셀주소”)

Ex.importrange(“1WNS6_6AvlLQ69Rf3ksYciKB1TrhbxguIImLbc96fOm4/edit”,“시트2!A1”)

		=importrange("1WNS6_6AvlLQ69Rf3ksYciKB1TrhbxguIImLbc96fOm4/edit","시트2!A1")				
	Q	R	S	T	U	V
1						
2						
3	시트2의 A1에 있는 날짜 가지고 오기					
4	#REF!	이 시트를 연결해야 합니다.				
5		엑세스 허용				
6						
7						

→꼭 “” 기입해야 함.

→명령어를 넣은 후 ‘#REF!’가 뜨면 해당 셀을 클릭, 그러면 ‘엑세스 허용’표시가 뜨고 표시를 클릭하게 될 경우 값을 가지고 옵니다.

		=importrange("1WNS6_6AvlLQ69Rf3ksYciKB1TrhbxguIImLbc96fOm4/edit","시트2!A1")				
	Q	R	S	T	U	V
1						
2						
3	시트2의 A1에 있는 날짜 가지고 오기					
4	2019-01-01					

→같은 파일이더라도 웹서버 저장원리 상 URL주소를 입력해야 함.

업무업무업무 - Google 드라이브 비밀번호시험 - Google 스프레드 2019년상단(연습용) - Google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NS6_6AvlLQ69Rf3ksYciKB1TrhbxguIImLbc96fOm4/edit#gid=0 total_welfare4.0 자주 방문한 사이트 Google NAVER Total_Welfa... 웹일출 웹일팀 웹일 연구소 블로그 카페 메일						
		=importrange("1WNS6_6AvlLQ69Rf3ksYciKB1TrhbxguIImLbc96fOm4/edit","시트2!A1")				
	Q	R	S	T	U	V
1						
2						
3	시트2의 A1에 있는 날짜 가지고 오기					
4	=importrange("1WNS6_6AvlLQ69Rf3ksYciKB1TrhbxguIImLbc96fOm4/edit","시트2!A1")					
5						

※범위표시를 해놓은 곳이 해당파일의 URL주소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해당파일과 같은 시트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주모건 사용해야 하는 함수임.

※한 번 연결을 시키면 추가로 더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명령을 지워도 지속적으로 연결됨. 즉, URL주소 연결용 함수는 아무 셀이나 연결시킨 후 해당명령어 삭제함.

(3)IMPORTRANGE를 활용한 구글 스프레드 시트 활용 예시

1)VLOOKUP에 적용해보기

①데이터정보

기준값	이름	입금월	입금금액	입금은행
최용수1월	최용수	1월	50,000	신한은행
송준규1월	송준규	1월	100,000	신한은행
최용수2월	최용수	2월	50,000	국민은행
송준규2월	송준규	2월	100,000	국민은행
최용수3월	최용수	3월	50,000	신한은행
송준규3월	송준규	3월	100,000	신한은행
최용수4월	최용수	4월	50,000	국민은행
송준규4월	송준규	4월	100,000	국민은행
최용수5월	최용수	5월	50,000	신한은행
송준규5월	송준규	5월	100,000	신한은행
최용수6월	최용수	6월	50,000	국민은행
송준규6월	송준규	6월	100,000	국민은행

②데이터값 가지고 오기

fx =vlookup("최용수4월",importrange("1WNS6_6AvlLQ69Rf3ksYciKB1TrhbXguIImLBc96fOm4/edit","시트2!A2:E13"),5,0)

	Q	R	S	T	U	V	W	X
1								
2								
3		최용수가 4월에 입금한 은행은?						
4		국민은행						
5								

→“최용수4월”은 알고 싶은 기준값

→엑셀과 다르게 URL주소를 기입해야 함. 만약 다른 칸에서 연결을 한 적이 있다면 셀주소만 작성

※한 번이라도 IMPORTRANGE를 사용하여 연결을 했을 때 명령어

fx =vlookup("최용수4월",'시트2'!A2:E13,5,0)

	Q	R	S
3		최용수가 4월에 입금한 은행은?	
4		국민은행	
5			

→URL주소 삭제해도 명령 인식

→IMPORTRANGE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시트이름에 “ 표시

3.엑셀 및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기초 지식

[1]셀주소 절대값 설정

\$표시는 드래그를 해서 함수를 복사하더라도 값을 찾기 위해 혹은 기준이 되는 셀주소와 범위가 바뀌지 않게 함. 즉, \$표시를 하지 않고 드래그를 할 경우 값이 자동변경 됨.

Ex.A1 → 드래그를 할 시 드래그방향으로 값이 바뀜 → A1,A2,A3....An or A1,B1,C1~

Ex.\$A1 → 행으로 드래그를 하면 값이 바뀌지만 열로 드래그를 하면 값이 바뀌지 않음
→ A1,A3,A3...An 이나 A1,A1,A1....무한반복

Ex.A\$1 → 행으로 드래그를 하면 값이 바뀌지 않지만 열로 드래그를 하면 값이 바뀜
→ A1,A1,A1...무한반복 이나 A1,B1,C1~

Ex.\$A\$1 → 절대값 설정되어 바뀌지 않음.

[2]함수 내 조건값은 함수도 가능

Ex.최용수와 송준규가 신한은행에 입금한 돈이 200,000원이 넘지 않을 시 입금요망이라고 하고, 같거나 넘을 시 입금완료라는 값을 자동으로 입력하게 하고 싶을 때 사용 명령

H8	:				=IF(SUMIF(E2:E13,"신한은행",D2:D13)<200000,"입금요망","입금완료")					
	A	B	C	D	E	F	G	H	I	J
1	기준값	이름	입금월	입금금액	입금은행					
2	최용수1월	최용수	1월	50,000	신한은행					
3	송준규1월	송준규	1월	100,000	신한은행					
4	최용수2월	최용수	2월	50,000	국민은행					
5	송준규2월	송준규	2월	100,000	국민은행					
6	최용수3월	최용수	3월	50,000	신한은행					
7	송준규3월	송준규	3월	100,000	신한은행					
8	최용수4월	최용수	4월	50,000	국민은행			입금완료		
9	송준규4월	송준규	4월	100,000	국민은행					
10	최용수5월	최용수	5월	50,000	신한은행					
11	송준규5월	송준규	5월	100,000	신한은행					
12	최용수6월	최용수	6월	50,000	국민은행					
13	송준규6월	송준규	6월	100,000	국민은행					

[3]""표시 사용

함수 내에서 숫자와 함수는 ""표시를 하지 않고, 텍스트는 무조건 ""표시 해야 함.

Ex.=if(sumif(e2:e13,"신한은행",d2:d13)<200000,"입금요망","입금완료")

[4]!표시 사용

다른 시트에서 정보를 가지고 올 때에는 시트이름과 셀주소 사이에 !표시가 들어가야 함.

Ex.초기상담!A1, 주치의소견서!A2

[5]구글과 엑셀의 범위설정 차이

Ex.구글 스프레드시트 : =sum(importrange("URL주소","셀범위")) → 단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처음 활용할 시에만 사용

Ex.엑셀 : =sum(셀범위)

4.적용방안

- 본 시설은 이미 구글스프레드시트 및 상위 함수를 활용하여 업무일지 및 차량일지를 작성하고 있음, 업무일지와 차량일지를 제작한 실무자(최용수)외에도 업무일지 및 차량일지함수에 오류가 발생될 시 다시 복구시킬 수 있음.
- 상담일지 등 각종 양식에 적용이 가능하나 구글 아이디가 해킹될 시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어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있어 지금과 같이 업무일지 및 차량일지에만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팀스터디 19-17

PACE, 회복을 지원하는 100가지 방법



팀 명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일 시	2019년 7월 3일
발표자	최용수
장 소	프로그램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PACE, 회복을 지원하는 100가지 방법

1. 전인적 회복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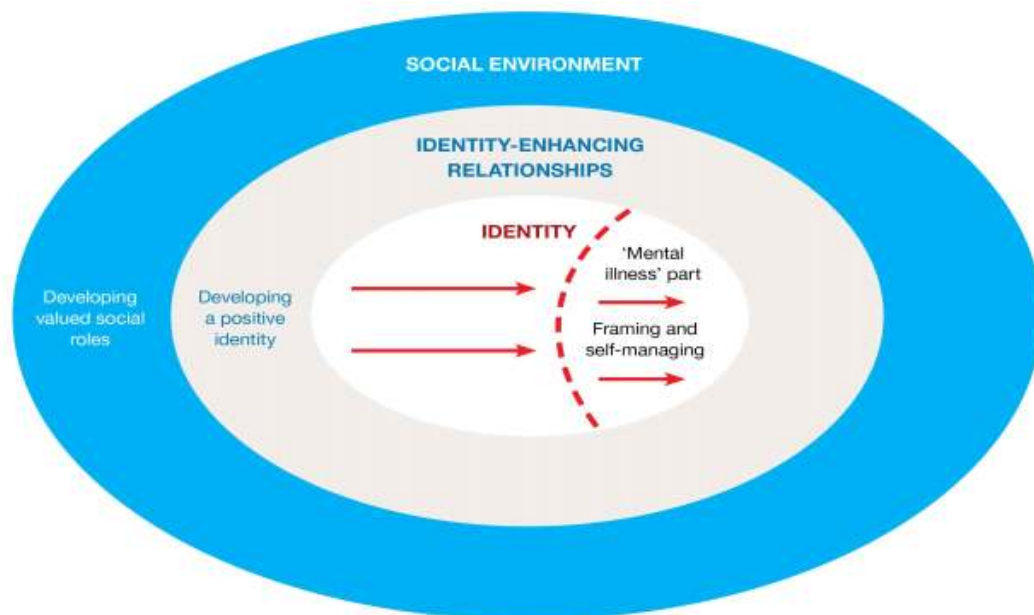
(1) 전인적 회복의 개념

- 삶의 태도, 가치, 감정, 목표, 기술 또는 역할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임. 그리하여 질환으로 인한 한계 내에서도 만족스럽고, 희망적이며 기여하는 형태로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정신질환이 미치는 극도의 부정적 영향을 뛰어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는 일임.

(2) 전인적 회복의 과제

- 1) 긍정적 자아상(정체성) 형성하기
- 2) 정신질환을 삶의 일부로 프레이밍하기
- 3) 정신질환을 스스로 관리하기
- 4)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 만들기

(3) 전인적 회복의 개념적 틀



(4)기존의 전통적인 실천과 회복 지향 서비스의 차이

기존 접근 방식	회복 지향적 접근 방식
가치와 권력의 배정	
가치중립적	가치중심적
전문적 책무성	개인의 책임성
통제 중심	선택 중심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전문가의 권력행사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임파워먼트
기본 개념	
과학적	인본주의적
병력	개인의 인생(삶의 한 부분)
정신병리	붕괴 경험
진단	개인이 수용하는 의미
진단	개인이 수용하는 의미
치료	성장과 발견
치료진 : 환자 관계	교육받은 전문가 : 경험을 통해 배운 전문가 관계
랜덤실험법	클라이언트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면담 방식
체계적 문헌 연구	역할모델 효과
탈맥락화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짐
실천방안	
기술	이해
질화에 초점	사람에 초점
질병 중심	강점 중심
부정적 사건을 피하는 것 위주	희망과 꿈에 기반함
프로그램에 클라이언트를 적응시킴	클라이언트에 맞추어진 서비스 제공자
수동적이고 순응적일 때 보상이 주어짐	클라이언트에 맞추어진 서비스 제공자
수동적이고 순응적일 때 보상이 주어짐	자기결정권의 회복을 독려
전문적 케어	자기관리
서비스의 목표	
질병에 대응	건강증진
전문적 통제 속의 성장	자기통제
순응성	선택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	변화, 혁신

2.가장 중요한 회복의 요소 - 관계

(1)동료 관계 지원하기

- ①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상호 자조 모임을 조직하고 활발히 연계
- ②회복에 관한 자료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배포
- ③동료지원가를 고용하고, 그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
- ④동료 운영 프로그램의 성장 지원
- ⑤자신의 회복 과정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지원

⑥인터넷을 통해 정보 수집 및 제공

(2)전문가와의 관계

- ⑦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선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
- ⑧어떤 경우든 가능한 한 서비스 이용자의 우선순위 존중
- ⑨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배우려하고 변화하려는 열린 태도 유지
- ⑩코칭 기술을 적절하고 최대한 사용
- ⑪개입 기술만큼이나 관계에 비중을 두고 슈퍼비전 교류

(3)그 외의 관계 지원하기

- ⑫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질문
- ⑬공감의 반응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
- ⑭영적인 경험 독려
- ⑮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 ⑯자아 발견의 기회 지원
- ⑰배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⑱전자 매체를 통한 정보 수집
- ⑲사회적 자본(인맥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
- ⑳문화생활 독려
- ㉑차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 확보

3.회복 지향 정신건강 서비스의 기반

(1)회복 관점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가치관의 예

- 1)정신건강 서비스의 첫 번째 목표이자 가장 주요한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전인적 회복을 지원하는 것임.
- 2)서비스 제공자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클라이언트의 목표를 찾아내고, 계획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임.
- 3)클라이언트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스스로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가정 하에 서비스 제공해야 함.

(2)주요 실천 방법

- ㉒웹사이트나 회복 수기를 통해 회복에 대해 배우고, 회복된 사람을 직접 만남
- ㉓기관이 지향하는 가치 수립
- ㉔이해관계자에게 기관의 가치를 홍보하고, 동참하도록 지원
- ㉕가치관에 대한 책임의식 형성
- ㉖클라이언트가 기관의 방침에 순응하기 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기

- 관 문화 형성, 정해진 규칙과 가치에 따라 행동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배제
- ㉔지향하는 가치에 위배되는 정보나 행위를 찾아내고 수정
- ㉕기관의 전체적인 혁신
- ㉖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회복에 대한 핵심지식, 태도 그리고 기술을 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 확보

4.회복 관점에서의 사정

(1)전인적 의미를 찾아내고 확인하기 위한 사정의 활용

- ㉗삶의 의미를 ‘일’에 적용, 통합
- ㉘전인적 의미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사 개발
- ㉙의료 체계 밖의 정신질환 경험자를 만나도록 지원
- ㉚환청을 듣는 사람과 환청의 관계 역시 하나의 인간관계로 이해하고 접근
(피해의식, 권력, 두려움, 권한의 문제 등은 중요하게 사정)

(2)강점 강화를 위한 사정의 활용

- ㉛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잠재력까지 사정

(3)책임 의식의 강화를 위한 사정의 활용

- 1)당신은 어떨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나요?
- 2)마지막으로 크게 웃었던 적이 언제죠?
- 3)무엇이 당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 4)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 5)당신의 삶에 뭔가 원하는게 있나요?
- 6)당신의 인생을 운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 7)당신 삶에 의미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 8)인생을 좀 더 즐겁게 해주는 일은 무엇인가요?

(4)정신건강의 사정

- 1)현재의 강점과 자원
- 2)개인적 목표
- 3>어려움을 극복해 온 경험
- 4)타고난 자원
- 5)가족환경
- 6)과거로부터 배운 것
- 7)발달력
- 8)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9)사회적지지

10)범죄력, 중독력

(5)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을 지지하기 위한 사정의 활용

③⑤증상이 눈에 띄게 심해졌을 때는 ‘인생곡선’을 사용하여 보다 넓은 시각에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동시에 증상이 호전되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③⑥정신건강 이외의 분야에서 긍정적 자아상의 강화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학습

③⑦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찾는 작업 실시

③⑧삶의 질과 역량, 기호 그리고 장애와 증상을 포함한 주제를 놓고 질환이 아닌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

(6)희망의 발견을 위한 사정의 활용

③⑨Table2에서 소개하는 전략들을 사용

④⑩클라이언트와의 모든 만남을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④⑪전문적 지식의 한계와 망설여지는 부분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노출

④⑫회복에 대한 대화 지속

※Table2.희망증진전략

	대인관계자원활용	내적자원 활성화 실패경험은	외부자원사정
실천가의 가치	클라이언트는 유일무이한 존재	클라이언트가 그 일에 개입했다는 긍정적 신호, 클라이언트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데 도움	클라이언트가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노력 지원
	클라이언트의 말 신뢰	누구나 한계 인정, 도전은 그 한계를 뛰어넘거나 받아들이는 것 모두를 의미	클라이언트의 특별함, 강점, 최선을 지지해줄 사람을 찾거나 관계 형성 지원

	대인관계자원활용	내적자원 활성화	외부자원사정
실천가의 태도	클라이언트의 잠재력과 강점 신뢰	잃어버린 것들을 슬퍼할 필요성	주거, 고용, 교육은 가장 핵심적인 외부 자원 요소
	클라이언트 수용	클라이언트는 정신질환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모색 필요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과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았던 당사자들은 좋은 역할 모델
	호전이 지연되거나 재발되는 것도 회복의 과정	-	-
실천가의 행동	비심판적 태도로 경청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성취하도록 지원	동료 지원가와의 만남을 촉진하고, 자조모임에 연계
	클라이언트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극복	어려움을 이겨내는 보다 나은 접근법 모색	위기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	과거의 성취와 긍정적인 경험 회상	치료의 전반적인 과정에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클라이언트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적절한 유머 사용	영성의 활발한 탐색을 지지, 독려	가까운 관계의 회복 지원

5.계획수립

(1)주요 실천 방법

④3사람 중심의 계획 기법 사용

④4회복자에 의해 고안된 워크북 사용

④5위의 과업을 통하여 실천가는 클라이언트가 가진 과거의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우도록 돕고, 낙인감을 유발했던 차별경험의 영향을 줄이고자 노력

6.자기관리 기술의 계발 지원하기

④6기분 좋은 존중과 환영의 분위기 형성

④7회복중인 클라이언트와의 인격적인 첫 만남 준비

(1)자기통제감 향상 지원

- ④8 변화할 필요가 있는 인생계획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사용하여 자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
- ④9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지
- ⑤0 성취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지
- ⑤1 타인에게 베풀도록 격려
- ⑤2 즐거운 일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지원
- ⑤3 성공 경험을 극대화 하고, 긍정적인 경험과 자아상을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

(2)자기결정권의 회복(임파워먼트) 지원하기

- ⑤4 클라이언트가 불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⑤5 클라이언트의 의사에 따라 치료진과 전문가를 교체
- ⑤6 자기관리에 관한 자료 제공
- ⑤7 다른 클라이언트의 임파워먼트와 자기 관리 경험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만남과 개방 독려
- ⑤8 고용주들이 정신질환 경험을 긍정적인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옹호
- ⑤9 치료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이용자 주도 형태로 개선
- ⑥0 자기주장 훈련을 제공하고 자기결정에 의한 행동 강화
- ⑥1 영적이고 문화적인 것과 같이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영역에서 자기관리 노력 확인
- ⑥2 팀미팅에서 ‘회복직책’ 선정
- ⑥3 저항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수용

(3)동기강화 지원하기

- ⑥4 반영적 경청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것과 의미하는 것 중에 실제의미 확인
- ⑥5 “어떻게”보다 “왜” 클라이언트가 변하려고 하는지 집중
- ⑥6 변화를 긍정하는 동기 부여
- ⑥7 언더슈팅기법 : “그러니까 자해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가치평가를 절하하는 방식으로 질문)
- ⑥8 오버슈팅기법 : “아무리 노력해봤자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거죠?”(가치평가를 과하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질문)
- ⑥9 동기를 강화하는 질문들
 - ↳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점은 뭐죠?”
 - ↳ “성공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 ↳ “그 문제가 있기 전에는 어땠죠?”
 - ↳ “이 상황에서 걱정되는 게 뭔가요?”
 - ↳ “변화하지 않으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 ㉔가치탐색하기 그리고 행동-가치의 모순을 탐색하기
- ㉕성취를 극대화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축하 자리 마련

(4)회복에 있어 약물의 기여

- ㉖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대한 클라이언트의 책임 강화 중점
- ㉗약물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환원적인 개념으로 이해
- ㉘약물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가 최선의 선택 지원
- ㉙약물에 관한 조절 권한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위임
- ㉚처방된 약물은 약물 복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됨을 알림
- ㉛약물 복용에 대해 주저하는 클라이언트에게 확인질문을 통해서 회복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약물이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토론
- ㉜일반 약물이나 정신과 약물에서 사용자가 직접 약물을 결정하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활용
- ㉝약물을 중단하기 원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약물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대안 모색
- ㉞정신과 약물의 단약을 원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자료를 참고

(5)회복에 있어 위험을 감수하려는 태도의 중요성

- ㉟해로운 위험을 기피하는 데만 급급한 치료진의 태도는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능력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
- ㊱치료의 목표보다 회복 목표가 우선시 될 때 정신건강 서비스는 더욱 실효성 증폭
- ㊲인증을 거쳐 조직적으로 지원된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회복 목표를 위해 서비스의 사정, 개발, 기록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위험을 감수 하는 과정 반드시 포함
- ㊳위험 관리 기술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해로운 위험의 기피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위험을 감수
- ㊴해로운 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찾아내는 과정은 최대한 서비스 이용자와 협력하여 진행

7.회복 관점에서의 위기 개입

(1)가능한 모든 위기를 예방하기

- ㊵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위험의 징후를 찾아내는 작업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진행
- ㊶적정한 수준의 자기반성에 대해 ‘괜찮다’는 메시지 교류
- ㊷회복이 지체되거나 재발하는 것은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임을 강조

(2)위기 상황에서 자기결정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 ㊸위기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그의 가치 우선
- ㊹위기 상황 이전에 정기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을 미리 작성 / 클라이언트 스스로 기록한 내용 활용

(3)위기 상황에서, 위기 이후에 클라이언트의 자아정체감 보호하기

㉑과거의 일을 돌아보고 미래의 계획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 / ‘위기의 중요성’과 ‘안정의 필요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㉒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 유지 지원

㉓클라이언트의 지지체계 강화

㉔일상생활 기술 유지

㉕입원 시에 질환에 집중된 인테이크가 아니라 첫 면담부터 정체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

㉖위기 이후에 클라이언트가 계속해서 그 일을 반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㉗의무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으로 시간을 활용

8.회복 지향 정신건강 서비스의 평가

㉘회복 지원 질적 평가 기준과 서비스 개발 척도 활용

㉙회복 과정과 결과를 사정

㉚정기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역할 회복 정도와 회복 목표의 달성 정도 점검 및 기록

9.시설운영적용방안

- 1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무자들 사이에서 회복개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사례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 클라이언트들의 자기결정권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함.

- 회복활동을 함께 하는 실무자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의 회복개념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한 후 회복 목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2019 전문자료집 - 팀스터디

등록번호 2020-6호

■발행일 : 2020년 2월

■발행인 : 손 동 훈

■편집인 : 김 수 현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만수동)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홈페이지 : www.ndjb.or.kr